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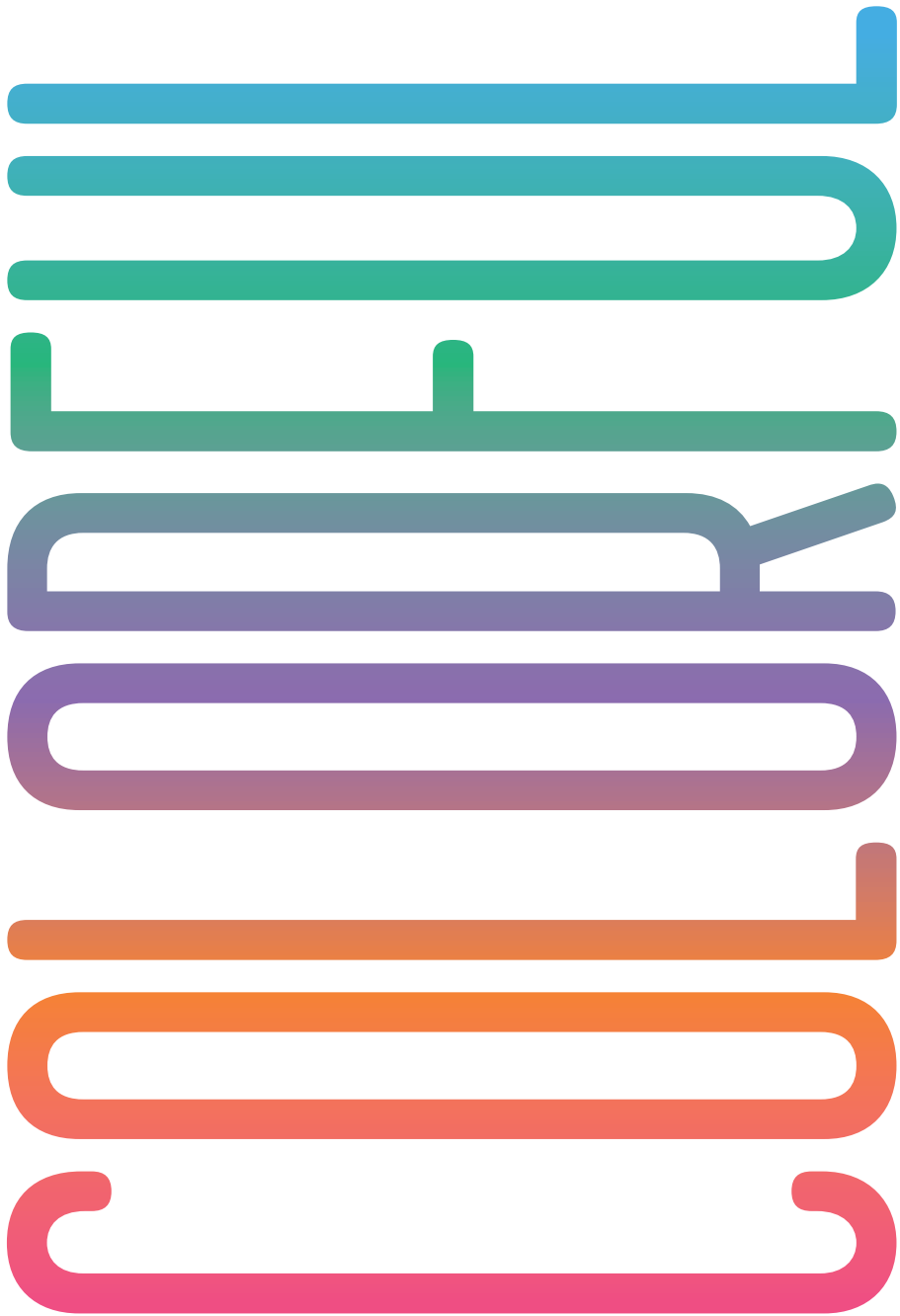
『굿잡5060』 5주년 성과 보고서

굿잡5060
함께 그린 내일

5060 중장년, 가장 어울리는 직업과 컬러로 물들다

「굿잡5060」 5주년 성과 보고서

굿잡5060
함께 그린 내일



PROLOGUE

굿잡5060은
중장년에게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5년의 시간입니다.

굿잡5060은 지난 5년간
1,001명의 중장년이 참여해
565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100번을 고쳐 쓴 이력서, 두렵고 설레는 첫 면접,
새로운 일터로 첫 출근의 여정에 함께했습니다.

굿잡5060 멤버들의 열정과 도전은
그 숫자의 의미를 뛰어넘었습니다.

중장년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곳에 물들 수 있도록
일자리는 더 다채로울 수 있도록
Colorful 굿잡5060

함께 그린 내일, 모두의 굿잡을 응원합니다.

굿잡5060 협력기관 일동

1

굿잡5060 여정을 그리다

- 008 사업소개/협력모델
- 010 히스토리
- 012 프로세스
- 014 선발워크숍/핵심역량강화교육
- 016 취업지원/후속지원
- 020 사업성과
- 021 통계로 본 굿잡5060



2

굿잡5060 사회적 임팩트로 빛나다

- 024 굿잡5060과 UN SDGs 연계성
- 025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 컬렉티브임팩트
- 026 세계적 정론지 SSIR이 주목한 굿잡5060
- 027 글로벌 우수 사례 발표
- 028 전문가가 본 굿잡5060

3

중장년 취업 성공 키워드 10

취업자 565명을 통해 발견한 재취업 여정

취업을 만드는 성공 키워드 10가지

‘형형색색’ 30명의 재취업 스토리

- | | | | |
|-----|------------|-----|----------|
| 034 | 1) 전문성 | 042 | 2) 정보력 |
| 050 | 3) 학습과 자격증 | 058 | 4) 스마트워크 |
| 066 | 5) 셀프브랜딩 | 074 | 6) 소통 |
| 082 | 7) 끈기 | 090 | 8) 변화 수용 |
| 098 | 9) 일 경험 | 106 | 10) 네트워크 |



4

굿잡5060 함께 그린 사람들

- 116 굿잡5060 운영자 6인의 이야기
- 124 굿잡5060 함께한 사람들
- 127 굿잡5060 함께한 기업들

굿잡5060
여정을 그리다



사업소개

5060 '중장년'의 새로운 '직업, 미래, 행복'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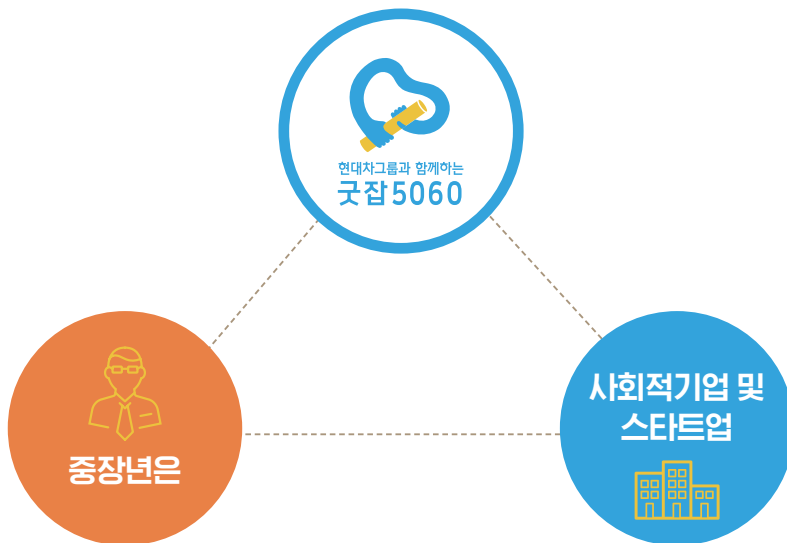
■ 굿잡5060은?

전문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중장년들이 사회적기업 및 스타트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5060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 비전 및 미션

5060세대의 일자리 문제 해결과 기업 성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취업멘토링 제공



- 사회적 경제 분야에 맞는 핵심역량을 발견하여 제 2의 커리어 가능
- 사회적기업 및 스타트업에 경험과 역량, 지혜와 전문성을 활용
- 적정 소득과 사회적 가치 창출하며 사회 참여 가능
-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한 중장년 인재 확보
-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에 기여



협력모델

국내 최초로 '민-관-공공기관-사회적기업'이 협력하다

■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과 솔루션 마련

초고령화 사회,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급증, 더 일해야 하는 중장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관-공공기관-사회적기업'이 각자의 강점과 장점을 모아, 2018년 '굿잡5060'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 » 기간 2018년~2022년
- » 목표 5년 동안 참여자 1,000명 교육, 취업 지원 500명(취업을 50%)
- »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45세 이상의 퇴직 예정자 및 퇴직자
- » 내용 중장년 대상 맞춤형 취업 교육과 멘토링 제공, 중소기업 및 소셜 섹터로 취업 지원

중장년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 최초 「민-관-공공기관-사회적기업」 협력모델

HYUNDAI
MOTOR GROUP

- 사업 주최
- 사업 기획 및 총괄
- 사업비 지원

 고용노동부

- 공동 주최
- 중장년 대상 협력 정책 제공
- 사회적기업 대상 홍보

50+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공동 주관·운영
- 참여자 모집 및 홍보
- 선발워크숍 운영
- 후속 서비스 지원(디딤돌 일자리·모임 등)

 상상우리

- 공동 주관·운영
- 핵심역량강화교육 및 취업멘토링
- 취업처 발굴 및 매칭
- 후속 서비스 지원(교육·공간 등)



굿잡5060은,

단순한 취업프로그램이 아닌 사회혁신을 창조하는

새로운 솔루션 모델입니다.



히스토리

중장년의 재취업 여정을 함께한 5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다



8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 계획 발표

2017



2018

4월

현대차그룹, 5년간 사회적일자리 3,000개 창출 발표

5월

고용노동부-현대차그룹-현대차정몽구재단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협약

7월

신중년 커리어 프로젝트 굿잡5060 출범식 개최

12월

굿잡5060 성과공유회 및 네트워킹파티 개최

굿잡5060 1~8기 운영

굿잡5060 9~24기 운영

6월

AVPN(Asia Venture Philanthropy Network) 컨퍼런스 소개
고용노동부-대기업 사회공헌 책임자 간담회 소개

8월

서울시 혁신실행계획 우수과제 선정

10월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경영혁신 5weeks」

12월

성과공유회 개최 「눈부시게 따뜻하게」
서울시 일자리창출 분야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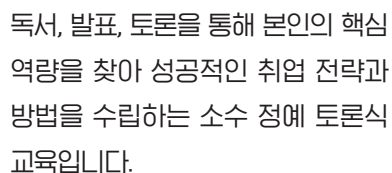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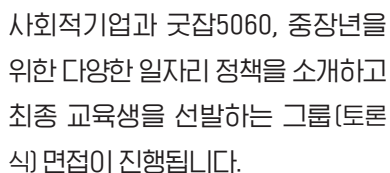
2019





STEP 1

선발
워크숍





**재 사회화(자격증, 일 경험)지원,
경력 활용 이직을 돕는 페이스메이커**



교육을 통해 발견한 개인별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재취업 목표를 수립하여 구체화 된 단계별 전략을 함께 실행합니다.



**굿잡5060만의
다양한 후속지원 서비스로
재취업의 날개를 달다**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일 경험의 기회, 플랫폼이 제공됩니다.



프로세스 들여다보기 1.선발워크숍

치열한 ‘토론식 면접’으로 최고의 교육생을 선발하다

■ 2일 간의 선발워크숍을 통해서 굿잡5060 프로젝트와 50+세대를 위한 정책 소개, 동년배들의 취업 준비 방법을 함께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 혼자서 고민하던 재취업 여정을 함께 나눕니다.

» 기간 총 5시간(2일)

» 내용 사회적기업과 굿잡5060 사업의 이해, 서울시50+정책 소개, 최종 교육생 선발



“인생 2막의 시점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
고민이 많았는데, 굿잡5060
설명회만으로도 희망과 내 안의
도전 의식을 다시 지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22년 선발워크숍(4차) 참여자



프로세스 들여다보기 2.핵심역량 강화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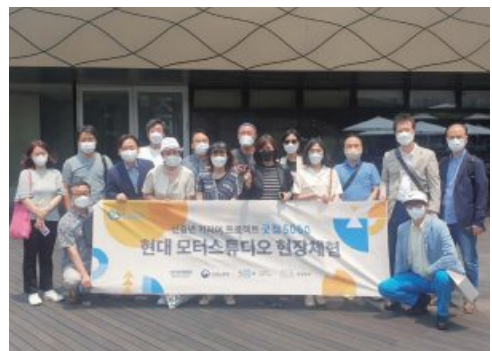
사회적기업과 스타트업이 원하는 인재가 되다

■ 핵심역량 강화 교육은 사회적기업과 스타트업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역량인 스마트워킹, MZ세대와 일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독서와 토론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본인의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강화하여 핵심역량이 잘 드러나는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인생 2막의 새로운 재취업 목표와 전략을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실천하는 소수정예 토론식 교육과정입니다.

» 기간 주 2회, 총 10회 진행, 5주 과정

» 내용

회차	주제	내용
1회차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소개 및 이용안내
2회차	스마트워크	OA 3종, 구글드라이브, 스마트워크 실습
3회차	취업전략세미나	취업분석 프로세스 및 사례 소개
4회차	핵심역량이력서 1	자기분석 CAR기법을 활용한 경력 정리
5회차	사회적경제의 이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목적 및 현황
6회차	핵심역량이력서 2	핵심역량 찾기, 워크위즈 이력서 작성
7회차	MZ세대와 일하기	세대 통합적인 함께 일하기
8회차	사회적기업&스타트업 조직문화	변화된 조직문화 이해
9회차	기업분석 및 모의면접	기업분석(SWOT) 및 모의면접 실습
10회차	탄생! 재야의 고수	솔루션 발표 및 수료식
체험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현대자동차그룹 브랜드 체험





프로세스 들여다보기 3. 취업지원

재 사회화(자격증, 일 경험)지원, 경력 활용 이직을 돕는 페이스메이커

■ 굿잡5060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각 기수 별 담임 컨설턴트가 배정됩니다. 교육과정 3회 차 이후부터 1:1 컨설팅이 진행되며,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의 주도적인 구직 역량 강화를 컨설팅하고 경력 활용 가능한 취업처를 중심으로 알선합니다. 공개된 채용정보 제공 및 히트잡을 발굴하여 추천합니다. 개인의 역량 및 준비 정도에 따라 디딤돌 일자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알선하고, 활동 종료나 계약 만료 시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분	세부 내용	방법
미취업자	수료 후, 6개월부터 매월 또는 분기별 연락을 통해 취·창업 확인 미취업자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 계속 지원(수료 후, 최대 2년까지)	유선 온라인 협업툴
취업자	취업자 대상, 3개월마다 근속 여부 확인, 퇴직 또는 계약 만료 시, 구직 전환 후 취업지원서비스 계속 지원(수료 후, 최대 2년까지)	유선 온라인 협업툴



“매니저님, 제가 출근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를 따뜻하게 안아 주셨던 온기 잊지 않겠습니다.
찾아뵈어야 도리인데 코로나 핑계로 이렇게 인사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56기 교육 참여자

“안녕하세요, 매니저님이 취업정보를 올려주셔서 제가 가고 싶은 일터로 찍었던
OOOO의 문지방을 밟게 되어서 신고 드립니다.”

57기 교육 참여자



“감사드립니다.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되어 2022년 9월 1일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굿잡5060에서 받은 교육 내용들, 모의면접, 질문예시 등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기 분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70기 교육 참여자



프로세스 들여다보기 4.후속지원

굿잡5060만의 다양한 후속지원 서비스로 재취업의 날개를 달다

경영혁신 5weeks

굿잡5060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인턴십 과정! 경영혁신 5Weeks는 기업에 필요한 당면 과제를 5주간 체계적인 '프레임 워크'를 활용해 중장년이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1개 기업이 제시한 55개 과제에 104명 중장년이 참여했습니다. 굿잡5060 수료생의 평균 연령 55.4세 취업률 60%와 비교 시 디딤돌 활동 참여자는 평균연령 58.3세 취업률은 65.7%로 55세 이상 고 연령 중장년에게 유의미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장애인 전문 의류와 비장애인도 같이 입을 수 있는 유니버설 의류를 제작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돈보다 '가치'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또 사업이고, 가치는 가치대로 지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꼭 막힌 느낌이었는데 그걸 털어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숨이 중요하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숨인 것 같아요. 숨을 '혹' 불어넣어 주셨어요.”

참여기업 ㈜베터베이직 박주연 대표



프로세스 들여다보기 4. 후속지원

굿잡5060만의 다양한 후속지원 서비스로 재취업의 날개를 달다

취업 트렌드 세미나

취업 정보가 넘쳐나지만, 중장년에 특화된 프로그램의 부재로 굿잡5060은 중장년 맞춤 취업 트렌드 세미나를 기획,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고용 시장도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취업 준비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을 위해 학계 전문가, 사례자를 모시고 앞으로의 취업 방향을 잘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취업 트렌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QR코드를 통해 굿잡5060 유튜브에서 재시청 가능



● 2020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장년 취업 On!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장년의 전환과 준비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장년 온라인 채용시장에서 일자리 찾기



● 2021년 신중년 미래 일자리 히트카드

- 일의 미래, 중장년의 미래
- 중장년의 미래를 정하는 앞으로의 10년
- 나의 핵심역량, 공공자원,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일자리 찾기



● 2022년 뉴노멀시대, 일의 의미와 가치

- 내가 주도하는 나의 삶, 나의 일
- 송길영 박사와 함께하는 빅데이터를 통해 알아보는 내일의 이정표



“코로나19 이후에 중장년들에게도 변화하는 트렌드에 부합하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고,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의 기회 창출이 되는 것 같아 의미있게 들었습니다.”

‘20년 시청자

“내용이 어렵지 않고 공감되었고, 지금의 중장년들이 트렌드를 읽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편안하고 울림이 있던 세미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합니다.”

‘22년 시청자





■ 동문들과 함께하는 성과공유회



2018년 굿잡5060 동문회



2019년 노부시게 따뜻하게



2020년 중장년의 내일(My Job),
모두의 굿잡(Good Job):
(온라인 운영)



2021년 Re, BORN:
다시 시작하는 5060

■ 동문만을 위한 네트워킹 데이 운영



■ 동문만을 위한 소식지 월간 굿잡5060



■ 동기끼리 이어가는 커뮤니티 활동

1기 소셜피치기

2기 희망공감

4기 4기상상

9기 명문커리어캠퍼스

12기 행복상상12

14기 우리가치

18기 상상18기

28기 굿잡28청춘

33기 상상33

41기 은빛어깨동무

42기 우리사이

■ 현장 경험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일 경험의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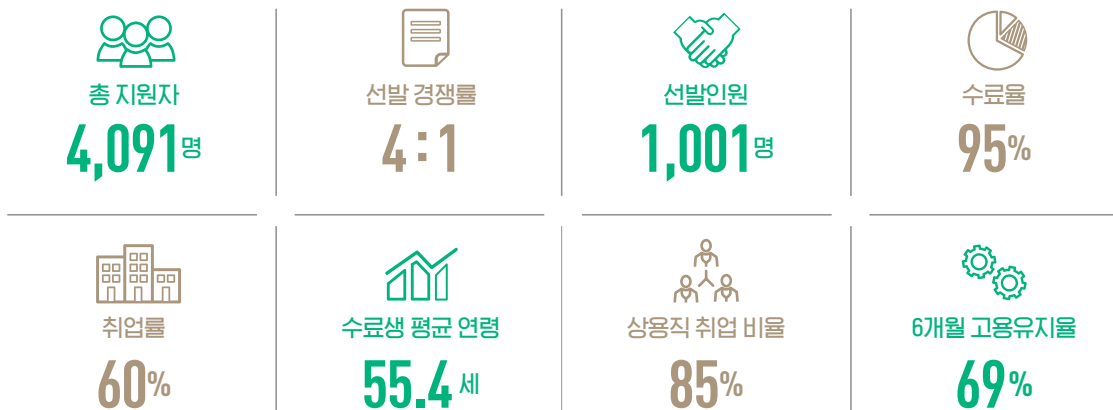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사회공헌활동, 서울시 50+보람일자리 사업, 서울50+인턴십 등



사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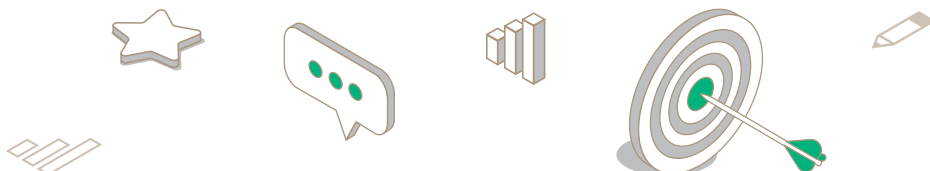
구직 기간 단축, 경력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이동을 돕다

■ 지난 5년, 굿잡5060이 만든 숫자(2018년 7월~2022년 9월)



■ 사업 성과를 통해 본 굿잡5060의 차별성

- 가장 큰 특징은 중장년의 경력 활용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수수료 후, 첫 번째 취업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4개월 미만으로 타 사업대비 빠른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 취업자 분석 결과 평균 임금 261만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율은 69%로,
굿잡5060은 경력을 활용한 전문적인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새로운 중장년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 정성적 측면에서 중장년의 재취업에 대한 자신감 회복을 돕고,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했으며,
공공일자리 계약 종료 후 2차 구직 시 상향 이동을 지원하여 중장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본 낫잡5060

낫잡5060의 참여자 특성과 취업 성과를 한눈에 살펴보자

교육수료 950명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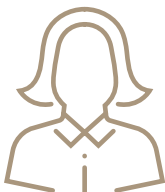
남성

71%



여성

29%



평균연령

평균 나이

55.4세



45~50세 7%
51~55세 32%
56~60세 37%
61~65세 23%
66세 이상 1%

최종 학력

학사 68%

전문학사 3%

고졸 2%



석사 25%

박사 2%

학사 학위 이상 보유자

95%

퇴직 전 직무/경력

평균 경력

24년



경영/사무 39%



영업/고객상담 14%



금융/보험 9%



교육 7%



IT/개발/데이터 6%



기타 25%

취업자 565명

취업 유형

상용직 취업 비중

85%

상용직 85%

창업 5%

프리랜서 10%



고용유지율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

69%

3개월 미만 8%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2%



6개월 이상 1년 미만 21%

1년 이상 2년 미만 24%

2년 이상 3년 미만 16%

3년 이상 8%

취업처 분석

일반기업 취업 비중

일반기업 48%

48%



소설책터 30%



공공기관 19%



기타 3%

취업 소요기간

3개월 미만 58%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9%

6개월 이상 1년 미만 15%

1년 이상 2년 미만 7%

2년 이상 3년 미만 1%



평균 취업 소요기간

3.8개월

취업처 직무/경력 활용

경력 활용 재취업 비중

58%



경영/사무 44%

영업/고객상담 14%

교육 9%

서비스 7%

공공/복지 6%

기타 20%

굿잡5060
사회적 임팩트로 빛나다



사회적 임팩트

중장년 일자리 창출의 대표적인 사회적 임팩트로 빛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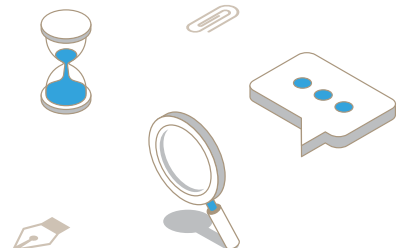
■ 굿잡5060과 UN SDGs 연계성

UN과 국제사회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기로 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기반하여 사회성과를 분석한 결과 굿잡5060은 양질의 교육 제공,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불평등 해소 측면에서 투입 예산 대비 4.5배에 이르는 80.6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UN SDGs	굿잡5060과의 연계성
 교육 16.6억	● 양질의 기술·직업 교육 무료 제공 ● 지식 및 기술 습득에 대한 중장년의 평등한 접근 강화
 일자리 21억	●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 ●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 장려
 불평등 해소 43억	● 중장년의 취·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 ● 중장년에 대한 사회·경제적 포용성 증진 기여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기로 결의한 공동의 목표입니다. 총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 실행을 통해 전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굿잡5060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 80.6억원



투입 예산 **17.7억 원** 대비 **4.5배** (SROI) 사회성과 창출

■ 굿잡5060의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 증명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최초 ‘민-관-공공기관-사회적기업’이 협력한 모델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상호 협력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의 개념 사례로 증명되었습니다.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섹터 주체들이 공동의 아젠다를 갖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굿잡5060 글로벌 임팩트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컬렉티브 임팩트 대표 사례

2021년 스탠포드소셜이노베이션리뷰 (SSIR) 게재

굿잡5060의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 모델은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받아 2021년 세계적인 사회혁신 분야 정론지 스탠포드소셜이노베이션리뷰(SSIR) 한국어판에 ‘컬렉티브 임팩트를 위한 생태계 차원의 접근법-굿잡5060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미국 오리지널판 홈페이지에도 게재되며 우수한 협력 사례로 인정 받았습니다.

2022년 Kramer와 Kania 등이 스탠포드소셜이노베이션리뷰에 지난 10년 간의 컬렉티브 임팩트 활동을 재조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는 아티클 “Centering Equity in Collective Impact”에도 <굿잡5060>이 아시아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 2022년 글로벌 컬렉티브 임팩트 포럼 한국 대표 사례 선정



국제 포럼 2022 Collective Impact Action Summit 의 한국 대표로 참여하여 ‘한국의 컬렉티브 임팩트를 통한 비자발적 퇴직 문제 해결’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중장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굿잡5060을 함께 운영하는 기관이 어떻게 협력하고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가는지 소개하였습니다. 발표 후, 질문과 답변을 나누며 참여한 관계자들에게 굿잡 5060의 가능성을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 AVPN CONFERENCE 2022 한국 대표 사례로 선정 발표자 초대

‘AVPN(Asian Venture Philanthropy Network)’은 아시아 최대 규모 임팩트투자자 네트워크로, 아시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소셜벤처와 비영리에 좋은 자본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한국 대표로 굿잡5060 사업과 협력 모델을 소개하여, 전 세계 투자자와 기업가들에게 호응을 얻었고, 더 큰 임팩트 창출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컬렉티브 임팩트 이니셔티브, 〈굿잡5060〉

신현상(한양대학교/임팩트리서치랩) / 이호영(한양대학교/임팩트리서치랩)

중장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간 섹터 현대자동차그룹이 소셜 섹터의 상상우리, 비영리 섹터의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공 섹터의 고용노동부와 함께 출범시킨 컬렉티브 임팩트 이니셔티브(collective impact initiative) 〈굿잡5060〉이 올해로 5년을 맞이했다.

2018년 시작된 〈굿잡5060〉은 지난 5년 동안 1,001명(수료율 95%)의 중장년에게 재취업 교육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전체 참가자의 60%가 재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기존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들의 재취업률 성과인 30~40%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굿잡5060〉을 통해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들의 채용 만족도 및 채용된 중장년들의 임금 역시 높은 수준이어서 질적 성과 또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임팩트 측정 및 사회적 가치 컨설팅 전문기관인 임팩트리서치랩이 2020년에 발표한 〈굿잡5060〉 사회 성과 측정 연구¹에 따르면 〈굿잡5060〉이 2018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창출한 사회 성과는 약 41억 원에 달했다.¹ 이를 현대자동차가 〈굿잡5060〉에 투입한 예산(해당 기간 동안 약 8.7억 원)과 비교하면 투입 대비 약 4.7배의 사회 성과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즉 100만 원을 투입했을 때 470만 원 정도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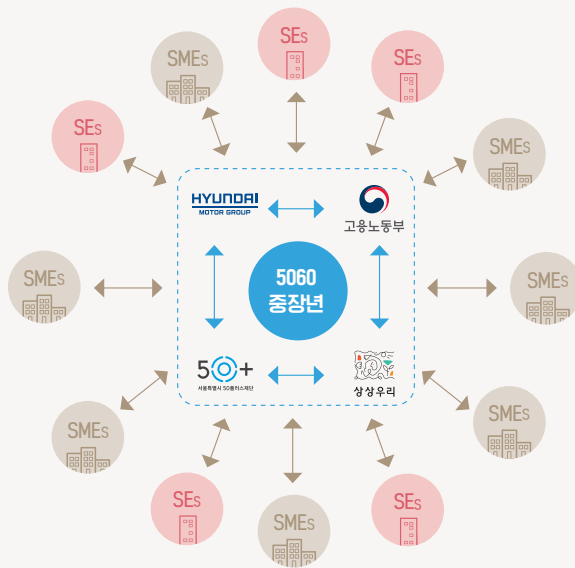
이처럼 〈굿잡5060〉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생태계 차원에서 페인 포인트를 파악한 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메커니즘을 잘 설계하여 운영했기 때문이다(그림 1 참조).

예컨대 중장년들 입장에서 재취업 교육 수료 후 수백 개의 기업들에 직접 연락하여 면접을 잡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었다. 〈굿잡5060〉은 이 같은 페인 포인트를 인지하고, 고용 파트너인 기업들과 협의하여 〈굿잡5060〉 프로그램을 이수한 중장년들이 해당 기업들에서 현장 실습을 하거나 취업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 실제로 〈굿잡5060〉 이수 후 재취업에 성공한 중장년의 53%가 이러한 알선 활동을 통해 취업한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다른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도 기업과 어느 정도의 연계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굿잡5060〉은 기업들과의 형식적인 협력이 아닌, 이들을 생태계 차원에서 함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컬렉티브 임팩트 이니셔티브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굿잡5060〉은 주된 고용 파트너인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페인 포인트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했다. 〈굿잡5060〉에 참가한 중장년들이 보유한 경험과 지식, 역량이 중소기업/사회적 기업에게

1 신현상, 이호영, 김하은. (2020). 〈굿잡5060〉 사회 성과 측정 연구, 임팩트리서치랩 연구보고서

그림 1 <굿잡5060> 컬렉티브 임팩트 구조와 잠재적 고용주(기업체)와의 파트너십 관계망



<굿잡5060> 컬렉티브 임팩트 구조와 잠재적 고용주(기업체)와의 파트너십 관계망

-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타 프로그램들과 달리 굿잡5060은 고용주들과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implicit partnership)을 형성하였음.
- 운영주체인 상상우리는 고용주들을 발굴/유지/관리하며 사업 기간 동안 중소기업(SM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및 사회적 기업(SEs, Social Enterprises)들과의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함.
- 고용주들은 굿잡5060을 통해 인재 채용 및 훈련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림. 고용주들은 집합적 임팩트의 직접적 파트너는 아니지만, 이해관계의 합치 (Incentive Alignment)로 인해 강력하고 실질적인 파트너십이 형성됨.
 - 전체 참가자 중 사회적경제 출신인 사람 비중: 1.4%
 - 굿잡5060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취업한 사람 비중: 37.0%

큰 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들이 중소기업/사회적 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조직의 입장에서 무리한 아이디어를 주장할 경우 오히려 팀원들의 사기만 떨어지거나, 이들이 잠깐 일하다가 회사를 떠나버리면 오히려 조직에 타격만 남길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한다. <굿잡5060>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중소기업/사회적 기업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했고, 현업 종사자들과의 교류를 주선했다. 이를 통해 <굿잡5060> 수료생들은 취업 시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기존 팀원들과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는 <굿잡5060>의 고용 파트너 기업 입장에서 우수한 인재 채용, 교육 훈련 비용 절감, 조직 운영 및 이직 관련 리스크 감소 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굿잡5060>은 생태계 차원에서 수혜자들의 페인 포인트를 식별한 뒤, 이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모집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 간의 역할 분담이 분명했고, 생태계 안에서 서로를 보완하는 기능을 했다. 또한 수혜자들의 페인 포인트를 명확히 규정했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지 않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측정 체계 또한 비교적 쉽게 공유되었다. 이는 2011년 사회 혁신 분야의 국제 정론지인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SSIR)’에 기고한 아티클에서 컬렉티브 임팩트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크레이머(Kramer)와 카니아(Kania)가 설명한 ‘성공적인 컬렉티브 임팩트를 위한 다섯 가지 조건(The Five Conditions of Collective Success)’을 <굿잡5060>이 잘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표1 참조).²

² Kania, J., & Kramer, M. (2011). Collective Impact.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9(1), 36-41. <https://doi.org/10.48558/5900-KN19>

표 1 <굿잡5060>에 대입한 컬렉티브 임팩트를 위한 다섯 가지 조건

다섯 가지 조건	굿잡5060 현황 분석
공동의 목표	▶ '중장년 재취업 일자리 창출 및 매칭'이라는 공동의 비전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함.
상호 강화 활동	▶ 각 파트너 기관의 강점을 살리고 자원을 공유하여 시너지를 창출함. ▶ 특히 고용 파트너인 기업들의 니즈를 반영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중장년들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선순환을 형성함.
중추 지원 조직	▶ 상상우리의 별도 지원 전담 인력이 파트너 간 코디네이션을 진행함.
지속적인 의사소통	▶ 현대자동차그룹, 서울시50플러스재단, 상상우리의 사업 담당자들이 매주 모여 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함.
측정 체계 공유	▶ 독립적인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모든 파트너들이 동의하는 KPI(Key Performance Index)를 설정함. 정기적인 임팩트 측정을 위해 각자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공유함.

<굿잡5060>은 이와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에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 단독 사례로 소개됐다(그림 2 참조).³ 또한 2022년 4월에는 FSG와 ASPEN Institute에서 주최한 'Collective Impact 2022 Virtual Action Summit'에 컬렉티브 임팩트의 우수 사례로 초청받아, 한국 사례로는 유일하게 별도의 세션을 배정받아 발표하기도 했다(그림 3 참조).⁴

2022년 Kramer와 Kania 등이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 지난 10년 간의 컬렉티브 임팩트 활동을 재조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는 아티클 "Centering Equity in Collective Impact"를 기고했는데, 여기에도 <굿잡5060>이 아시아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 바 있다.⁵ 이처럼 <굿잡5060>은 국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컬렉티브 임팩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어느새 사업 5년 차를 넘어선 <굿잡5060>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한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급증하는 중장년 인구,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굿잡5060>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 수준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상상우리,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고용노동부가 함께 만들어 가는 컬렉티브 임팩트 <굿잡5060>은 우리 사회의 히어로(hero)가 될 수 있을까? 함께 지켜보면서 응원해보자.

³ Lee, H., Kim, H., & Shin, H. (2021). Tackling Involuntary Retirement in South Korea.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https://doi.org/10.48558/ZZ91-CH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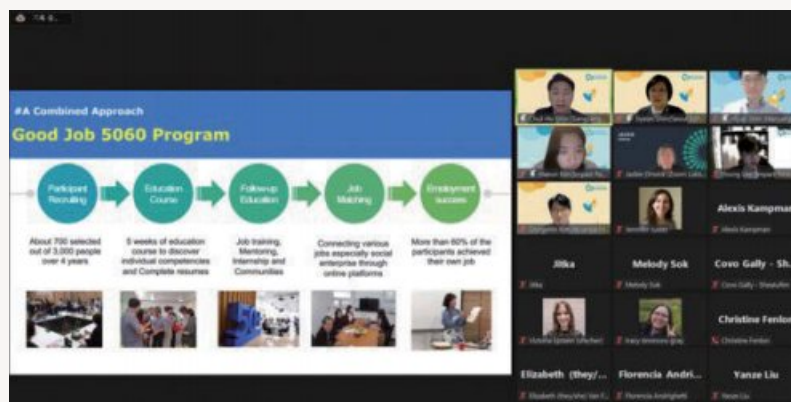
⁴ <https://collectiveimpactforum.swoogo.com/cias2022/agenda>

⁵ Kania, J., Williams, J., Schmitz, P., Brady, S., Kramer, M., & Juster, J. S. (2021). Centering Equity in Collective Impact.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20(1), 38-45. <https://doi.org/10.48558/RN5M-CA77>

그림 2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에 소개된 <굿잡5060> 사례



그림 3 Collective Impact 2022 Virtual Action Summit에 초청되어 사례 발표 중인 모습



중장년 취업 성공 키워드 10



01

재취업 성공 키워드



재취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첫 번째 키워드는 '전문성'입니다.
많은 중장년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직을 희망하지만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종사자는 55세 이후 일자리 부족으로
동일 직무로 경력을 살려 취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전문성을 탄탄한 실력으로 증명해서
재취업에 성공한 굿잡5060 동문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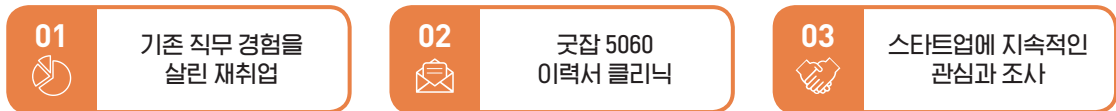
자신의 속도를 찾아라 YOUR RACE, YOUR 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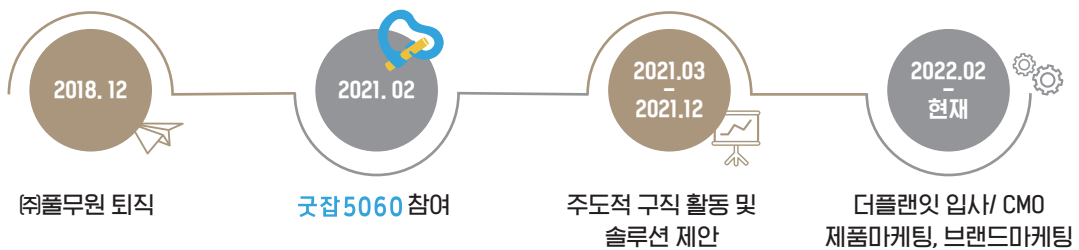
INTERVIEW 01 김민자 » 굿잡5060 43기

푸드테크 스타트업 더플랜잇 | CMO » 2022년 2월 입사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재취업 경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김민자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는 물음에 기후 위기, 물 부족 문제, 지구온난화 등을 일으킨 공범으로 육식 위주 식습관을 지목했고, 육식이 초래한 글로벌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한다고 대답했다. 주먹 크기의 눈덩이를 건네자 커다란 눈사람이 돼 돌아왔다. 눈사람이 무척 궁금했다.

환경파괴로 위기의식이 뜨거운 시대를 살고 있다. 축산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세계 모든 교통수단이 배출하는 양보다 많다. 우리가 소비하는 먹을거리를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다. 김민자님은 이 문제에 주목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기업, 푸드테크 스타트업 '더플랜잇(The PlantEat)'에서 일한다. 세상을 이롭게 하며 성장하는 기업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김민자님의 선택은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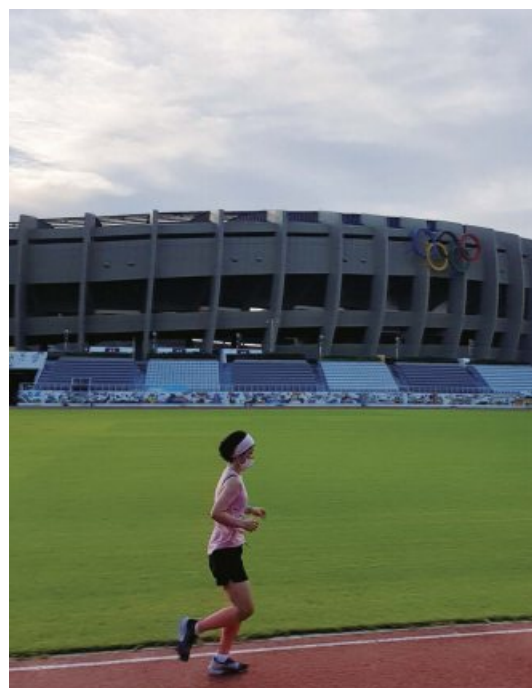
나이 많은 사람을 채용할까?

김민자님은 식물성 대체식품을 기획, 출시해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인지도시키고 실질적인 소비까지 이끌어야 하는 최고 마케팅책임자(Chief Marketing Officer)이다. 스타트업의 CMO는 다양한 일을 한다. 비즈니스 수요를 분석하고 신제품 기획, 식품 개발, 제품 전략 수립, 출시 이후 PM들과 함께 제품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등.

“퇴사 후 2년 동안 휴식기를 가졌어요. 재취업을 시도하면서 나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대기업, 중견기업 등 갖추어진 조직은 나이 많은 직원을 뽑지 않을 것 같아서 본격적인 서치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했어요.”

굿잡5060 교육과정은 자신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관심 분야 기업 분석을 통해 솔루션 제안으로 발표하는 학습을 한다. 중장년이 기업의 문을 먼저 두드리는 솔루션 제안이 구직활동의 또 다른 길임을 배웠다. 김민자님은 이전 직무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후 의지를 갖고 식품 관련 스타트업을 조사했다. 식품산업 전문성을 갖춘 김민자님은 인류와 자연의 공존을 고민하면서 순 식물성 식품개발 기업 '더플랜잇'을 발견했고 기업 HR팀에 '직급이 맞지 않아도 일하고 싶다'라는 메일을 보냈다. 구인 공고가 없는 상태였지만 시도했고 성공했다.

김민자님은 굿잡 동문에게 자신이 일하고 싶은 기업을 먼저 찾고, 공고가 없더라도 시도할 것을 권했다. 회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어필하면 성공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한 사례다. 김민자님은 이전 직무에서 얻은 식품산업 전문성으로 다시 기회를 얻었다. 전문성은 선택의 순간에 힘을 발휘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Your race, Your pace

“처음에는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 나 혼자 정지한 느낌이었어요.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고 있고, 소비자 트렌드 변화도 속도감이 있어요. 하지만 일 속에 있으면 또 오래되지 않아 적응해요. 일하는 현장에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것은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일하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리듬을 알아채고, 그 속도와 리듬에 자연스럽게 올라타 있다.

달리는 사람

김민자님은 노동 환경의 변화로 물리적 시간 확보가 가능해 일과 삶 사이 불균형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거기에 더해 중장년이 되자 시간 부자가 되었고 그 안에서 달리고 있다. 김민자님은 자신을 “달리는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한다.

언제나 더 좋은, 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이길 원하는 김민자님이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의 성장에 함께, 자신의 속도로 계속 달리실 거라는 확신이 든다.

달리는 사람은 달릴 때 자신만의 만트라(mantra, 집중을 돕는 마음의 도구, 불교 용어)가 있다고 한다. 김민자님의 만트라는 'Your race, Your pace'이다.



나만의 사다리를 찾아



INTERVIEW 02 라준원 » 굿잡5060 45기

사회적기업 이지무브 | 생산관리 이사 » 2022년 8월 입사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01



교육, 봉사활동 등을 통한
지속적 마음 수양 및 자기 계발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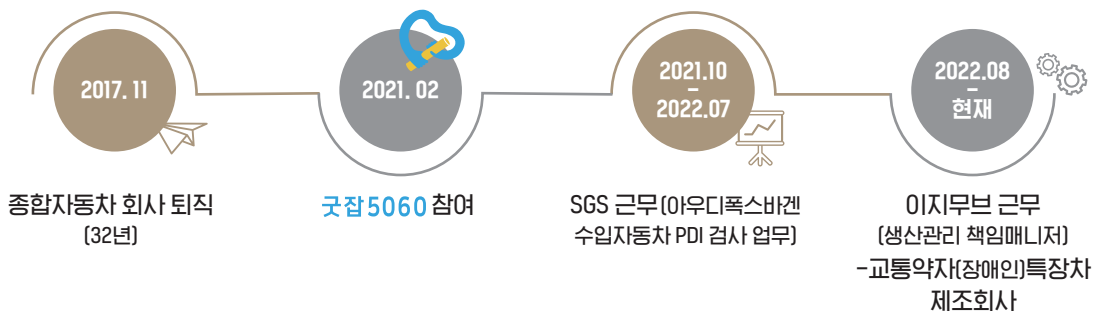
건강관리를 통한
자신감 확보

03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고 전환

재취업 경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등
자신을 말로 표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또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의 사다리

“여덟 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은 식구 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한 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은 여덟 식구를 보살핀다.”라는 독일 속담이 있다. 누구보다 잘하는 한 가지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굿잡5060 수료 후 1년 반이 지난 시점이었는에도 담당 매니저로부터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있으니 지원해 볼 생각이 있는지 연락을 받았고 면접을 통해 입사했다.

라준원님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이동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주목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기업, ‘이지무브’에서 일한다. 교통약자(장애인)를 위한 특장차 제조회사로 라준원님이 주된 직무에서 쌓아온 모든 업무 경험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다.

라준원님은 『탈무드』의 천장 높이 매달린 과일바구니를 본 두나그네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다. 한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또 한 사람은 사다리를 찾아서 과일을 꺼내 먹는다. 라준원님은 32년간 자동차 생산관리 영역에서 자기만의 전문성으로 쌓은 도구가 있었다. 재취업 여정의 나그네가 되었을 때, 퇴직 후 문제 해법에서 자신만의 사다리로 ‘어떻게 꺼내 먹느냐’보다 ‘무엇을 통해 꺼내 먹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행복의 파랑새는 마음속에

입사 전 회사 대표와의 1:1 면접 자리에서 라준원님은 이력서에 이미 기재된 자기 경력을 나열해 피력하기보다, 회사 대표가 당면한 해결과제와 담당해야 할 직무를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경험이 있으니 최대한 해 보겠다.”라고 담백하게 답했다. 성공적인 인터뷰 후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과, 하는 일이 일치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등 자신을 말로 표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또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행복함을 느끼려고 해요. 무언가 부족함을 느낄 때 스스로 행복하다고 자기 암시와 주문을 걸어요.”

요즘 라준원님의 회사생활은 이전과 달리 마음의 여유를 갖는 쪽으로 바뀌었다. 젊은 날에는 밀어붙였던 일도 지금은 늦더라도 천천히 제대로 하려고 한다. 그 결과 회사의 목표를 앞세워 소원해질 수 있는 직원들과 내면의 이야기를 꺼내고 서로 공감하게 되었다. 생산 라인 직원들과 교감을 갖고, 선불리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당기듯

라준원님은 굿잡5060 교육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 또 대기업 출신인 자신의 유능함을 믿었지만, 막상 어딘가에 취직하려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조차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울 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일주일에 2~3개 지원했고, 창업팀 기초과정 멤버로 활동하면서 스펀지가 물을 빨아당기듯이 새롭고 다양한 분야를 배웠다. 그 과정에서 타인을 돕는 삶을 다짐하게 되었고, 사회적 약자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고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 재활센터 봉사 속에서 조금씩 경험을 다졌다.

“우리는 시간의 본질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지속이 발명, 형태의 창조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의미임을 더욱더 이해하게 될 것이다.”

- 베르그송, 톰 버틀러의 책 『짧고 깊은 철학』 중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그 모습이 결정되는 것이 삶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쪽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정체될 수도 있다. 라준원님이 도달할 수 있는 최종적인 상태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미래는 확실히 열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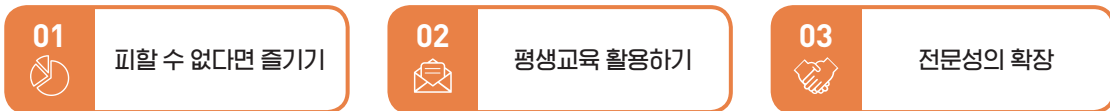
지금, 여기에 주목하라! NOW AND 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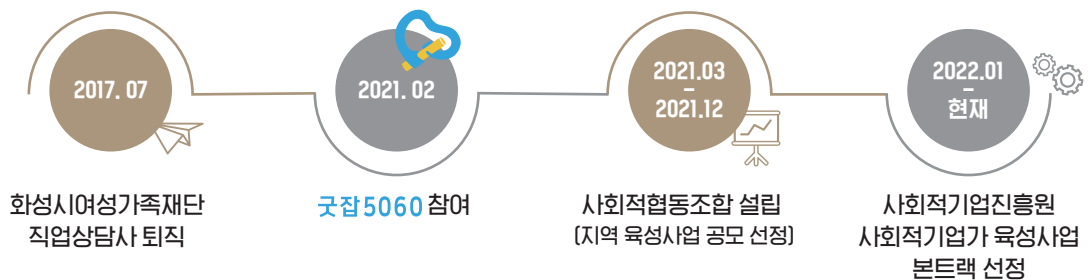
INTERVIEW 03 **이희정** » 굿잡5060 43기

다가치 사는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2021년 3월 설립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재취업 경로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희정님은 2021년 2월 '굿잡5060'에 참여해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했다. '굿잡5060'은 미래를 준비하며 자신의 질문에 답을 찾는 좋은 경험으로 독서와 토론,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핵심 역량을 발견하고, 스마트워크, 밀레니얼 세대와의 소통법 등을 익히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었다.

재취업 모색 과정에서 아직 어린 자녀의 육아, 가정을 돌보는 일을 병행할 수 있는 마을 협동조합과 조우했다. 도전과 성취에서 행복을 느끼는 이희정님에게 마을 협동조합은 흥미로운 일이었다. 인생 후반부에 사회에 공헌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는 신념을 지닌 결과, 제2의 도약을 위한 '다가치 사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하였다. '가정과 일의 균형을 살피는 노력을 하면서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다.

다가치 사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중 이해관계 조합원들의 권익·복리 증진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부문 사회적 약자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는 일이 단순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국가기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으로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믿음이 생겼다.

'다가치 사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놀이치료사, 청소년상담사, 진로·직업(상담)전문가 등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했다. 첫 3년 동안은 소셜세터가 없는 지역인 화성 송산그린시티에 사회적경제 단체를 알리고, 청소년 당사자 중심의 정체성(고유빛깔) 찾기 등 진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며, 함께하기 위한 마을 강사 양성에 치중하고 있다.

이희정님은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초반 3년 동안 무보수로 활동하기로 했다. 발기인으로 참여한 조합원들은 이사장이 하는 일을 지지해주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었고, 1년 만에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는 쾌거를 얻었다. 이후 조합원들의 무임승차와 같은 부작용 문제와 취약한 자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조합원'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21명의 조합원을 유치하는 등 살아 있는 협동조합으로 진행형이다.

'경기꿈의학교'에서 꿈을 펼치다

'경기꿈의학교'는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기도 하고, 운영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신개념 학교이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이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해 진로를 탐색하는 학교 밖 교육 활동이다. 제도권 교육으로 꿈을 한정하지 않고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생 중심 교육 철학'을 위해 투입한다. '경기꿈의학교' 교육 철학과 교육과정은 '다가치 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 목적과 내용과도 잘 맞았다. 이희정님은 '경기꿈의학교'에서 꿈을 키우는 학생들처럼 자신의 꿈도 펼쳐나가고 있다.

전문성의 확장, Now and Here

이희정님은 다소 늦은 시기인 40대에 상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산학협력단 연구원 및 장학 조교로 활동했다. 상담 연구 과정에서 어린 시절 겪은 심리적 문제가 사회 진출 후 인간관계에서 문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통감했다. 관계 형성 과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인 면을 세심하게 살피고 삶의 균형을 구축하는 일에 집중했다. 이러한 과정으로 얻은 통찰력과 성숙함은 소극적인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재취업의 든든한 발판이 되었다.

이희정님은 현재 '다가치 사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경영과 임상심리사, 진로 상담사, 부모교육 강사, 미술치료사 등 1인 다역(多役) 중이다. 또한 홈페이지 관리자, 사업 기획, 수업 키트 개발 등의 일도 한다. 자신의 호기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수준에 이를 때까지 공부하고 열중한 노력이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전이시켰다.

이희정님은 '적극성'을 삶의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한다. '전문성'을 쌓아가는 일에도 '적극성'이 주춧돌이라고 생각한다. 관심이 있다면 찾아가고 두드리고 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작은 가능성도 외면하지 말고 도전할 것을 '굿잡5060'에게 전한다.





02

재취업 성공 키워드



재취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두 번째 키워드는 '정보력'입니다.
중장년의 재취업 1차 구직 기간은 평균 5.8개월이고 퇴직 이후
재취업자의 절반은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거치게 됩니다.
굿잡5060은 자신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 분야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력 강화를 훈련하여 1차 구직 기간을 3개월 내외로 단축시키고,
이직 시에 이전보다 더 좋은 일터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한 굿잡5060 동문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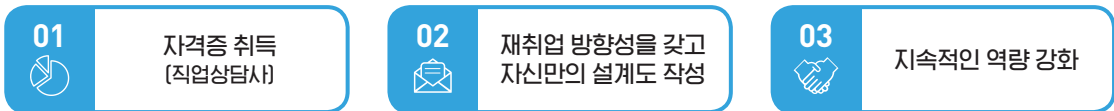
정보가 힘이 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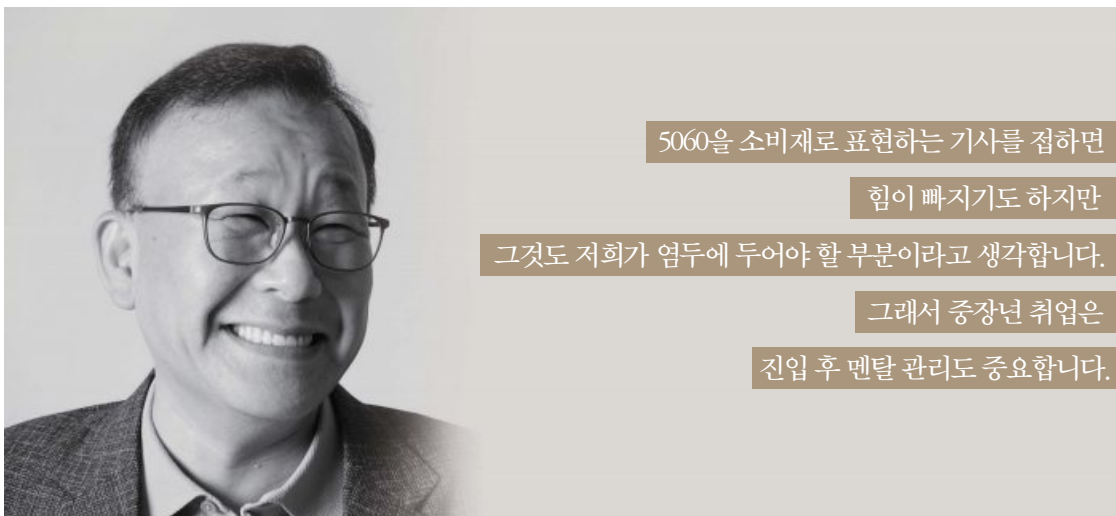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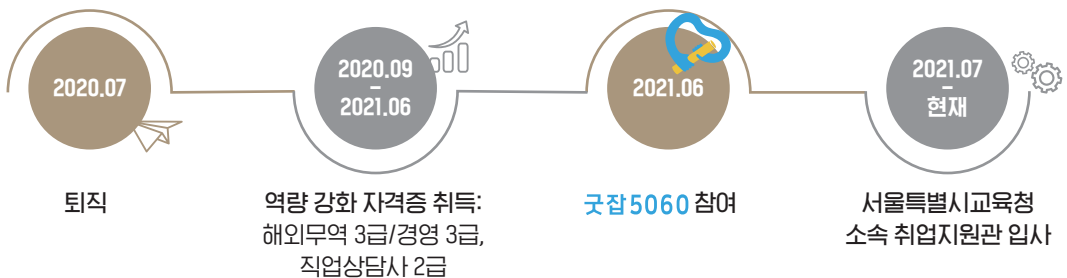
INTERVIEW 04 조성현 » 굿잡5060 50기

서울특별시교육청 | 취업지원관 » 2021년 7월 입사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재취업 경로



정보력을 강화하는 리추얼(ritual)

중장년 재취업에서 중장년에 특화된 정보의 확보는 목표 탐색, 설정, 달성까지 모든 단계에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정보는 그만큼 목표에 집중하게 돕는다. 질적으로 높은 정보는 영향력을 갖게 되고, '정보력'이라는 키워드 파워를 얻는다. 조성현님은 자신의 재취업 여정에서 정보력의 수혜를 경험했다. 퇴직 후 고용센터, 시니어 박람회, 상상우리 중장년 특화 구직 플랫폼 워크위즈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조성현님은 정보 획득보다 정보의 정리를 강조했다. 굿잡5060에서 나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 분야 이해, 나의 강점을 기반으로 취업 정보의 정리 및 자료화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체득했기 때문이다. 자료를 매번 업데이트하고 유형별로 분류한다. 자신만의 정보관리 시스템도 만들었다. 모두가 자신만의 시스템을 갖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기존의 방식을 따르는 것도 방법이다. 생산성 도구인 노션, 구글집, 에버노트 등을 활용해 디지털 텍스트로 정리하면 필요할 때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생산성 도구의 장점은 일정한 템플릿 사용으로 정리하는 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무엇보다 꾸준한 기록이 힘이 된다.

질적으로 우수한 정보를 얻는 최고의 방법은 배우는 것이다. 조성현님은 한국기술교육대 훈련 강사 과정, 컴퓨터 활용능력 과정 등을 통해 취업 현실에 맞는 정보를 얻고,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청소년 직업상담 봉사활동 등으로 역량을 강화했다. 정보를 정리하고 기록하고 체득하는 과정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느 순간 정보가 스스로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정보력을 강화하는 리추얼(ritual)이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

하루에 2만 단어를 말하는 해비토커(heavy talker)

서울시 교육청 소속으로 특성화고에서 취업지원관으로 일하는 조성현님은 하루에 2만 단어를 말한다. 의미가 실린 2만 단어를 하루 동안 말하는 데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목표로 조성현님이 행하는 프로세스의 첫 단계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때때로 욕구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 그럴 때는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욕구 파악을 돕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축적된 자료로 클라이언트 유형을 분석해 데이터를 만든다.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생들과의 대면은 세심하게 준비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진심을 알아주고 태도가 변하는 것을 목격할 때, 무엇보다 목표 기업에 합격할 때 최고의 감동을 맞는다.



기업이 원하는 중장년

“직무 분석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인 자격증, 취업 의사, 자기소개 키워드를 준비하고 다져서 진정성 있게 도전해야 합니다. 5060을 소비재로 표현하는 기사를 접하면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그것도 저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년 취업은 진입 후 멘탈 관리도 중요합니다.”

기업은 어떤 중장년을 원할까. 취업지원관으로 기업 분석을 해온 조성현님은 호기심을 가진 사람, 진정성 있는 사람,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지속 가능한 노하우가 있는 사람 등을 말했다. 또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직무 소통을 위해 컴퓨터활용능력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용기란 힘이 없을 때 계속하는 것

“지금은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즐길 줄 압니다. 하지만 밑바닥에 가라앉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 용기가 있었고 그걸 끌어왔습니다.”

조성현님은 태어나고 죽음을 맞는 시간, 그사이를 어떻게 채울지를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일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다. 그리고 품위 있게 늙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주름이 늘어나고 병원을 찾는 일이 많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서도 나이가 든다. 나이 드는 것만으로 저절로 지혜로워지지 않는다. 잃은 것들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INTERVIEW 05 김성진 » 굿잡5060 29기

행운동 생활상권추진위원회 | 사업팀장 » 2022년 1월 입사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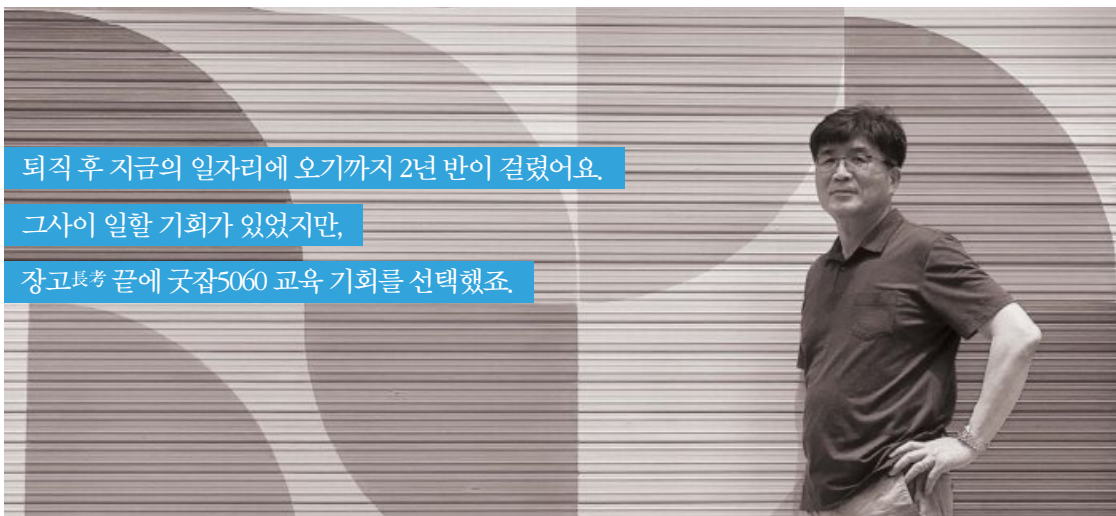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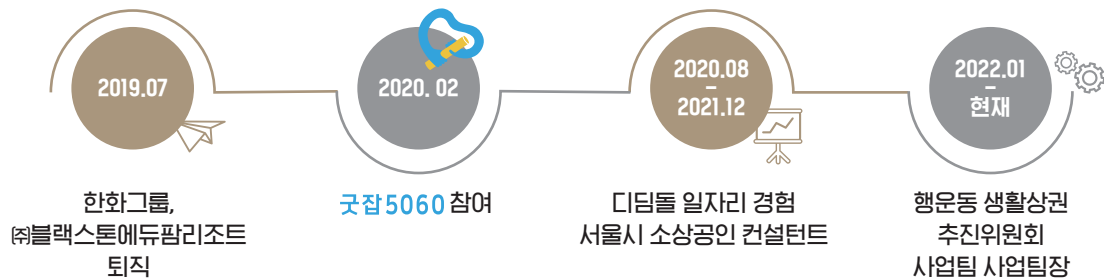
- 01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를 정의하고
- 02

미리 준비하며 작은 경력이라도 쌓으면서 목표에 도달하라
- 03

자신을 믿고 도전하라

재취업 경로



재취업 목표, 70세 이상까지 일하기

김성진님은 대기업 계열 백화점과 IT 계열사를 거쳐 2019년 퇴직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디딤돌 일자리로 '서울시 소상공인 컨설턴트'를 경험하고, 2022년 1월부터 '행운동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사업팀' 팀장으로 생활상권 육성사업 관리 운영 기획 및 단위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퇴직 후 지금의 일자리에 오기까지 2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사회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굶주림(餓死)과의 만남도 지연되었다. 그사이 일할 기회가 생겼지만, 장고(長考) 끝에 굶주림(餓死) 교육 기회를 선택했다. 굶주림(餓死)을 통해 장기적인 일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성진님은 굶주림(餓死)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이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에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고, 자신의 재취업 목표인 '70세 이상까지 일하기'를 실현할 설계도를 그릴 수 있었다. 교육과정 마무리 이후 디딤돌 일자리 경험 기회가 찾아왔고, 다년간 쌓은 유통업 전문지식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컨설턴트' 업무를 수행했다.

소상공인 컨설팅은 경영으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현장 컨설팅업무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지원 내용)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마케팅, 영

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 관리, 재무관리, 안전·보건 관리, 상품 및 메뉴 개발,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등 세부적으로 정말 다양한 활동 범위가 있다.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소상공인들과 원만하게 소통하려면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자료조사나 학습을 통해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하고, 정확한 정보를 찾아내고 활용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정보력 확장을 통해 미래 계획 구체화

디딤돌 일자리 경험이 끝나갈 때, 서울시 소상공인 컨설턴트 담당자로부터 생활상권 사업에 관한 내용을 듣고 재취업 방향을 더욱 구체화했다. 약 1년 5개월간 경험한 소상공인 컨설턴트 업무가 지역사회를 위한 지금의 일을 선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성을 띠는 사업은 주로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서울시 일자리 포털, 경기도 일자리 포털, 워크넷 등 공공기관의 채용공고 사이트를 통해 취업 정보를 수집했다.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지역사회 육성사업은 주어진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도전해 볼 기회도 희소했다. 처음 시도는 실패했다. 소중한 기회 중 한 번을 어떻게 실패했는지 복기하고, 다음 기회에는 성공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위한 생활상권'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했다. 그 결과 두 번째 시도에서 '행운동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사업팀' 팀장으로 합류했다.

새로운 길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사업팀은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인들을 돕고 고객 방문을 촉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사업팀의 활동들은 김성진님의 유통업체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무척 흥미로웠다.

지금은 지역 상권을 이루는 지역 주민과 단체, 각각의 상인을 연결하고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체감한다. 지역 커뮤니티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이나 디자인 방법론 등을 망라한 커뮤니티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

김성진님은 재취업을 통해 과거의 나를 넘어서,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젊은 감성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앞으로 배울 것도 많고, 노력할 것도 많다. "에너지를 쏟으며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 김성진님은 지금, 새로운 경력을 쌓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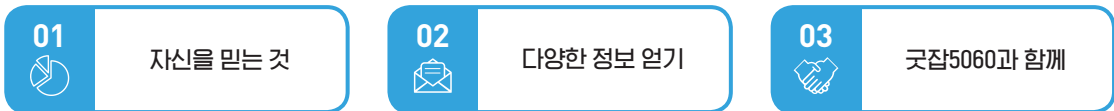
서로의 변곡점이 된 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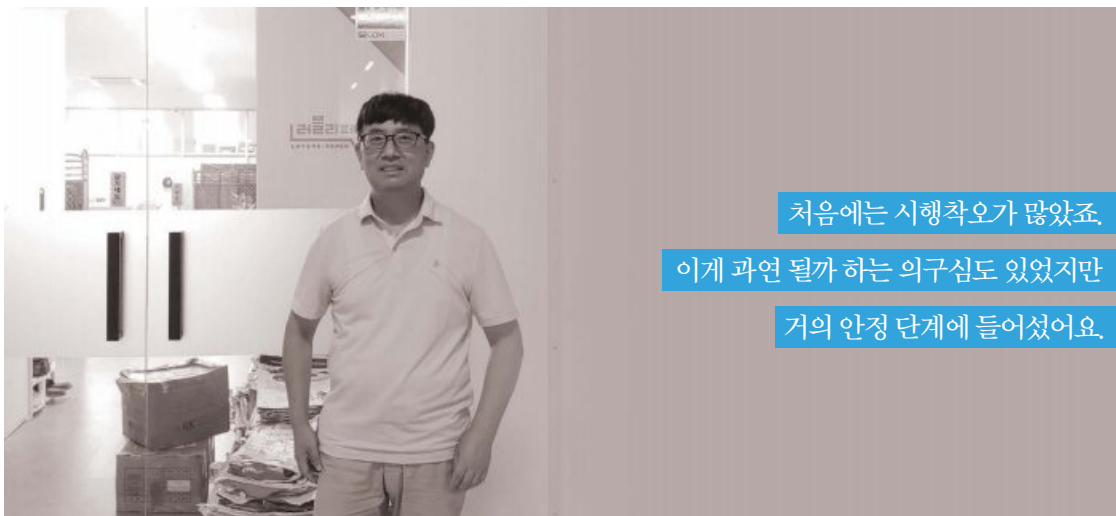
INTERVIEW 06 노상욱 » 굿잡5060 33기

사회적기업 러블리페이퍼 | 신사업기획 총괄 » 2020년 11월 입사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재취업 경로



롱런(long run)하려면 롱런(long learn)

인생에는 변곡점(變曲點)이 있다. 시간의 마디마디를 이으면 선이 되고, 선이 방향을 바꾸는 어느 한 시점에 변곡점이 생긴다.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 변곡점은 변화의 시작이다.

노상욱 님과 사회적기업 '러블리페이퍼'의 인연(因緣)은 서로에게 변곡점이다. 노상욱 님은 교육과정 중 현장 실습처였던 사회적기업 '러블리페이퍼'에서 롱런(long run) 중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온 힘을 다하는 기업에서 첫발을 담그고 사회적 경제를 체득 중이다. 최근에 크라우드 펀딩의 수익금으로 취약계층에 여름나기 물품 지원했는데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다. 생산 전문 인력이 절실했던 사회적기업 '러블리페이퍼'에서 신규 사업 기획, 생산관리 등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 인력으로 일하고 있다.

'러블리페이퍼'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삶은 자원 재생 활동가로 변화한다. 어르신들의 삶의 변화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지만, 생산관리 프로세스에 큰 맹점(盲點)이 있었다. 노상욱 님은 자신의 생산관리 히스토리를 녹이고 정보를 수집하고 정확하게 분석해 필요한 솔루션을 찾았다. 기업의 생산 기반 취약에서 오는 불안 요소를 거의 100% 해소했다고 자평한다.

"이제 대표님이 어디 가서 상담하든 어디에서 어떤 요청을 하든 그냥 자신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효율을 개선하는 정보력

노상욱 님은 섬유 전공자로 이전 지식과 최신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여 현업에 적용하고 있었다. 성분, 활동도, 내구성 등 과거에 배웠던 지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업그레이드한 정보력을 자신의 무기로 삼고 있다.

노상욱 님은 경험과 능숙함에만 의지하지 않는다. 새 비즈니스 모델과 상품을 개발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러블리페이퍼의 고유 사업은 어르신들이 수거한 폐박스를 캔버스로 만들고, 캔버스에 작가들의 재능기부가 더해져 회화나 캘리그래피 작품으로 상품화하는 것이다. 지금은 호텔의 페시트와 학교나 기업에서 급식용으로 사용한 후 버려지는 쌀 포대를 예코백, 노트북 파우치로 만드는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상욱 님의 정보력은 생산관리에서 시작해서 회사 구조적인 면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죠.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거의 안정 단계에 들어섰어요. 쌀 포대로 원단을 만들어 특허까지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종이 쌀 포대를 재활용해 제작한 가방

인연은 만났다고 시작하지 않아

노상욱 님은 인턴십으로 만난 중장년들의 태도에서 아쉬움을 느낀다. 과거 경험 속에 갇힌 모습과 닫힌 마음이 안타깝다.

"체험 활동으로 만난 분 중에 본인이 과거에 다녔던 직장 명함을 주면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이곳을 다녔다고 하면서요. 그 명함을 받으면서 저는 그분이 취업 의지가 없고 아직도 과거에 묻혀 산다고 생각합니다."

노상욱 님은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들에게 '취업 의지'를 더 표출할 것을 제안한다. 새로운 회사 환경과 분위기에 맞춰 계속 변화하고 적응하면서 마음속에 '나는 이 회사에서 진짜 도움을 주고 가치를 창출하고 싶다'라는 열망을 키울 것을 권한다.



03

재취업 성공 키워드



재취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세 번째 키워드는 '학습과 자격증'입니다.

굿잡5060에서 핵심역량을 찾아내고, 강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과거의 삶과 미래를 연결하는 삶에 대한 고민도,

가치 있는 삶의 소망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50대 후반에 새로운 자격증 취득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자격증입니다.

재취업에 성공한 굿잡5060 동문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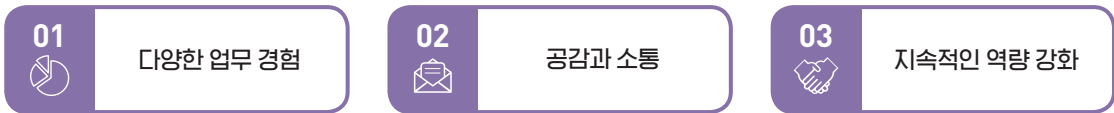
업그레이드를 위한 솔루션,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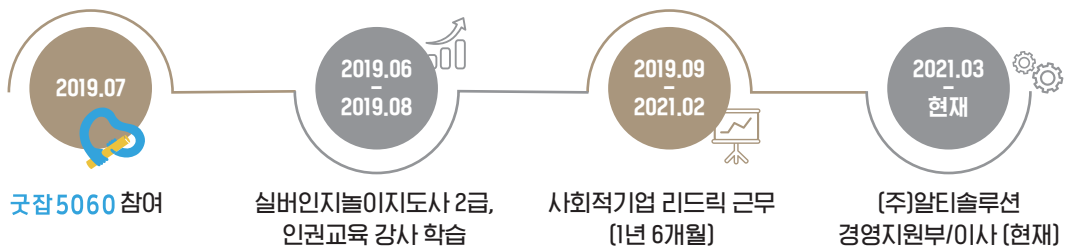
INTERVIEW 07 김성대 » 굿잡5060 14기

㈜알티솔루션 | 경영지원부 이사 » 2021년 3월 입사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재취업 경로



굿잡5060에서 중장년 재취업 현실을 인지하고,

다양한 경험의 중장년 메이트를 여럿 만났습니다.

혼자일 때보다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훨씬 효율적이고

멀리,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 2막은 리셋(Reset)에서 시작

퇴근하던 어느 날, 자신의 차 안에서 김성대님은 '공황장애'를 맞닥뜨렸다. 30년 동안 단 하루의 결근도 없었던 엔지니어 김성대님은 그날 공황장애를 겪고 퇴사를 결심했다. 운전을 다시 하는 데는 1년이 걸렸다.

“지금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운전 중이었는데,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더는 운전할 수 없었습니다.”

휴식기를 가지면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제2의 인생 방향을 고민했다. 열정적으로 일했던 김성대님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삶에 대해 고민했고, 가치 있는 삶을 소망했다. 이제는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사회적 경제'를 접했다. 주위에 '사회적 경제' 개념을 아는 사람이 드물어 손품을 팔아 인터넷이 제공하는 정보를 파고들었고, 파고들수록 더 제대로 개념을 정립하고 싶었다.

씨앗을 심지 않아도 바싹 마른 땅에 물을 대면 이름 모를 싹이 돋기도 한다. 시간이 흐른 후에 나무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 '사회적 경제' 풀씨 하나가 김성대님의 삶을 리셋(reset)했다.

호모 에루디티오(homo eruditio), 학습을 즐기는 사람

방향 설정을 마치고 '2019년 경기도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에 참여했다.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교육 참여는 제2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 도전의 시작이었고 길을 안내하는 등대였다. 김성대님은 자신의 거주 지역 곳곳에서 교육 기회를 포착해 광명시 사회적경제센터 위탁 교육기관의 문을 두드렸다. 같은 시기에 '굿잡5060'을 병행했다. 굿잡5060에서 중장년 재취업 현실을 인지하고, 다양한 경험의 중장년 메이트를 여럿 만났다. 혼자일 때보다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훨씬 효율적이고 멀리,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후 국제 인지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치매예방지도자 전문과정에 참여했다. 제2 인생을 모색하며 다음 스텝인 제3 인생을 설계했다. 김성대님은 치매 예방 지도를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봉사로 생각하고 준비했다. 자격증 취득 필수 이론 및 실습 교육 수료, 필기시험 및 현장실습 평가를 거쳐 '실버인자놀이지도사' 2급에 합격했다. 세상은 나이, 성별 등과 관계없이 공부하는 사람으로 가득하고 함께 배울 때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무엇보다 즐거웠다. 학습의 즐거움으로 배우는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퇴직 후 1년 동안 7개 학습 과정에 참여했다.

조용한 행동주의자

굿잡5060의 취업 추천을 통해 김성대님은 중증장애인이 생산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리드릭에 취업했다. 의약외품 제조관리와 생산 및 자재 구매 업무 지원 직무였다. 코로나19 상황에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기업의 생산 활동이 활발했다. 이전 기업에서와 달리 하는 일은 제한적이었지만, 김성대님은 정말 즐거웠고 해방을 느꼈다고 한다. 또 자신이 장애인과 잘 놀 줄 아는 어른이라는 사실도 발견했다. 장애인과 일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었다.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쏟아 소진됐던 그 암담한 시간의 솔루션은 꾸준한 학습이었다. 그로 인해 김성대님은 번곡점에 설 수 있었다. 2019년 9월 입사하여 1년 6개월 동안 정들었던 리드릭을 2021년 2월 말 퇴사했다. 마지막 날까지 직원들과 맺은 아름다운 인연과 끈끈한 관계로 이별의 아쉬움과 서운함이 서로 교차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다.

그 일자리 경험을 디딤돌 삼아 더 안정적인 중소기업 ㈜알티솔루션의 경영지원부 임원으로 제안을 받게 되었다. 새로운 일터에서 다시 1년 반이 지나고 있다. 인생의 마지막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늘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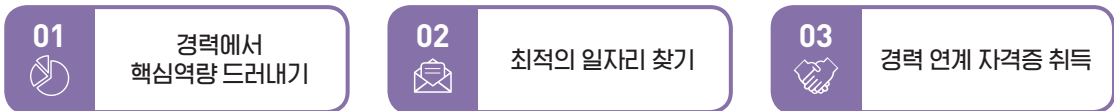
미래를 위한 준비, 자격증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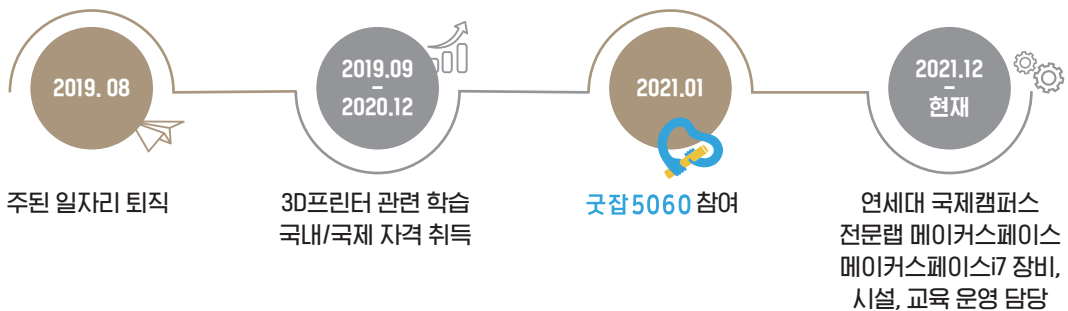
INTERVIEW 08 **한상진** » 굿잡5060 43기

전문랩 메이커스페이스 | 운영담당자 » 2021년 12월 입사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재취업 경로



취업 인터뷰에서 제가 치열하게 경험한 삶이라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제 진정성이 전달되는 것을 느끼면
자신감이 더 샘솟았습니다.



인사이트가 된 30년의 경험

한상진님은 90년대 초반 컴퓨터를 이용해 설계 및 생산환경을 조성하는 CAD(Computer Aided Design), CAM(Computer Aided Manufacturing)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30여 년간 동종 분야에서 활동했고, 다른 분야의 개인 사업을 거쳐 2021년 12월에 재취업에 성공해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i7 메이커스페이스에 근무 중이다. 한상진님은 30여 년간 자신이 몸담은 분야의 기술 발전과 변화를 주시하고 지속해 모니터링했다. i7 메이커스페이스 재취업은 그 과정에서 찾은 기회였다.

굿잡5060 과정을 통해 지나온 경력에서 핵심역량을 찾아내고 강화하는 방법을 배웠다.

한상진님은 i7 메이커스페이스에서 3D 프린팅 분야의 교육 및 운영을 맡고 있다. 90년대 초반 컴퓨터로 제품을 설계하는 CAD 분야는 규모가 큰 기업에서만 가능한 전문 분야였다.

한상진님은 이런 전문 기술 분야에서 엔지니어, Technical Sales를 거쳐 Taiwan Coretech System Coporation사의 Moldex3D 플라스틱사출성형해석 한국총판 사업체까지 운영한, 해당 기술의 전 업무 분야를 거친 업계 산증인이다. CAD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 봤을 '3D 프린팅' 기술의 운용 근간이다. 3D 프린팅은 주로 1인 메이커, 창업기업, 소기업 등에서 완성도 있는 제품 생산을 위해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주로 활용한다.

경험과 지식의 체계화 과정, 자격증

2009년 3D 프린팅을 접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 가치를 발견했다. 야간에 운영되는 '3D 프린팅 창업 과정'을 이수하면서 준비했지만, 3D 프린팅 산업은 바로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후 2010년 중반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맞물려 3D 프린팅 산업은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한상진님은 기술과 교육이 결합한 3D 프린팅 분야 사업이 자신의 경력을 기반으로 인생 2막 플랜 직무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3D 프린팅 사업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 준비를 시작했다.

3D 프린팅 분야의 국제자격증 1종, 국내 자격증 1종, 교육 관련 자격증 1종 총 3개의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계획했다. 관련 업계에 오랜 기간 몸담았지만, 지금까지의 지식을 체계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자격증 취득으로 지식의 체계화와 실무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취업 시장에서 증명하고 싶었다.

경험은 진정성이다

50대 후반에 3개의 자격증 취득은 쉽지 않았다. 더욱이 일을 병행했기에 주로 야간 자격증 교육 과정을 수강했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의 자격증 과정을 수강하고, 다음 날 본업에 매진했다. 국제자격증 CAD를 시작으로 3D프린터 운용기능사, 3D프린팅 전문교육강사 자격을 취득했다. 재취업 탐색 중에 자격증 취득은 전문성을 PR하는 좋은 무기이다. 전문성에 30여 년의 경력을 덧붙이자 면접 등 취업 활동에 자신감이 붙었다.

“취업 인터뷰에서 제가 치열하게 경험한 삶이라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제 진정성이 전달되는 것을 느끼면 자신감이 더 샘솟았습니다.”

끊임없는 미래를 위한 준비

한상진님은 10년 전쯤 창원에 있는 일본계 제조사에서 놀라운 현장을 목격했다. 금형 관련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나이가 육안으로도 많아 보였고 실제 70세를 넘긴 분이 많았다. 일본 정밀금형 분야 강점인 일본 시니어들의 노하우가 일본 외 나라들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더불어 시니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그들 스스로 인생 2막의 설계를 할 수 있게 하는 산업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인생의 후반부를 계획하면서, 여러 갈래 선택의 길이 있었다. 한상진님은 자기 경험에서 가장 잘하는 것, 그걸 잘 살릴 수 있는 길을 선택했다. 변화가 빠른 사회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일까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 중이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INTERVIEW 09 강미순 » 굿잡5060 50기

충북 디지털배움터 | 지원운영팀장 » 2022년 4월 입사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 01 중장년 일자리 현황 직시
- 02 과거의 스펙이 아닌 핵심역량에 집중
- 03 실무역량을 갖추려는 노력

재취업 경로



중장년 재취업은 학습부터

강미순님은 2020년 6월, 교육 관련 회사에서 퇴직했다. 퇴직을 맞고, 억울한 감정과 함께 재직 중 퇴직을 대비한 재취업 준비를 못 한 후회가 밀려왔다.

억울함, 후회의 감정을 새로운 삶과 일을 찾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와 학습에 쏟았다. 퇴직 후 전직 지원 및 재무설계 상담 일을 하면서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 직업상담, 사회복지 자격을 취득하고 전직 지원 전문가 과정을 수료했다. 잠시 중단했던 뇌 교육 대학원에도 복학했다.

강미순님은 다시 일하기 위해 정확한 재취업 정보와 재취업을 가로막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를 느끼고 ‘굿잡5060’에 참여했다. ‘굿잡5060’ 프로그램에서 변화된 현실에 직면했다. 핵심역량이라 해서 강의와 모의 면접에서 면접관이었던 자신이 지원자로 뒤편 상황을 경험하고 깨달았다. 특히 자신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권위적인 것과 MZ세대와의 소통법을 배울 필요를 새삼스럽게 느꼈다. ‘굿잡5060’ 프로그램은 실무에 필요한 업무 역량뿐 아니라 현장 상황이 어떠한지, 5060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었다. 중장년 재취업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쓴소리를 듣는 듯 다소 냉혹했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었다.

이후 여자고등학교에서 학습지원 지도사로, 강서 50플러스센터 커리어 컨설턴트로 짧은 기간 일했다. ‘굿잡5060’ 프로그램에서 익힌 업무 방식과 역량을 적용해보는 시간이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강미순님은 다양한 일 경험 과정에서 ‘이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미래 지향적인 일인가, 일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품었다. 그리고 다양한 학습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강미순님은 중장년 재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방식이 변한 시대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중장년이 업무 지역의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구글 드라이브, 망고보드, 잔디, 노션 등의 협업툴과 정리툴을 사용하는 능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중장년에게 자격증 취득은 해당 분야 지원에 첫 번째 걸림돌을 넘는 것입니다. 합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업무 포지션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나 조급함으로 무분별하게 자격증 취득에 매달리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강미순님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이 자칫 재취업 활동을 지연시키는 핑계가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다양한 구인 사이트를 통해 재취업 분야의 구인 광고를 분석해 요구하는 핵심역량과 자격 조건을 충분히 검토해보길 권한다. 5060에게 요구하는 핵심역량과 필수 자격조건을 명확히 분석한 후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는 것을 권한다.

현재 강미순님은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국책사업을 시행하는 충북 디지털 배움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연세가 많은 부모님 가까이 지낼 수 있어 이 일을 선택했다. 지방의 여유로움을 만끽하면서 늘 자주 뵙지 못해 죄송했던 부모님께 진 마음의 빔을 조금이나마 덜고 있다. 부모님도 좋아하시지만 강미순님도 마음이 편하다.

강미순님은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뇌활용 치매 예방 프로그램, 어르신 여행, 어르신 자서전 쓰기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동년배를 대상으로 지금처럼 편안하고 좋은 마음으로 오래도록 일하고 싶다.





04

재취업 성공 키워드



재취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네 번째 키워드는 '스마트워크'입니다.
굿잡5060에서 변화된 일하는 방식에 발맞춰 다양한 워크스페이스를 배웁니다.
클라우드, 협업 도구, 화상회의, 원격제어 등의 사용에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 능력은 기본 요구 역량입니다.
새로운 물결의 기본이 되는 스마트워커로 무장하고
재취업에 성공한 굿잡5060 동문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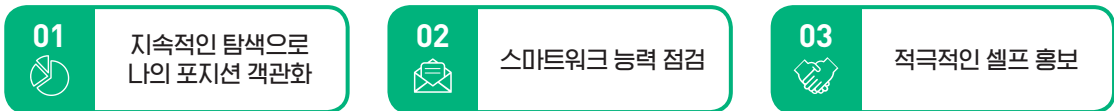
일하는 방식의 변화, 스마트워크(SMART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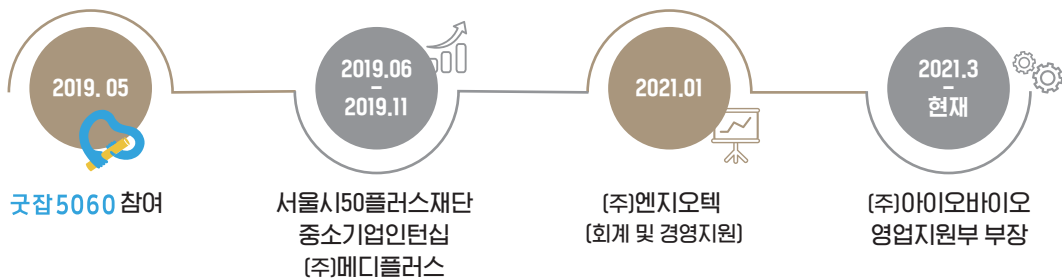
INTERVIEW 10 **신희숙** » 굿잡5060 15기

㈜아이오바이오 | 영업지원부 부장 » 2021년 3월 입사

■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 재취업 경로



굿잡5060은 친정집 앞에 선 당산나무 같아요.

Any Time, Any Where

신희숙님은 핸드폰 확인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회사 전용 메신저(Messenger)에 접속해 지난 밤에 마무리한 프로젝트 문서와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전송한다. 이어 자신이 사용하는 앱을 통해 오늘 일정과 할 일을 확인하고, 챙겨야 할 비즈니스 정보도 관리한다. 스마트워커(smart worker) 신희숙님의 일상 루틴이다. 노동 혁명이라고 불리는 스마트워크에 안착한 신희숙님은 스마트워크가 양날의 검이지만 필수라고 말한다.

새로운 물결의 기본,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팬데믹으로 일터 문화는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변했다. 새로운 방식의 일하기는 실질적으로 효용이 컸고, 이것은 이 흐름이 한때의 유행이 아님을 증명했다. 스마트워크로 효용을 얻기 위해서는 스마트워크의 핵심 기술인 클라우드, 협업 도구, 화상회의, 원격제어 등을 최적화할 수 있어야 한다. 신희숙님은 구글 드라이브, 잔디, 에버노트 등을 애용하고 있다. 또 툴을 사용해 얻은 정보를 평가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스마트워커가 되는 법

직무 수행을 위해 스마트워크 능력을 갖춰야 한다. 신희숙님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프로세스마다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추었다. 굿잡5060을 통해 습득한 구글 설문지 활용은 동료에게 가르쳐줄 정도였다. 세미나 진행, 수요조사, 설문지, 동영상 편집, 효과적인 블로그 업로드 방법 등 역량을 갖춘 신희숙님은 적재적소에서 해결사 역할을 했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회사에 성공적인 결과를 안겨줄 때 자신이 갖는 성취감은 5060이 일하는 이유이다.

우분트(UBUNTU),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우분트는 아프리카 말로 “당신이 있어 내가 있으니 당신께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이다.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퇴직 이후 입사한 첫 기업에서 신희숙님이 회계 정리를 위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규모가 작았던 기업의 대표는 통장과 영수증 더미를 주었다고 한다. “그 당시 회계의 모든 것을 때려 넣어 시스템을 완성했어요.” 경영 회계를 전공한 신희숙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았다. 6개월에 걸친 작업으로 경영시스템을 조성했다. 신희숙님은 이후 직장생활에서도 한결같이 최선을 다했다. 일할 기회를 얻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했기 때문이다.

친정집 앞 당산나무, 굿잡5060

신희숙님은 퇴직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우울했고 취업이 절실했다. 그때 굿잡5060을 만났고 굿잡5060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

“굿잡5060은 친정집 앞에 선 당산나무 같아요.”

멀리서 꼭지만 봐도 안심이 되는 당산나무처럼 지치고 힘든 인생에서 돌파구였던 굿잡5060은 신희숙님에게 한없이 고마운 존재라고 한다.

일이 꿈을 꾸게 한다

기업이 원하는 포지션에 맞게 후회 없이 일하는 스마트워커 신희숙님은 다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상담심리 박사과정 중에 있다. 박사과정을 끝내고 이후 자신의 이름을 내건 심리상담 센터를 오픈할 것이다. 이제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꿈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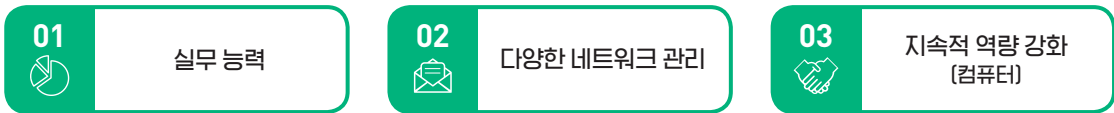
소통을 위한 스마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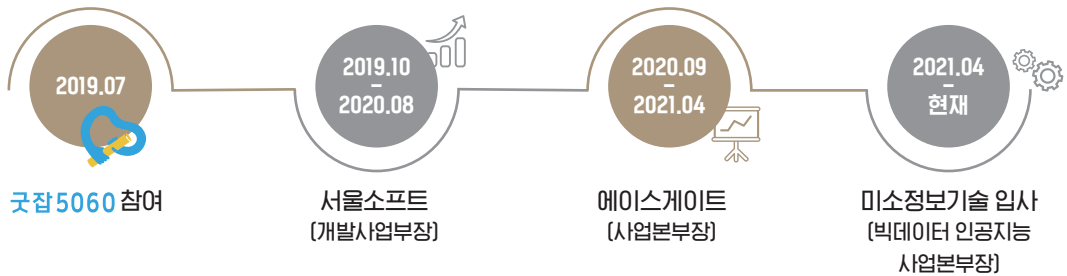
INTERVIEW 11 강태준 » 굿잡5060 18기

㈜미소정보기술 | 사업본부장 » 2021년 4월 입사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재취업 경로



IT 활용 능력은 스마트워크의 기본

강태준님은 우리나라 1세대 IT 전문가이다. 90년대 초반 국내 굴지의 IT 회사에서 시작해 글로벌 IT 회사로 이어진 경력에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ERP, MES, KMS, APS 등 기업을 위한 IT 솔루션을 설계, 구축, 분석, 컨설팅한 내용이 담겨 있다.

스마트워크라는 용어가 나오기 이전부터 기업을 위한 IT 비즈니스 컨설팅 및 IT 인프라를 30여 년간 구축한 전문성으로 현재 미소정보기술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업부 상무로 재직 중이다.

21세기 업무 수행 현장에서 컴퓨터, 모바일 등 IT 기기는 기본 도구다. 엑셀, PPT, 문서 작업은 필수이고, 이메일을 넘어 기업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사내 메신저, 그룹웨어 등 다양한 협업 도구들도 있다.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 능력은 기본 요구 역량입니다.”

중장년 재취업 성공의 기본도 스마트워크에서 시작된다. 강태준님의 PC 화면에는 약 50여 명의 사업부 전체 인원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언제 일을 완료하는지, 향후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지 등 각 조직원 업무 진행 상황이 엑셀로 정리되어 있다. 개별로 보고 받은 내용을 자신이 즉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엑셀 정리표이다. 스마트워크는 말 그대로 IT 도구를 잘 사용해 ‘스마트하게 일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스마트 소통은 중장년 경험을 싣고

강태준님은 ‘말로만 일’하거나 ‘내 방식이 옳다’를 고집하는 중장년을 경계한다. 강태준님이 겪어본 ‘말로만 일’하거나 ‘내 방식이 옳다’를 고집하는 중장년은 업무 진행의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내용의 실체가 없으니 소통은 일어나지 않고 의미는 걸린다. 기업 입장에서는 핵심 구성원은 빠지고, 모셔야 하는 관리자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중장년 당사자인 강태준님은 실체가 없는 “내 말대로 해”라는 식의 업무는 지양하면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동료에게 업무가이드를 제시한다. 또 젊은 동료와 일하기 위해서 상명하달은 피하고, 함께 일한다는 사고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네가 해오면 내가 봐줄게”가 아니라 업무를 진행하고 완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젊은 동료들이 이해하고 같이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민감한 IT 업종의 특성상 하루가 다르게 최신 기술이 업데이트되는 상황에서 업무 가이드의 적절한 수준은 늘 고민이다. 강태준님은 “저분의 경험을 배우는구나”라는 수준이면 좋다고 전한다. 현재 진행하는 내부 프로젝트는 사내 프로

젝트별 그룹 채팅을 더욱 효율적인 소통과 보고체계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IT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또 고객사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해 분야별 특화 AI 서비스를 구축하는 외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동시다발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해 적재적소 인력 투입 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힘난한 중장년 재취업 여정

강태준님의 재취업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너무 적은 연봉을 제시하거나 역량과 맞지 않은 허드렛일을 하는 경험도 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중장년에 대한 선입견이 깊고 단단한 것을 목격했다. 현재 몸담은 조직도 처음부터 임원으로 합류한 것이 아니고 중장년 리더로 시작했다. 그때 같이 한 중장년 동료들은 모두 퇴사하고 현재 자신만 남았다.

강태준님은 굿잡5060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특히 함께한 동료들은 자신들의 업종이나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었고 그들의 조언은 이후 나아갈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쳤다. 강태준님은 중장년의 전문적 능력이 더욱 가치 있는 일로 연계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가치 있는 일을 모색하는 강태준님의 열정은 끝이 없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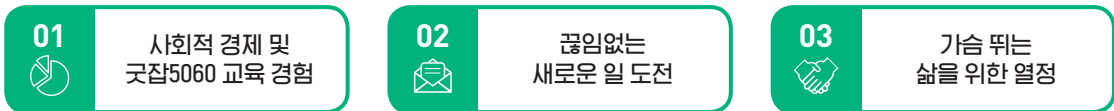
스마트 워크플레이스가 필요하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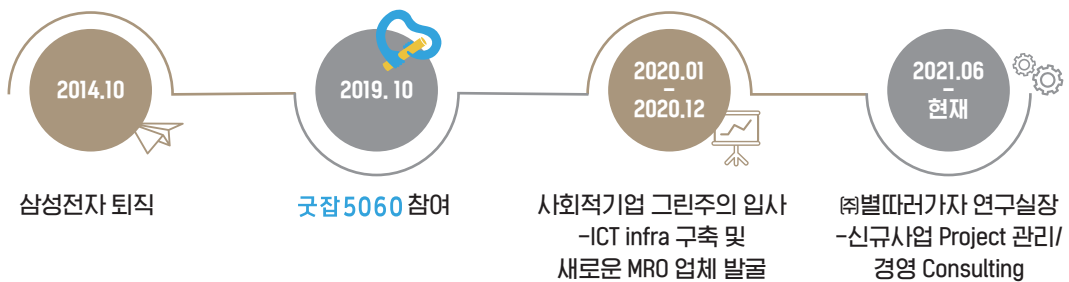
INTERVIEW 12 윤찬호 » 굿잡5060 23기

스타트업 (취별따러가자) 연구실장 » 2021년 6월 입사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재취업 경로



진정한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윤찬호님은 삼성전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30년 넘게 눈부신 활약을 했다. CDMA, IMT-2000, WiBro 등 세계 최초 상용제품 개발, WCDMA, LTE, 기타 무선기술 개발 등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로 새 디바이스 활용을 가능케 한 업적으로 장영실상(신제품 개발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다. 굿잡5060의 취업 추천을 통해 윤찬호님이 처음 취업한 곳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사회적기업 그린주이었다. 기업 대표는 체계적인 업무환경을 갖추려는 바람이 있었고, 이에 윤찬호님은 스마트워크 환경이 구현된 공공사무공간인 '스마트 워크플레이스(smart workplace)'로 답했다. 스마트워킹이 가능한 업무 처리 장비를 갖추고 화상회의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물리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진정한 스마트워킹을 위해 인테리어까지 변화를 주었어요. 같이 일하던 장애인 직원들에게 업무환경이 중요한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기뻐요.”

이후 센서 기반 소형 모빌리티 관제 솔루션 '라이더로그'를 개발한 스타트업 '쥬별따라가자'로 이직했다. 스타트업답게 함께 일하는 직원 대부분은 MZ세대이다. 이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윤찬호님은 더 '스마트'하게 일해야 한다.

저는 이제 주인공이 아닙니다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성장 욕구가 높아 상사의 피드백을 궁금해하는 MZ세대 특성을 잘 아는 윤찬호님에게 MZ세대와의 소통법을 물었다. 윤찬호님은 20대 초반과 60대 초반 당사자들이 큰 탈 없이 1년 넘게 함께 일한 비법은 “마음을 비우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솔직해야 한다.”라고 했다.

“서로 반(反)하는 일이야 많죠. 내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먼저 경청하고 이해한 다음 이룩한 공(功)은 모두 어린 후배들의 공(功)으로 돌리죠. 저는 뒤로 숨고 젊은 직원을 앞세우기가 제 업무입니다.”

윤찬호님은 소통이 어려운 직원을 무작정 자리로 불러 얼굴 맞대고 긴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는 온라인 메신저나 메일을 통해서 명확한 피드백을 전달한다. 메신저로 내용도 점검하고 확인한다. 이는 인큐베이터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심정으로 퇴직을 마추었고,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것을 채우겠다고 수없이 다짐했기 때문이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겠다는 다짐으로 수평적 조직에 잘 적응하고 있다.

가슴 뛰는 삶을 위한 열정

“재취업 성공까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이 있다면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입니다. 굿잡5060의 교육프로그램을 받고 주어진 일정에 따라 열심히 배우고 익히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취업을 지원해주는 멘토를 믿고 떨어져도 계속해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윤찬호님은 새로운 일을 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서 불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으려 항상 노력했고, 기본을 지키고 도전하기를 망설이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면 순조롭게 풀어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재취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다섯 번째 키워드는 ‘셀프브랜딩’입니다.
 굿잡5060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핵심역량이 담긴 맞춤형 이력서입니다.
 새로운 직무로 전직을 준비한다면 ‘자격증’과 ‘일 경험’이 필수이며,
 핵심역량이력서는 역량 위주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자신만의 강점을 부각시켜 셀프브랜딩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굿잡5060 동문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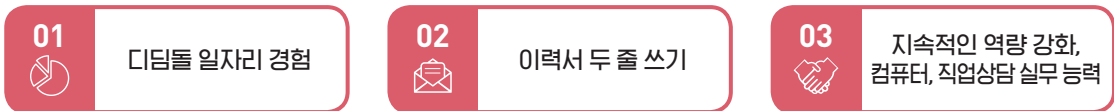
이력서의 새로운 두 줄이 재취업의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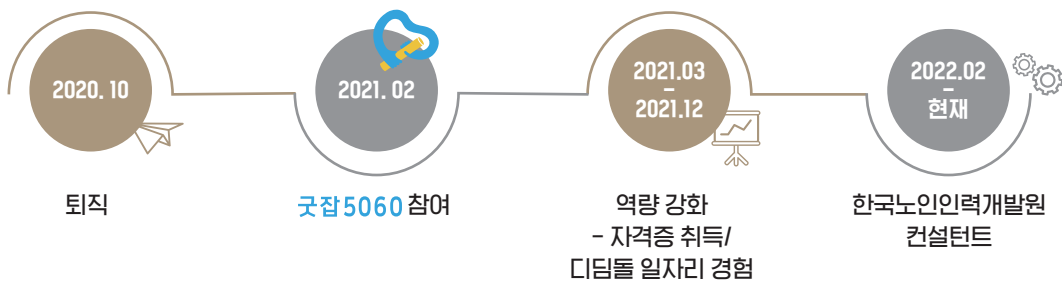
INTERVIEW 13 김상훈 » 굿잡5060 43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컨설턴트 » 2022년 2월 입사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재취업 경로



무보수? 영광입니다

김상훈님은 퇴직 후, 두 달간 재취업의 방향을 고민했다. 처음 얻은 직무는 전직 지원업체 상위 기업의 일자리 조사 작업이었다. 업무를 수행하는 김상훈님을 지켜본 기업은 김상훈님에게 재능기부로 계속 일할 것을 제안했고, 김상훈님은 기꺼이 받아들였다. 무보수의 일자리였으나 기업으로부터 제안받아 오히려 영광이라 생각했다. 주된 일자리에서 눈부신 활약을 했던 김상훈님이었지만 주어진 기회를 돈으로 환산하지 않았고, 일할 기회에 초점을 두었다. 김상훈님은 자신만의 시각으로 '일'을 보았다. 다른 사람의 기준을 의식해 흔들리기보다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다수의 사람이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평균적인 생각을 따르지 않아서 특별한 중장년이 되었다.

현실적으로 중장년 재취업에서는 '일 경험' 기회를 가지는 것도 어렵다. 주된 일자리의 직무가 아닌 변경된 직무에 적합한 사람임을 증명해야 한다. 60세를 넘긴 나이였지만 세상에 나를 증명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다.

디딤돌이 돼 준, 일 경험

2개월간의 재능기부 동안 김상훈님은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 스텝에서 직업상담사로 당당하게 그 기업에 입사했다. 퇴직 후 첫 직장이었다. 중장년 재취업의 어려움을 알기에 퇴직 후 첫 직장은 김상훈님에게 큰 성취감을 안겨 주었다. 그곳에서 상담업무, 일자리 매칭, 행정 업무 등 전직 지원 업무를 경험했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상담사 경력을 이력서에 당당하게 쓰게 됐다. 직업상담 현장에서, 내담자를 컨설팅 테이블에 앉게 하기까지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김상훈님은 내담자와의 소통에 집중해 공감을 이끌었고 높은 성과를 얻었다.

이력서에 두 줄 쓰기

굿잡5060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핵심역량이 담긴 맞춤형 이력서였다. 김상훈님은 자신의 재취업 성공 터너라운드인 '이력서에 두 줄 쓰기'가 핵심이라는 조언에서 출발했다.

이력서에 더 써야 하는 두 줄은 '자격증과 일 경험'이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과 전직 지원 컨설팅 재능기부를 이력서에 추가하고부터 서류전형은 모두 합격이었다. 목표가 생기자 열정은 자연스럽게 뒤따랐고, 성과를 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결과는 5월에 직업상담사 1차 합격, 7월에 높은 난도로 합격률이 낮은 2차 시험까지 한 번에 합격했다.

어려워도 불가능하지 않다

"중장년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몸소 느꼈지만, 그래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상훈님은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시니어 취업 컨설턴트로 재직 중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 최종 합격자는 1명이었고, 그분이 김상훈님이었다.

최종 과정에서 합격의 중요한 요인은 OA 능력 중 한글과 엑셀 능력이었다. 김상훈님은 지금도 엑셀 고급과정을 수강하고 있다.

열매는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시작된다

김상훈님에게 현재 시점에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고, 아내에게 당당한 남편, 자녀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끝까지 버팀목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었 보였다. 그래서 중장년의 재취업은 業 & UP이다. "굿잡은 봄날의 새싹입니다."

김상훈님은 봄날의 새싹이라 표현했다. 겨울을 견뎌낸 새싹처럼 굿잡5060으로 삶의 활력을 얻었다는 아름다운 표현이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물었다. 쑥스러워하며 자신의 멘토가 남긴 말로 답을 대신했다.

"김상훈님은 조용한 카리스마, 세상을 바꿀 성실함,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을 가지셨습니다."

봄은 가고 다음 계절이 이어지겠지만, 김상훈님에게 봄은 계속된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이력서



INTERVIEW 14 김정훈 » 굿잡5060 36기

사회적기업 사계절공정여행 | 마케팅 전문인력 » 2021년 12월 입사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01



일자리와 일 경험 기회
꾸준히 찾기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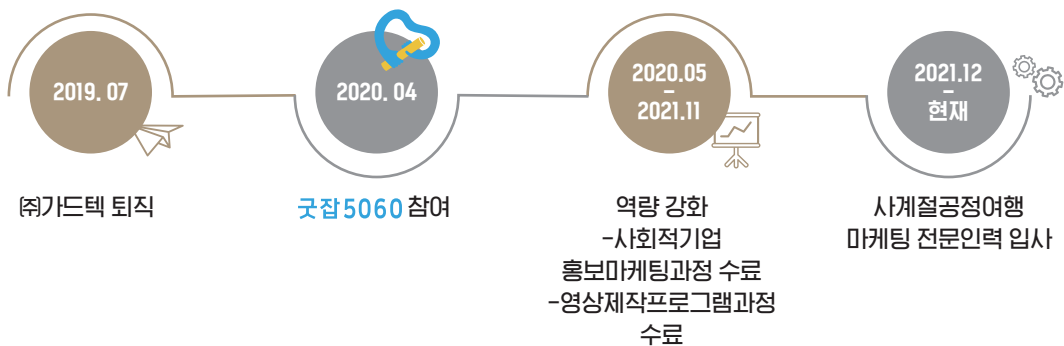
자신감 갖기

03



지속적인 역량 강화
노력하기

재취업 경로



첫 번째 썼던 이력서보다 열 번째 쓴 이력서가

더 깔끔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퇴직과 함께 찾아온 퇴직증후군

굿잡 36기인 김정훈님은 출입 보안 솔루션 회사에서 영업관리와 마케팅 팀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했다. 인생 후반기 준비를 위해 2020년 4월 굿잡5060에 참여해 다양한 교육을 경험하고, 굿잡5060 취업 추천을 통해 2021년 12월부터 사회적기업 '세계 절공정여행'에서 마케팅 전문인력으로 재직 중이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를 안 간다는 사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엔 무조건 산에 가고, 오후에 일과를 시작하는 패턴을 6개월 이상 했습니다.”

퇴직을 경험한 중장년 다수가 김정훈님이 느꼈던 막막하고 불안한 감정을 동반한 '퇴직증후군'을 경험한다. 전문가들은 퇴직자들이 의기소침, 불안감, 초조함, 좌절, 패배감 등을 이야기하기까지 짧으면 1년, 길게는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런 상태의 김정훈님을 다시 밖으로 이끈 것이 굿잡5060 프로그램이었다. 굿잡5060 과정에서 프로젝트 경험을 하면서 불안을 떨쳐내고, 점점 자신감을 회복했다.

100개의 이력서 그리고

1년간의 재취업 활동 기간에 쓴 이력서는 셀 수도 없다. 남이 쓴 이력서를 평가하고 선택하던 입장에서, 선택받는 이력서를 쓰는 작업은 녹록하지 않았다. 굿잡5060에서 새로운 이력서 쓰는 법을 학습하고 이전과는 다른 이력서를 쓸 수 있었다. 과거에 작성한 이력서는 연차별로 경력을 나열하는 식이었지만, 현재 트렌드인 '핵심역량이력서'는 역량 위주로 구체적이면서 간결하게 정리하는 방식이었다. 몇십 년간의 직무 경험을 핵심역량이 드러나게 간결화하는 것을 고민했다. “첫 번째 썼던 이력서보다 열 번째 쓴 이력서가 더 깔끔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김정훈님의 이력서를 쓰는 최고의 방식은 많이 써보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셀프브랜딩

오프라인 마케팅 전문가로 퇴직한 김정훈님은 현재 대세인 온라인 마케팅 학습의 필요성을 느꼈다. 수년간 마케팅 전문가로 활약한 업(業)의 본질을 살리면서, 온라인 마케팅의 생태와 기술을 습득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했다. 이후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고 교육으로 얻은 인사이트를 이력서에 고스란히 담았다.

온라인 마케팅에 걸맞게 결과물을 시각화하는 포트폴리오에 공을 들였다. 한 가지 더 공들인 것은 수상 이력을 쌓는 것이었다. 2년 전부터 지자체의 홍보 영상 공모전에 다수 참여했고 그 결과 성동구청, 시흥구청 등의 홍보 영상 공모전에 당선되었다. 공모전 수상이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셀프브랜딩이 되었다.

새로운 여정을 위해

김정훈님이 새롭게 선택한 경력 여정은 온라인 퍼포먼스 마케팅 분야이다. 회사에서 영상 콘텐츠와 최신 트렌드에 맞는 쇼트 영상 업로드에 주력하며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영상 제작 관리, SNS 채널 관리, 카페, 블로그 등 전체 온라인 채널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중장년은 인생 후반을 설계하면서 경제활동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다만 다양한 길을 알고 있는 중장년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느냐'를 고민한다.

김정훈님은 자신이 오랫동안 해온 오프라인 마케팅이 아닌, 새로운 흐름의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 도전 중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자신의 흐름을 찾으려는 탐색과 고민의 결과이다. 새로운 도전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김정훈님을 응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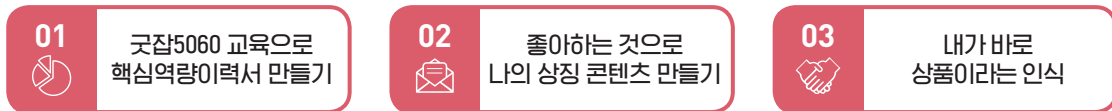
‘부캐’는 ‘가치’로 진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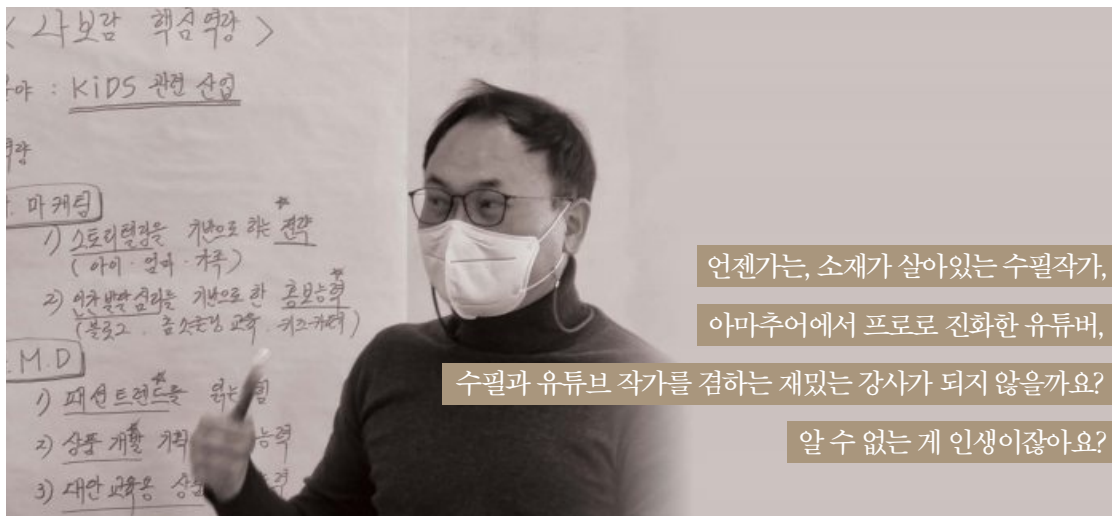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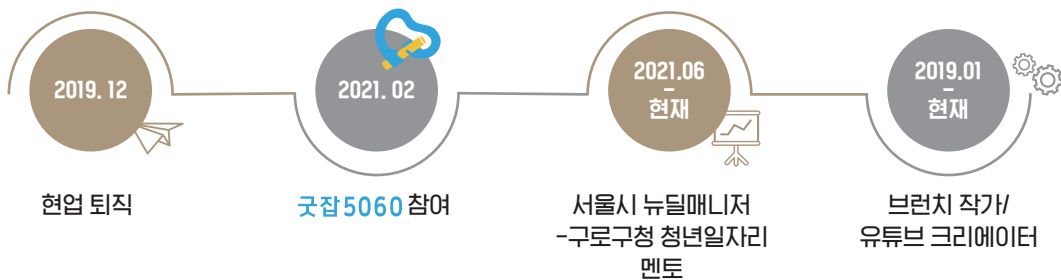
INTERVIEW 15 **한덕환** » 굿잡5060 41기

서울시 뉴딜매니저 | 청년 일자리 멘토 » 2021년 6월 입사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재취업 경로



인생 2막은 좋아하는 것만 하자

한덕환님은 30년 전 '잘하는 것'을 선택해 오랫동안 직업을 이어왔고, 인생 2막을 맞은 지금 '좋아하는 것'으로 방향키를 잡았다.

“아빠, 글 한 번 써보시면 어때요?” 한덕환님이 ‘이제는 좋아하는 일만 하자’를 선언하고 시작한 글쓰기는 딸들의 권유 덕분이었다. 18년 동안 아침 등굣길에서 나는 아빠와의 대화로 고민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딸들은 또래 친구들에게도 아빠의 글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인생 2막의 첫 단추는 ‘글쓰기’로 끼웠다. 좋은 글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싶어 브런치(포털 다음카카오의 작가로 등록된 이들의 온라인 글방)로 작가가 되어 수십 편의 수필을 올렸다. 그런데 그즈음 글 소재의 고갈을 만났고, 고민 끝에 글감을 찾아서 ‘청년들을 만나 대화하는 직업’에 좌표를 찍고 익숙했던 비즈니스 세계와의 결별을 마음 먹었다.

하지만 청년 대상의 직업상담을 하는 회사에 수십 차례 지원했지만, 면접 기회는 딱 두 번 주어졌고 그마저 불합격했다. 준비 없이 덩빈 무모한 재취업 도전이 100% 실패로 끝날 무렵, 운 좋게 굿잡5060을 만났다. 굿잡5060에서 ‘핵심역량’을 재구축하는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더 무모하게, 더 두껍게

굿잡5060 교육 후 받은 실전 레슨의 성적표는 한 달간 여섯 번의 면접 기회와 다섯 번 실패 후 여섯 번째 최종 합격으로 돌아왔다. 5전 6기의 재취업 합격이었다. 합격의 일등 공신은 새로 배워 만들고 다듬은 핵심역량 이력서였다. 한덕환님은 굿잡5060 핵심역량 이력서 교육에서 자기 경력을 새로운 직무에 맞게, 연대기적 나열이 아닌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법을 학습했다. 지원 직무와 연관이 있는 핵심역량을 재구성해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것이 채택되는 이력서의 키포인트였다. 실전 같은 실습으로 완성된 이력서는 입사지원서로 바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한덕환님은 재취업 모색에서 화려했던 과거의 나와 확실히 결

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까지?’란 질문에서 벗어나야 재취업의 준비 자세가 된 것이다. 또 재취업시장에서 ‘나’ 자신이 상품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년 재취업에서 중요하지만 놓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무모함’이나 ‘두꺼움’입니다. 좀 더 무모하게 접근하고, 더 두꺼운 얼굴로 다가갈 때 더 큰 기회가 옵니다.”

본개를 뛰어넘는 ‘부캐’로 소통한다

부캐는 온라인 게임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 사용하는 캐릭터가 아닌 또 다른 캐릭터를 뜻한다. 최근 들어 ‘부캐’는 일상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자신의 다양한 자아를 긍정적으로 발산하는 사회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덕환님은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부캐 활동을 유튜브로 넓혔다. 글쓰기를 하면서 만났던 ‘소재 고갈’이 없는 것, 평면적인 글과 달리 입체적인 영상의 매력 등이 한덕환님을 유튜브의 길로 이끌었다.

“나이가 들수록 프리랜서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직이 있어야 일감을 획득할 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가’만큼 현직을 오래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한덕환님은 브런치 작가와 유튜브 크리에이터 두 가지 활동을 지속할 생각이다. 그리고 자신의 활동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진화하길 바란다. 가치 있는 진화의 시작은 공감 가는 조언이고, 진화의 끝은 수필집 출간으로, 브런치 작가에서 ‘진짜 작가’ 되기다. 그는 또 ‘작가 강사’가 되어 강의로 만나는 에피소드들을 글에 담고, 새로운 곳으로 강의를 가면 주변의 의미 있는 곳을 찾아 유튜브 영상에 담고 싶다고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소재가 살아있는 수필작가,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진화한 유튜버, 수필과 유튜브 작가를 겸하는 재밌는 강사가 되지 않을까요?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06

재취업 성공 키워드



재취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여섯 번째 키워드는 '소통'입니다.
굿잡5060에서 사회적기업의 조직문화와 MZ세대와 소통하기를 학습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소통의 기술, 타인을 또 다른 나로 인정하며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는 능력의 업그레이드는 필수입니다.
오래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필수 조건, 세상을 넓히는 소통의 달인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굿잡5060 동문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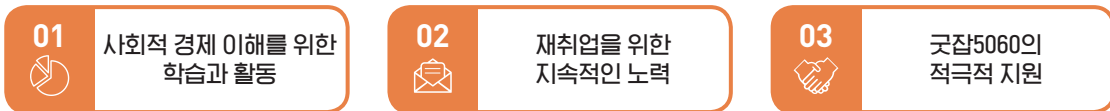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소통의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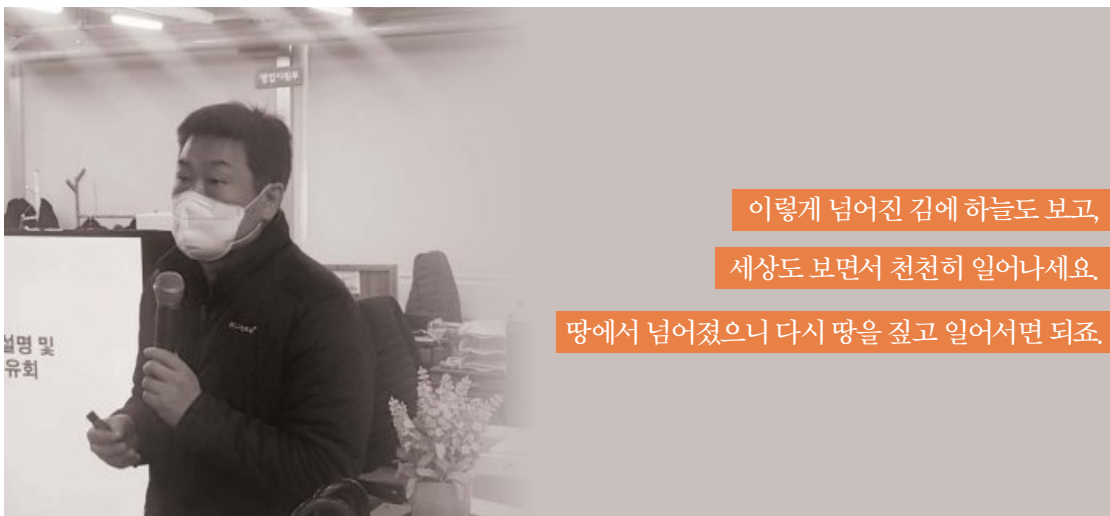
INTERVIEW 16 김해석 » 굿잡5060 6기

사회적기업 그린주의 | 영업마케팅 상무 » 2020년 1월 입사

■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 재취업 경로



이렇게 넘어진 김에 하늘도 보고,
세상도 보면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땅에서 넘어졌으니 다시 땅을 밟고 일어서면 되죠.

소통은 피를 돌게 하는 것

소통을 배우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소통을 알려주는 계발서가 다양하고 일대일 커뮤니케이션 코칭 시장에는 사람들이 몰려든다. 생각해보면 사회생활에서 소통하는 법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시간에 맡겨져 이리저리 치이면서 스스로 터득했다. 대인관계에서 요청하거나 설득해 협력을 끌어내는 상황에서 낭패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소통의 기술’은 더욱 간절해진다. 김해석 님에게 소통의 중요성에 관해 질문했다.

“기업에서 구성원 간에 소통하지 못하면 우리 몸속 혈관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폐해를 느끼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막힌 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소통은 정말 중요합니다. 구성원들에게 조직문화가 잘 흐르게 해야 합니다.”

김해석님은 28년간 대기업에서 영업관리, 사업관리, 조직관리를 했다. 문제를 가진 조직에 파견돼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서 능력을 발휘했다. 기업 최고경영자를 보좌하며 현장경영을 할 당시, 직급에 따라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대표와 직원 간에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목격했다. 어느 조직이든 힘든 점이 존재하는데, 이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견해차를 일으키는 지점에서 상황을 지각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김해석님은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상황 파악을 위해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는 자리는 일부러 찾아다녔다.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구성원과 조직이 함께 성장한다는 공동 목표에 진정성을 갖는 것이다.

“회사 운영이 어려운 시점이라면 대표는 구성원에게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구성원의 가족에게도 이해시켜야 합

니다. 문제 지점에서 이익과 성장을 구성원이 선택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소통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장할 수 있다는 장기적 비전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조직에서 소통으로 직무를 훌륭하게 완수한 김해석 님도 재취업은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았다. 지루한 재취업 과정에서 아내의 격려는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넘어진 김에 하늘도 보고, 세상도 보면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땅에서 넘어졌으니 다시 땅을 짚고 일어서면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김해석 님의 아내는 첫아이 출산 직전에 퇴사해 20년 이상을 경력 단절로 지냈지만, 남편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신이 재취업에 도전했고 성공했다. 아내 덕분에 김해석님은 좀 더 여유를 갖고 공부하면서 취업 준비를 했다.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김해석 님 부부의 이심전심은 큰 울림을 남겼다.

같이 살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쓰는 일은 정신적으로 품이 많이 드는 일이다. 소통은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해법을 찾아가는 길이다. 끝으로 공유하고 싶은 소통의 비법을 물어보니 27살 청년 시절 경험을 들려주셨다. 책으로 깊은 감명을 받은 스님을 뵈기 위해 낯선 도시에 있는 절을 찾았지만 어두워진 늦은 시간이라 스님을 뵈지 못했다. 법당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녘 귀한 만남으로 스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자신에게 답이 있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누구나 큰 열쇠고리가 있고, 그 고리에 수많은 열쇠가 걸려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내 안에 답이 있는 거죠. 해결의 주체인 자신이 주도성을 가져야 열쇠가 보입니다.”





타인은 또 다른 나



INTERVIEW 17 **홍찬석** » 굿잡5060 26기

사회적기업 오피스배재 | 마케팅 전략팀 » 2022년 4월 입사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01



전문적이고
다양한 실무 능력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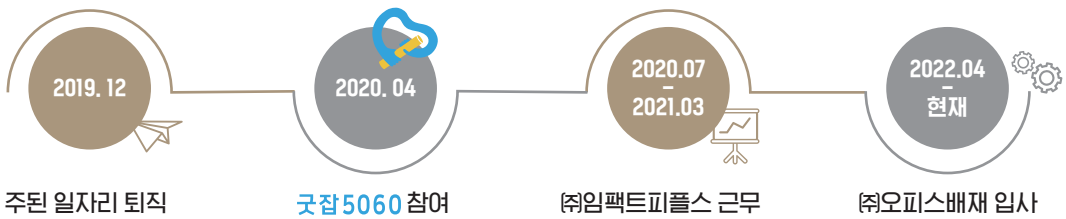
적극적인 소통 능력

03



자기 역량 홍보

재취업 경로



타인은 또 다른 나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상대방도 불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먼저 생각해보는 것은 좋은 소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답할 수 없는 질문, 당신의 핵심역량은 무엇인가?

홍찬석님은 ㈜임팩트피플스를 거쳐 현재 ㈜오피스배재 마케팅 전략팀에서 일하고 있다. 2004년부터 다니던 회사가 경영 악화를 겪으면서 동료들이 하나둘 퇴사를 하였고, 홍찬석님도 퇴사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2020년 4월 우연히 ‘굿잡5060’을 만나게 되었다.

홍찬석님은 ‘굿잡5060’ 면접에서 ‘당신의 핵심역량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 회계, 인사, 총무, 영업지원, 무역 등 다양한 업무를 해냈는데 제대로 내세울 만한 핵심역량이 떠오르지 않았다. 답할 수 없는 질문 앞에서 그동안 자신이 자각 없이 시간을 허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굿잡5060’ 교육을 수료 후 취업 추천을 통해 ㈜임팩트피플스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동시에 즉시 핵심역량 구비를 위해 직업상담사 2급 자격 취득을 준비해 2차에 걸친 시험을 통과하고, 이어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중장년 사회적경제 입문 프로젝트를 수료하는 등 재도약을 준비하였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상대방도 불편하다

홍찬석님은 생활에서도 일에서도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재취업한 첫 번째 회사에서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세대의 직원과 함께 일하면서 소통 능력은 더욱 업그레이드됐다. 상대방 입장에서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면 소통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재 재직 중인 오피스배재에서는 아직 초반 이전 직무와는 조금 다른 CRM 업무와 영업 관리 업무를 하면서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와 본인이 잘하는 업무 사이에서 갈등하는 일도 생겼고, 고객 만족을 위해 어떻게 응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소통은 타이밍이 중요

이 과정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타인이 원할 때까지 기다리고, 요청할 때 진심을 담아 전달하는 것도 좋은 소통임을 깨달았다. 이런 소통 방식은 함께 일하는 사람 사이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서로의 노하우를 인정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타인은 또 다른 나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상대방도 불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먼저 생각해보는



것은 좋은 소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홍찬석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다가가기를 권한다. 빨리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소통의 기본 원칙이자 좋은 소통 방법이다. 일상생활뿐 아니라 업무 처리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긍정에너지라는 보물

“계란은 남이 깨면 프라이가 되지만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잖아요. 관계에서든 일에서든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죠. 될 거라고 믿고 용기를 내서 일단 도전해보는 겁니다.”

홍찬석님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간관계든 일이든 먼저 다가간다. 새로운 세상을 자꾸 만나다 보면 자신의 세상이 넓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현재 하는 일이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긍정에너지가 아름다운 소통의 원동력이자 서로를 밝혀주는 불빛이라 믿는 홍찬석님은 사무실에 활기찬 에너지를 불어넣는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으로 동료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란다. 자신의 긍정에너지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보물이 되기를 바란다는 홍찬석님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히 번졌다.



일은 자존감이다



INTERVIEW 18 권신 » 굿잡5060 25기

교육콘텐츠 | 전문강사 » 2021년 5월 입사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01



재취업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02



스마트워크와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하기

03



재능기부로 경력 쌓고 채용
기관에 일자리 역 제안하기

재취업 경로



취업은 다른 사람이나 재취업 기관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역량을 키우고 역량 리스트를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보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실무 경력을 만들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취업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자

권신님은 1999년에 퇴사했다. 퇴사 이유는 ‘출산’이었다.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여성이 권고사직을 당하는 것은 당시 관행이었고 이후에도 관행은 지속되었다.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그 때부터 2018년 초순까지 오직 전업주부로 살았다. 그 사이 몇 번쯤 다시 일을 시작할까 고민도 했지만, 그때마다 어영부영 지나가고 말았다.

아이들이 성인이 된 20여 년 동안 육아와 가사에 전념해온 권신님은 문득 자신만 제자리걸음 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무엇보다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막막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먼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물색하던 중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게임지도자 양성과정’에 마음이 갔다. 그것이 자신에게 맞을지, 할 수 있는 공부일지 확신이 서지 않아 며칠을 고민했다. 결론은 ‘일단 시작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수강 신청을 했다. 일단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일을 하는 첫걸음이었다.

소통은 세상을 넓히는 일

권신님은 2018년부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는 등 재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이후에도 마을 교육콘텐츠 개발 등에 참여하면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공부를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재취업을 열망하고 준비하는 많은 중장년을 만났다. 고민이 같은 사람을 아는 것만으로 힘이 났고 곁에 사람이 있으면 달라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었다. 경쟁으로 서로를 갉아먹기보다 같이 살기 위해 곁을 내주는 넓은 품은 중장년이기에 가능하다. 교육생으로, 강사로 만난 중장년들은 서로를 응원하고 혼자일 때보다 커뮤니티를 통해 더 유익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행했다. 소통은 나와 나 너머의 세상을 넓혔다.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준 ‘굿잡5060’

권신님은 2020년 2월 ‘굿잡5060’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그러나 코로나로 ‘굿잡5060’ 강의가 휴강되었고 2개월여 만에 온라인으로 강의가 재개되었다. 앞으로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변경될 가능성을 예측했고 때맞춰 ‘굿잡5060’의 온라인 강의도 시행됐다. 화상 미팅 프로그램과 협업툴 사용이 중요했기 때문에 스마트워크는 필수 역량이 되었고, ‘굿잡5060’ 교육으로 다양한 툴 사용과 디지털에 익숙해졌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이해와 취업 지원, 이력서 코칭 등의 도움도 받았다. 권신님은 교육을 계기로 주력하던 아동 교육콘텐츠 외에도 다양한 대상을 위한 강의를 기획했다.

현재 ‘휴대폰으로 디지털 세상 누리기’를 강의한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휴대폰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인 만큼 수강인원이 많고 대기자까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수강생 중에 강의에서 배운 것을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분이 있다. 권신님은 그런 수강생들에게 교재와 교안을 모두 무료로 나눈다.

역량을 키우고 리스트를 만들자

권신님은 재취업으로 누구의 엄마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뿌듯하다. 표정이나 행동에 자신감이 드러나고 꿈도 생겼다. 가장 큰 변화는 일의 목적이 금전에서 보람과 가치, 사람으로 옮겨간 것이다. 권신님은 자존감을 높이는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 중장년에게 당부했다.

“취업은 다른 사람이나 재취업 기관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역량을 키우고 역량 리스트를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보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실무 경력을 만들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취업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07

재취업 성공 키워드



재취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일곱 번째 키워드는 '끈기'입니다.
굿잡5060에서 동기들끼리 지지하지 않도록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재취업의 여정이 예상외로 길어질 수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도 자유롭게 못한 퇴직의 길에서 1,453번의 도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끈질긴 도전,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끈기
그 주인공만이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한 굿잡5060 동문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01



‘상상우리’와의 만남, ‘굿잡5060’

02



이력서 빈칸을
'전문성'으로 채우기

03



사회초년생처럼
'경력보다 능력'

A horizontal timeline with four circular nodes connected by a line. The first node is brown and contains the date '2018.01' with a paper airplane icon. The second node is grey and contains the dates '2020.05 - 2020.12' with a bar chart icon. The third node is brown and contains the date '2021.02' with a blue ribbon icon. The fourth node is grey and contains the date '2021.11 - 현재' with a gear icon.

연도	주요 경력
2018.01	금융회사 희망퇴직
2020.05 - 2020.12	전산회계1급, 전산세무2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2021.02	굿잡 5060 참여
2021.11 -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 평가기획팀 입사

과거에 경험한 시스템이 갖춰진 조직과 규모를 잊으세요.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정의하는 '실패', 1,453번의 도전

이찬우님이 작성한 이력서 수(數)이며 취업 도전 횟수인 1,453을 처음 접했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정말 대단하시다. 분명 평범한 분은 아니다.'와 '퇴직 후 중장년이 핏(卼)이 맞는 조직을 만나기까지 힘들다고는 하지만 너무 긴 시간이 아닌가?'

이찬우님을 뵈고 두 가지 생각 중 한 가지는 정확히 맞았고, 다른 한 가지는 설명이 필요했다. 1,453번의 도전 기간은 '선택받는다' 데 걸린 시간이 아니라 '선택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었다. 이찬우님은 1,453번 이력서를 제출하는 동안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면접까지 이어져 최종 합격도 했다. 하지만 자신의 관심과 목표가 분명했기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만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렸다. 동기가 부여된 명확한 관심과 목표 의식은 1,453번의 이력서를 쓰고도 이찬우님을 지치지 않게 했다. 열정이 탑재된 끈기는 스스로 희망을 학습시켰고 희망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으로 고스란히 이찬우님에게 스며들었다.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퇴직

이찬우님은 임금 상한(salary peak) 5년을 앞두고 희망퇴직을 선택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과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쉼'을 주고 싶었다. 그렇게 휴식기를 갖고 일주일이 되자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인생 2모작을 위해 도전하고 무수한 선택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감과 두려움이 몰려왔다. 쉼과 재취업 준비를 병행해야만 했다.

재취업 도전 과정에서 불합격으로 의기소침할 때도 있었다. 그런 날들로 점점 지치기 시작할 즈음 굿잡5060을 통해 자신이 써온 기존 이력서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력서를 학습하고 다시 쓰는 동안 이찬우님은 자신의 삶이 재정비되는 것을 목격했다. 시행착오만큼 축적된 자료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면서 합격률도 높아졌다.

또 하나, 굿잡5060에서 ㈜상상우리 신철호 대표의 강의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었다.

"중장년은 오랜 경력에 대한 자부심으로 퇴직 후 입사 기업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지속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제 중장년에게는 경력보다 능력이 더 중요하다. 과거에 경험한 시스템이 갖춰진 조직과 규모에서 깨어나야 한다.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원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

무엇인가를 포기하라고 전하는 말이 오히려 이찬우님에게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다. 더불어 사회적기업을 통해 사회에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 학습하며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로 사회적기업과 동반성장 하는 꿈을 갖게 되었다. 인생 2모작의 방향이 잡히기 시작했고 이제는 선택받기 위한 도전이 아닌 선택하는 도전으로 선회할 수 있었다.

열정과 결합한 끈기

이찬우님이 현재 직장에서 MZ세대와 소통을 위해 노력한 3개월의 면면에서 또 다른 끈기를 엿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일의 성과를 위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통한 조화가 필요했고 세상에 대한 그들의 시각도 알 필요가 있었다. 이찬우님은 회의 때 필요한 음료마저도 먼저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꾸준한 희생, 양보로 젊은 동료들의 마음을 열었다. 이찬우님은 훌륭한 팀이 훌륭한 선수를 만든다고 믿었고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했다. 재취업의 성공만큼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변화를 주도하는 카멜레온

"좋은 결과를 위해 과거 경력보다 새로운 능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을 파악하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자격증이란 무엇이든 반드시 눈에 보이는 실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변의 온도나 환경에 따라 피부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변화에 적응하면 재취업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찬우님은 재취업 성공 후에도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2년 이상 재직할 수 없는 계약직인 지금의 일을 징검다리 삼아 '정규직'에 도전할 것이다. 이찬우님은 끈질기게 기운을 낼 것이다. 계속 도전하며 좌절하지 않는 모습을 응원하는 네 명의 아이와 누구보다 '당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기업이 반드시 나올 거야'라고 믿어주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실패란 있기 마련이고 그 대처 방식이 중요할 뿐이다."

-제이미 다미엔, JP 모건 체이스 최고경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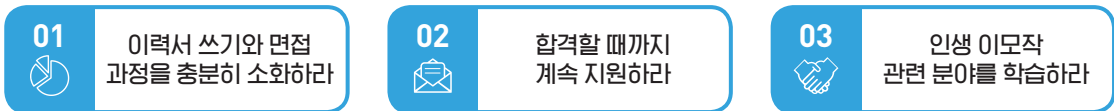
‘위기’는 기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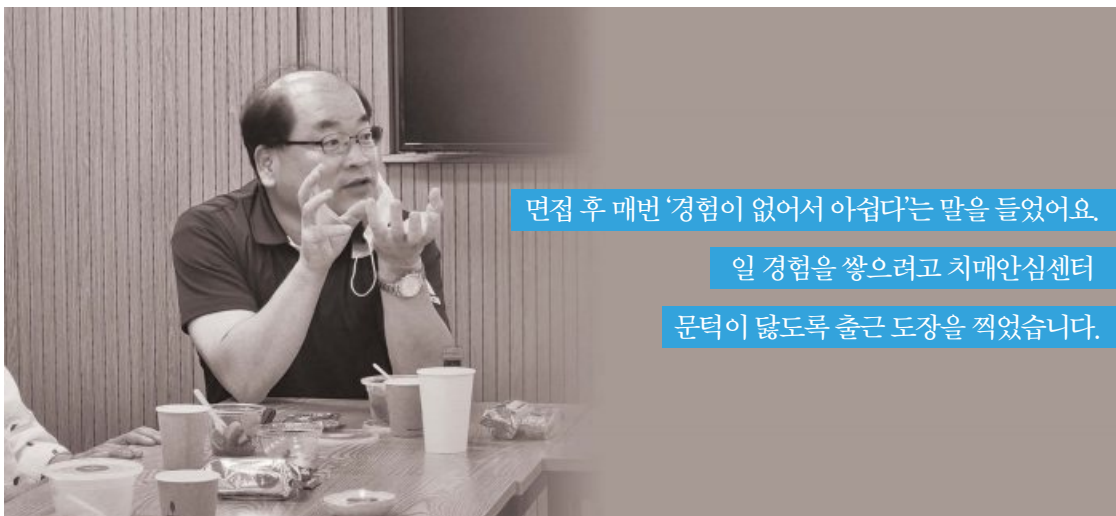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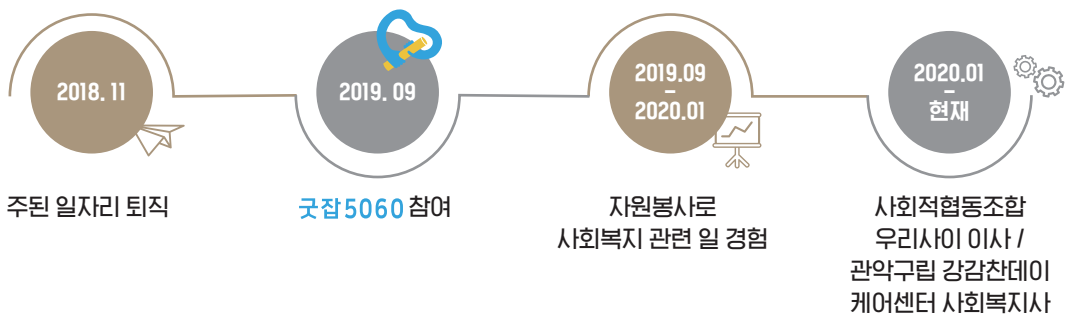
INTERVIEW 20 하삼일 » 굿잡5060 21기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 | 사회복지사 » 2020년 1월 입사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재취업 경로



어머니의 치매로 이끌린 삶의 방향

‘위기(危機)’는 ‘위험(危險)’과 ‘기회(機會)’의 글자를 하나씩 빌려 쓰고 있다. 위기는 통용하는 것처럼 부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어려움과 절망의 시기에도 어떤 사람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 새로운 길을 열고 기회를 맞는다. 하삼일 님은 끈덕진 실행력과 회복력으로 ‘위기가 곧 기회’인 순간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2016년 어머니를 찾아온 갑작스러운 치매는 빠른 진행 속도로 어머니를 변하게 했다. 2년간 형제들이 함께 간병했지만 결국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다. 요양원 방문이 잦아지며 치매로 힘들게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과 그 가족들이 눈에 들어왔다. 요양원 종사자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치매 예방과 관련한 사회 복지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나아가 제2 인생의 방향도 정했다.

마음의 진자(振子)를 꼭 붙잡고

방향을 정한 이후, 하삼일 님은 사회복지사, 노인심리상담사, 요양보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실전 경험도 두텁게 쌓았다. 각종 치매와 돌봄 관련 굵직한 교육과 자원봉사 활동 등을 착실하게, 가능한 많이 이수했다. 약 110여 시간의 치매전문자원봉사단 활동과 어르신 치매 예방과 돌봄, 어르신들과 소통,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실무 등을 학습했다.

전문 지식을 섭렵한 하삼일 님의 재취업 성공에는 ‘굿잡5060’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1:1 면접 실습이 큰 힘이 되었다.

“한 곳만 파고 계시니 재취업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격할 때까지 계속 지원하세요.”

여러 곳의 면접 인터뷰 제안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한달음에 달려갔다. 면접 후엔 매번 ‘경험이 없어서 아쉽다’라는 답이 돌아

왔다. 하삼일 님은 경험 부족을 보강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더 집중했다. 간접 경험을 쌓으려고 치매안심센터 문턱이 닳도록 출근 도장을 찍었다. 간절히 원하는 사회복지 분야 재취업을 위해 학습과 경험으로 애를 썼지만,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 ‘중도 포기’로 기우는 마음의 진자(振子)를 꼭 붙잡아야 했다.

“유일한 대안은 저 자신을 바쁘게 만들어, 어렵다는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2019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숨 가쁘게 살아온 해입니다.”

칠순의 ‘치매 예방 교육전문가’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재취업 여정은 굿잡5060 과정을 이수한 그해 말, 관악구 사회적기업에 입사해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로 완성되었다.

“앞을 보며 점과 점을 연결할 수는 없다. 뒤돌아볼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 당신은 미래에 언젠가 점들이 연결될 거라고 믿어야 한다. 무언가를 믿어야 한다. 당신의 직감, 운명, 삶, 카르마, 뭐든지. 이 접근법은 한 번도 나를 실망하게 한 적이 없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뤄내게 해주었다.”

- 스티브 잡스, 애플 CEO

하삼일 님은 퇴직 후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듯 외로움과 싸우면서 신념을 꺾지 않고, 무수한 점들을 이었다. 이제는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의 이사이자 관악구립 강감찬데이케어센터에서 실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다시 목표를 세웠다.

“칠순의 나이가 되면 보유한 자격증과 학위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 데에 힘이 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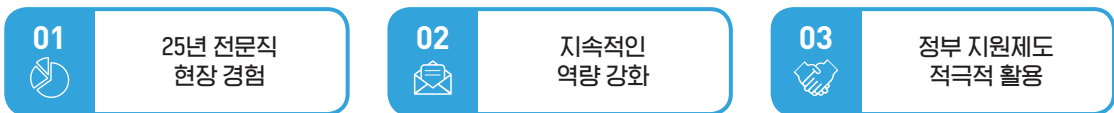
한 길을 계속 걷는 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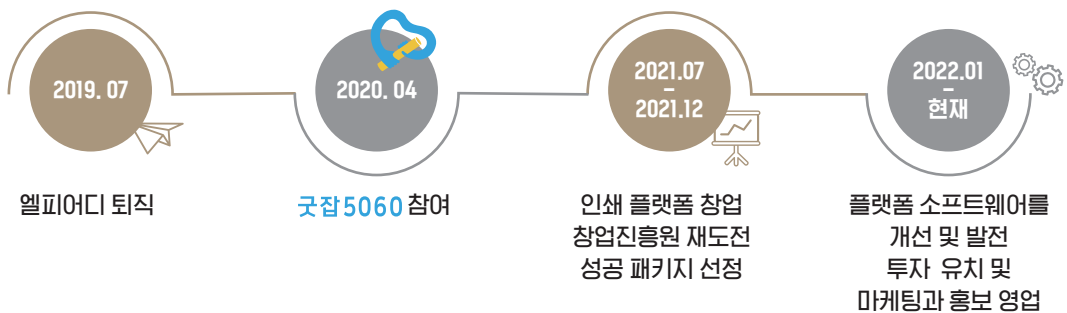
INTERVIEW 21 이준규 » 굿잡5060 25기

인쇄플랫폼 | 창업대표 » 2021년 7월 창업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재취업 경로



인쇄 공장을 소유하지 않아도 고퀄리티의 인쇄를
많은 사람이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퇴직과 굿잡5060

이준규님은 40여년간 총무로에서 인쇄업을 영위했다. 2019년 주된 직장을 퇴직하고, 2021년 7월부터 인쇄소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인쇄플랫폼 사업 “Net Print”를 준비해 왔다. 2022년에는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개선 발전시키고, 투자 유치 활동 및 마케팅, 홍보 활동에 전념 중이다.

이준규님은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외부와 단절된 작은 섬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이후, 이력서 작성, 제출 등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높기만 한 사회의 벽, 시니어 재취업이 어려운 사회적 구조를 깨닫고 “사회적으로 내 직업은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60세 중반의 나이에 또다시 사회 활동의 불씨를 일으킨 계기는 2020년 4월 굿잡5060 참여로 마련되었다. 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이 생겼고, 제2의 인생 방향 모색을 위한 새로운 활동을 받아들이며 적극적인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었다. 재취업에서 창업으로 경로를 변경한 시기도 이때이다.



끈기의 창업 준비

이준규님은 40여년간 인쇄업을 이어오면서 인쇄업의 발전과정을 근거리에서 지켜보았다. 그 결과, 인쇄업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기존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변화시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사업의 핵심 아이디어를 얻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술을 사용해 아날로그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으로 고객 경험, 공급망, 이해관계자 관리, 전반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향상할 수 있다.

사업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여러 인쇄인의 의견을 듣고, 방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고민 끝에 사업 아이템은 “인쇄를 원하는 사람이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인쇄플랫폼”을 만드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후 창업을 위한 자금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창업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국가 창업 지원 정책 중, 창업진흥원의 재도전 성공패키지에 도전했고 선정되어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1여년간 끈기로 이루어 낸 성과였다.

끝나지 않은 열정과 끈기

창업을 위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정부 창업 지원 과제로 선정된 것은 해당 창업 아이템의 사업성, 시장성, 사회적 가치를 공

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정부 지원 과제 선정은 이준규님께 큰 의미였다. 주된 직장 퇴직 이후 느꼈던 사회적인 벽, 외부와의 단절 등 좌절 속에서 살았던 상황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인정받은 과정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전문가들과 함께 인쇄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인쇄 현장에서 쌓아온 자신의 역량과 경험이 반영된 결과물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젊었을 때의 열정을 다시 느꼈다. 이렇게 만든 기반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기술 플랫폼으로 인쇄 기술 관련 2건의 특허도 준비 중이다.

인쇄 공장을 소유하지 않아도 고퀄리티의 인쇄를 많은 사람이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묵묵히 나아가고 있다.





재취업에 성공한 굿잡5060 동문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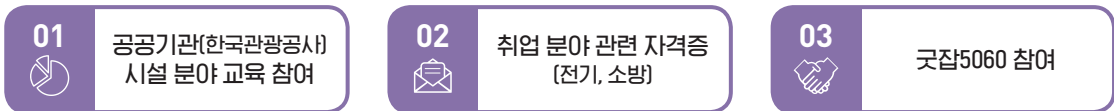
수용하면 '변화'가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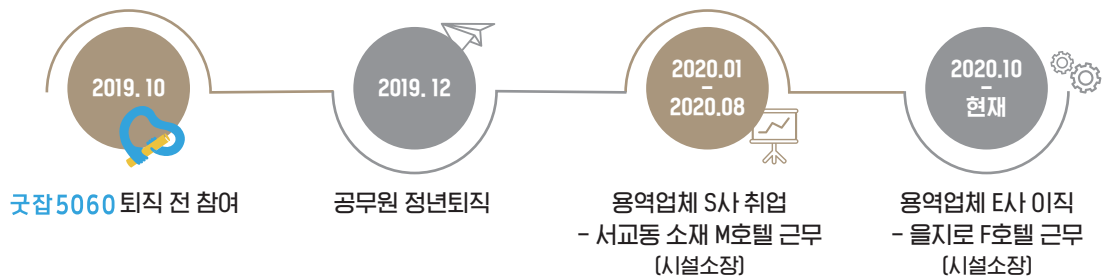
INTERVIEW 22 박성일 » 굿잡5060 24기

특급호텔시설관리소장 » 2020년 10월 입사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재취업 경로



관리직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어제를 잊는 것에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중장년 동료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일만 하다 죽을래?

공무원으로 퇴직을 앞둔 박성일 님이 재취업에 도전할 즈음, 친구들은 “일만 하다 죽을래?”라고 말했다. 교육받는 것으로 바빠 모임에서 자주 볼 수 없는 박성일 님을 향한 애정 어린 투정이 었다. 박성일 님은 재직 당시 대변인실, 기술공보관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업과학관에서 직무를 수행했다. 공무원이 되기 전인 학생 시절 전기, 소방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고, 이것이 퇴직 후 제2 인생 방향 모색에 큰 동력으로 작용했다. 재직 당시 인사혁신처가 제공하는 전직 교육이 있었지만 일하는 것에 몰두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굿잡5060과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시설 분야 교육 두 곳에 모두 신청했다. 다행히 교육시간이 겹치지 않아 본격적인 재취업 탐색에 나섰다. 전주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왔고, 오전에는 굿잡5060 교육을 오후에는 한국관광공사 시설 분야 교육에 참여하면서도 힘든 줄 모르셨다고 한다.

수용하면 ‘변화’가 온다

‘변화수용’은 중장년에게 ‘내려놓기, 단념’의 다른 말이다. 일본 작가 소노 아야코는 잘 나이 드는 비결 중 하나로 ‘단념’을 꼽았다. 단념을 ‘인생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예술이고, 지혜로운 어른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했다.

지혜로운 어른이 되는 내려놓기, 단념은 쉽지 않다. 퇴직 후 경제적 단절부터 사회적 관계의 정리에서 오는 외로움, 특히 일을 통한 사회적 인정 소멸 등은 먹구름을 하루 종일 이고 사는 것 같다. 박성일 님도 쉽지 않았다. 굿잡5060 과정은 인생 2막을 시작해야 하는 중장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퇴직 직전 일 년 동안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시간이었다. ‘일하기’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움직였다. 취업에 성공한 지금은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활력을 얻고, 연금만으로 부족한 생활비에 도움을 얻었다.

본질은 일하기

“관리직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어제를 잊는 것에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중장년 동료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박성일 님은 퇴직 후 시설관리 용역업체에 취업했고 서교동의 한 호텔에서 시설소장으로 제2의 인생을 여는 직무를 시작했다. 시설관리 분야 중 호텔의 경우 4성급 이하는 용역업체가 관리하는 노동 유연성이 특징이다. 현재는 을지로의 한 호텔에서 시설소장으로 근무한다. 공직에서 연구, 기획, 홍보 등을 담당했던 박성일 님은 육체적 노동이 중심인 직무를 갖게 됐다.

“몸으로 일하는 건 단순합니다. 그리고 현장업무에 대해 너무 몰라서 잘 적응했습니다. 지금 돌아해보면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죠. 시설관리 직무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박성일 님은 예상할 수 없는 삶에서 자신에게 발생한 ‘퇴직’ 문제를 ‘즐거움’으로 만들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환경은 변했지만 ‘일하는 즐거움’이라는 본질은 그대로 남았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시간을 하나하나 쌓고 기다리면 작지만, 날개를 펴는 나비가 될 수 있다. 하늘을 나는 것은 독수리만이 아니다.

으뜸가는 선(善)은 물과 같다

사람이 자신의 캐파(capacity, 수용 능력)를 기능하는 방법은 직접 움직이는 것밖에 없다. 직접 몸을 움직여 시도해보면 어디까지 발휘할 수 있는지 알게 되고, 계속 시도하면 어느새 확장된 자신의 캐파를 얻는다. 박성일 님은 타고난 캐파가 큰 분이다.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인지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소란스럽지 않게 성취했다. 박성일 님은 노자의 상선약수(上善若水)를 떠오르게 한다.



‘계획된 우연’을 받아들이고 만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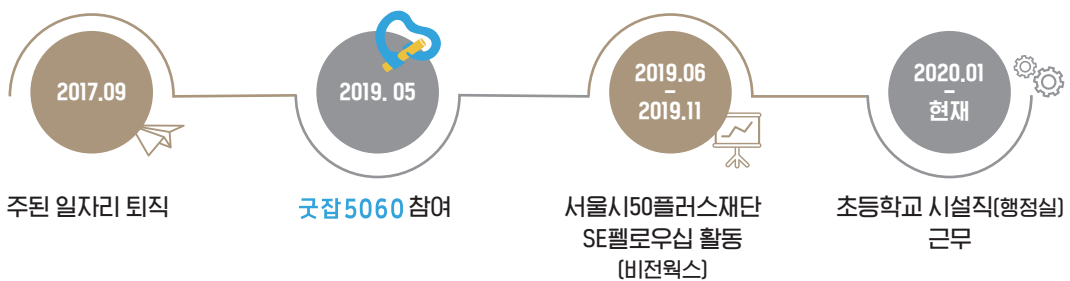
INTERVIEW 23 지호준 » 굿잡5060 15기

초등학교 | 시설직 » 2020년 1월 입사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재취업 경로



막연히 '강사로 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학교에서, 또 이러한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緣) 하나, 굿잡5060

굿잡5060 15기인 지호준님은 어느 가정이나 하나쯤은 있을 법한 제품을 만드는 전자회사에서 20년간 근무했다. 구매, 무역 관련 업무를 했고, 이후 중소기업에서 10년간 관련 경력을 이어나갔다. 2017년부터 주된 업종에서 퇴사 후, 인생 후반을 '막연히 걱정'하면서 "향후 10여 년, 7~80세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省敍)이 많았다.

이후 50+보람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취업진로전문관, SE펠로우업 활동을 지속하며 재취업 탐색을 했다. 현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20년부터 시설직으로 근무한다.

지호준님과 굿잡5060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2018년에 한 친구가 굿잡5060에 지원하고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과정이기에 이 능력 있는 친구가 떨어졌을까 의아했던 기억이 굿잡5060에 관한 첫 기억이다. 굿잡5060 교육에 참여하면서 재취업에 대한 막연한 걱정에서 벗어나 실질적 도움을 받았다. 첫째, '이력서 및 경력기술서 작성 실습'은 재취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둘째, '사회적경제를 다룬 책을 읽고 감상문 쓰기'는 세계관을 넓혀 주었다. 경험한 것에만 의지하던 때와는 다른 시각으로 사회를 보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굿잡5060에 참여했던 동기들과의 네트워크였다. 비슷한 고민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동기들과의 만남은 고단했던 재취업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연(緣) 둘, 새로운 일터

퇴직 후 사람들은 자연을 즐기며, 스트레스가 덜한 일을 하는 여유로운 삶을 꿈꾼다.

지호준님의 학교 시설직 취업은 노후를 즐길 만한 여유가 없고 그를 따져 택한 일자리가 아니었다. 인생 1막의 미련, 아쉬움은 거두고, 사람이 놀면 녹슨다(who rusts, who rests)는 생각(省敍)에 받아들였다.

초급 학교 행정 업무, 전기 소방 관련 업무, 화단 및 미화 관리, 각종 물품 운반, 교장 수리 등 학교 시설직 업무는 평생 해 본 적이 없는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학교 현장 필수 인력의 업무가 더 늘어나 바빠게 보내는 중이다. 소박한 경제적 여유, 오후 4시 30분 퇴근 후 넉넉한 자유시간 그리고 조직구성원이 갖는 소속감 등 재취업으로 얻은 것들이 만족스럽다.

영화 <인턴>에서 시니어 인턴 로버트 드니로의 대사가 마음에 와닿았다.

"It makes me feel part of something."

(뭔가에 속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I just know there's a hole in my life and I need to fill it."

(그저 내 인생에 어딘가 빈구석이 있고 그걸 채우고 싶을 따름이에요.)

학교 시설직을 대하는 타인의 태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지 질문했다.

"시설직 인력을 낮게 여기는 시선이 0%로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신경 쓸 필요도, 느껴야 할 만큼도 아닙니다. 일체유심(一切唯心)입니다. 하하하."

더 신경을 쓰는 것은 전혀 다른 환경, 다른 조직, 다른 업종, 다른 일을 하던 사람들과의 협업이다. 학교 공사를 위해 방문한 사람들, 매일 청소하러 오는 용역회사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 인간관계의 불필요한 잡음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연(緣) 셋, 계획된 우연

사회학습이론 중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우연적인 사건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서, 그 사람의 진로에 연결된다는 계획된 우연 이론(planned happenstance theory)이 있다. 지호준님은 재취업에서 계획된 우연을 경험했다.

"막연히 '강사로 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학교에서, 또 이러한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호준님은 "감히 동문들께 한 말씀 드려도 괜찮다면, 단기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많이 보고 듣고, '지금 아니면 언제?'라는 마음으로 적극적 실천을, 장기적으로 인생 후반의 5년, 10년의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쪽 해가면, 원(願)한 뭔가가 된다, 됐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지호준님은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경험한 '계획된 우연'을 받아들이고 만들며, 불방일(不放逸)의 자세로 정정진(正情進) '일'할 것이다.

If not now, when?





배우고 가르치고 일하는 사람



INTERVIEW 24 강성국 » 굿잡5060 34기

대학동 생활상권추진위원회 | 사업팀 매니저 » 2021년 2월 입사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01



일하는 이유 찾기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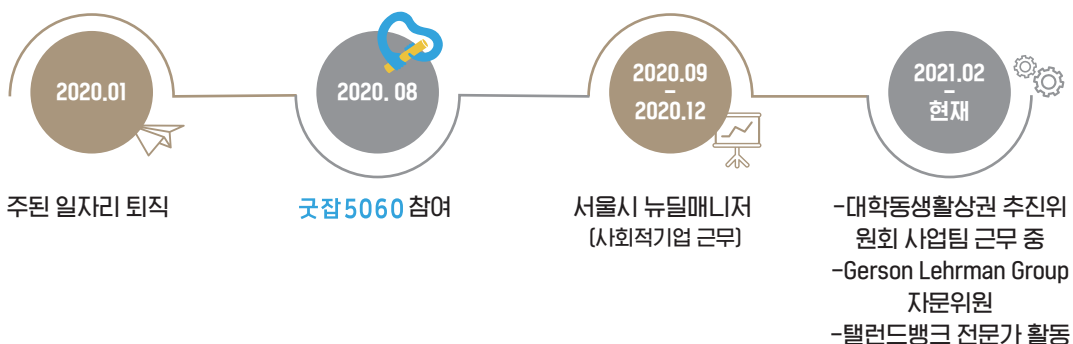
라이프 플랜에
적합한 일 찾기

03



취업 조건에 맞추기

재취업 경로



생업과 직업은 먹고살기 위한 일이지만
그것을 초월한 강한 소명 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관해 소명할 수 있을 때
일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죠.



변화의 주체는 나

광고 마케터로 변화를 만들며 '진화'를 거듭해왔던 강성국님은 코로나19로 이직 기회가 영커버렸다. 마음의 상처가 많은 퇴직 후, 코로나19 전개 추이를 지켜보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 굿잡5060을 선택했다.

퇴직 후에 찾아온 인간에 대한 배신감, 조직 생활의 덧없음으로 자꾸 작아지는 자신을 굿잡5060에 함께한 동기들을 마주하며 극복했다. '변화의 주체는 나이고, 그 변화로 내가 행복해야 한다'라는 신념으로 스스로 내려놓고 변화를 받아들였다. 변화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기보다 변화 자체가 좋았다. 굿잡5060에서 동기들과 함께한 시간은 회복력을 기르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왜 일해야 하는가?

강성국님은 재취업 성공 포인트 3가지를 질문으로 정리하며 일에 관한 어젠다를 제시했다.

‘왜 일해야 하는가? 무슨 일을 해야 행복할까? 조직의 요구 조건에 맞출 수 있는가?’

“생업이 있고, 전문가로서 직업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소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생업과 직업은 먹고살기 위한 일이지만 그것을 초월한 강한 소명 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관해 소명할 수 있을 때 일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죠.”

자신은 무엇으로 행복했는가를 일과 연결해 생각했고, 일을 통해서 더 행복해지려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그 탐색 과정에서 창업도 봉사활동도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무슨 일을 해야 행복할까?

강성국님은 서울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생활상권 육성사업” 마케팅 매니저로 활동 중이다. 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 전환의 그늘에 놓인 지역 소상공인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한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스테디를 마친 후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공동 마케팅과 공동 브랜딩 등 상권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방문율을 높이는 일들이다.

이윤의 극대화가 미덕인 시장경제만 알다가,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비영리 영역과 사회적경제를 경험하고 이해를 넓히고 있다. 지역 상인과 함께 배우고 나누면서 사회적경제 창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 중이다.

65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토대를 쌓고 있다는 강성국님에게 변화는 삶의 즐거움이다.

남과 다른 사람 Vincent

‘남과 다른 사람 Vincent’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실의 끈을 잡고 ‘사회적경제’의 바다에서 이상향을 향해 키를 쥔 모습인 빈센트 반 고흐와 겹쳐 보였다.

강성국님은 새로운 카테고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필드 테스트 중이라고 한다. ‘빈센트’라는 부캐릭터로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가고 있다. 강성국님은 배우고 가르치고 일하는 지금이 퇴직 후 느꼈던 부정적 감정을 몰아낼 정도로 ‘대박’ 좋다고 말했다.







재취업에 성공한 굿잡5060 동문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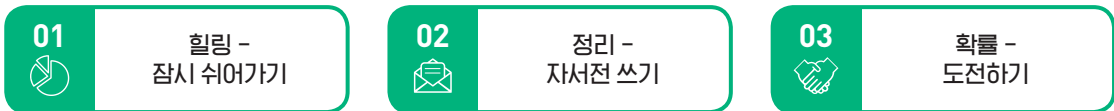
재취업 리포지셔닝(REPOSITIONING) 전략: 디딤돌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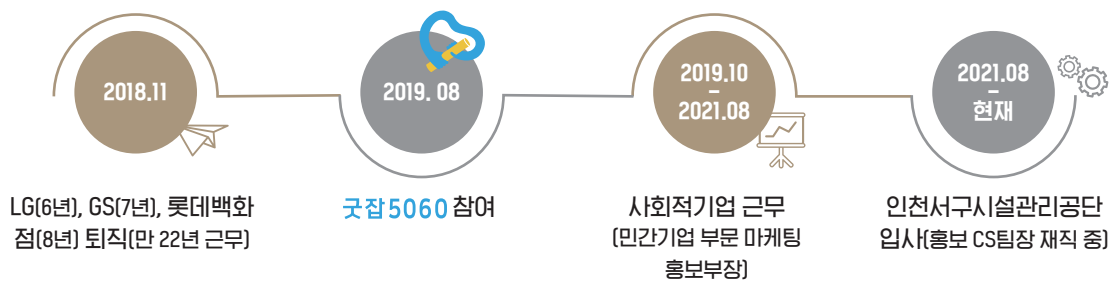
INTERVIEW 25 **구본용** » 굿잡5060 35기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 홍보CS팀장 » 2021년 8월 입사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재취업 경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중장년은

잠시 쉬어가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지친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퇴직을 말한다 는 것

중장년은 최고치의 열정을 쏟으며 시간을 건너왔다. 직무에서 치열했던 만큼 자신의 퇴직에 대해 말하기는 쉽지 않다. 퇴직은 일에서 대체되었다는 기분을 완벽하게 떨칠 수 없기에 불편하다. 다행히 구본용님은 자신만의 탄탄한 회복력이 있었고 덕분에 소중한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

구본용님은 현재 인천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고객지원 및 홍보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된 직무 22년을 마감하고 이곳에 도달하기까지 3년이 흘렀다. 굿잡5060에 참여하면서 3년 동안 디딤돌이 돼 준 일 경험 하나하나가 꿰어져 소중한 보물이 됐다. 다양한 규모, 성향의 일자리 경험을 한 구본용님은 대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기업과 공공기업의 차별점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대기업은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과와 이익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중년이고 그만큼 안정적입니다. 중소기업은 대업을 꿈꾸며 시행착오를 겪는 30대라 할 수 있고, 성장 가치가 큼니다. 사회적기업은 규모와 성과 면에서 다양합니다. 중소기업에 버금가는 기업도 존재하고 인적, 물적 자원이 열악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기업은 사회 공공의 복리를 추구하는 점에서 사회적기업과 매칭되는 면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퇴직 생활

구본용님의 디딤돌 일 경험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프리랜서 경영컨설턴트, 이익이 되는 마케팅, 자금 운용 등 경영컨설팅을 기업에 제공했고, 대상 기업으로부터 제안받아 단기간 취업을 했다.

둘째, 슬기로운 퇴직 생활을 전파하는 강사. 퇴직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퇴사학교’에서 강사를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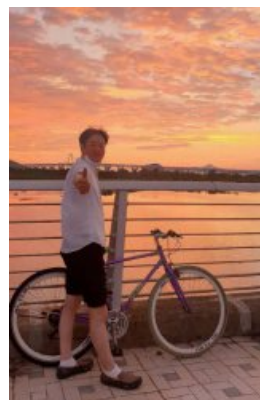
셋째, 마을 활동 연구자.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활동 등에 연구자로 참석했고 마을공동체 객원기자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가치 있는 활동을 고민했다. 그 가운데 마을도서관 설립은 구본용님 자신과 이웃, 마을을 단단하게 성장시켰다. 마을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소통과 배움의 공간인 도서관은 마을 활동을 지속하고 더욱 성장시키는 바탕이 되어 어떤 성취보다 뿌듯했다. 재취업 모색 중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곳도 마을 활동과 연관 있는 지역 기반의 공공기관이었다. 인천서구 시설관리공단 입사의 과거는 22년의 직장생활과 3여 년의 마을 활동이 크게 작용했다. 현재도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중장년의 리포지셔닝

콘셉트를 상징화해 효과적 인 포지셔닝에 특화된 마케터 구본용님은 다양한 일자리 경험으로 자신의 포지션을 새롭게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구본용님은 재취업을 모색하는 동문께 ‘잠시 쉬어가기’를 권했다. 쉬어가기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조언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중장년은 잠시 쉬어가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지친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중장년이 가진 경험과 지혜가 역량으로 발휘돼, 더 크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빈 곳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프랑스 속담이 있다.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워야 한다는 뜻이다. 구본용님은 인생 2막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잠시 침표를 두고 다양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해 보길 권한다. 누가 알겠는가. 그 빈틈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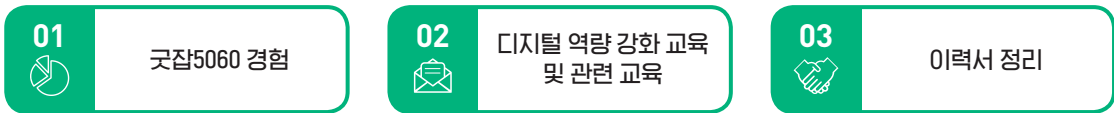
스스로 만든 일, 경험,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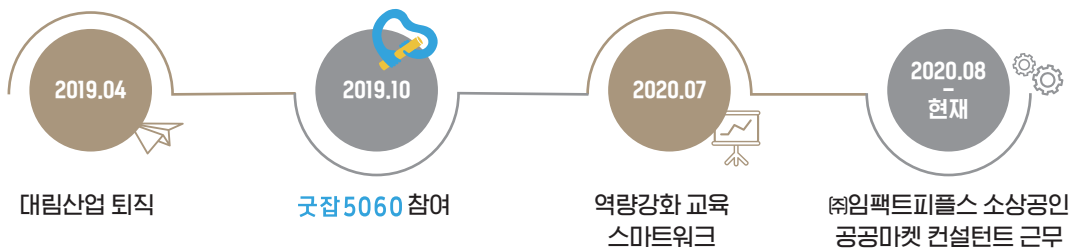
INTERVIEW 26 **강재호** » 굿잡5060 26기

임팩트피플스 | 소상공인 공공마켓 컨설턴트 » 2020년 8월 입사

■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 재취업 경로



인생 1막에서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에서 일했지만,

인생 2막은 사회적 가치와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

강재호님은 한 직장에서 24년간 일했다. 평생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에서 일하다 퇴직 후 떠난 여행에서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다.

재직 중, 이란과 한국의 400개 업체가 회원인 민간 친선협의회 사무총장으로 하도급 물품 유통업체들의 성장 지원 사업을 통해 인상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 이란의 서울공원 조성에도 일조해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이런 경험이 밑자리가 돼 퇴직 후 자연스럽게 '프로보노', '봉사'에 관심을 가졌다. 밥퍼 봉사활동을 하면서 좀 더 현역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사회에 봉사할 방법을 찾고 싶었다.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라는 아쉬운 마음에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 개설된 '사회적기업' 수업을 수강했고 그곳에서 상상우리 신철호 대표를 만났다. 이 강의를 듣고 바로 굿잡5060 프로그램을 노크했다.

"인생 1막에서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에서 일했지만, 인생 2막은 사회적 가치와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사회적기업은 기업 영리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이라 제게 임팩트가 컸어요."

강재호님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에 남은 인생을 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40년 만에 쓰는 이력서

굿잡5060 교육 중 강재호님에게 가장 도전이 되었던 수업과제는 이력서 작성이었다. 평생 써 본 적 없던 이력서 쓰는 법을 배우면서 강재호님은 많이 웃었다고 한다. 대기업 인사팀장 7년간 남이 써온 이력서를 평가하는 일만 하다 자신이 다시 이력서를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재취업 도전 선배들은 "인생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조언해주었다. 강재호님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을 권하는 선배들의 말을 믿었다. 현재 강재호님은 소상공인 공공마켓 컨설턴트로 재직 중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행복감으로 도전했다. 이 일은 서울시 일자리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다.

퇴직 전에는 마음이 있어도 사회공헌에 참여할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다. 경제적 기부가 최선이었다. 지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탑골공원에서 점심 배식 봉사를 하고, 주말에는 시각장애인과의 등산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움직인다.

디지털 약점을 매워가기

오랫동안 부서장으로 근무하며 잊고 있던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워크 관련 교육을 듣고, 디지털 실무를 직접 해 보고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 호스트로 모임방도 열어보고, 틱톡에 여행 영상도 편집해서 공유한다.

"이것저것 해 보는 거지요. 이프랜드 호스트로 이 방 저 방 기웃거릴 때는 내가 이래도 되나, 공연히 오해할까 젊은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새로운 경험을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강재호님은 자신의 모든 일 경험의 노하우를 응집해 소상공인을 돕는 컨설턴트 직무에 녹여내고 있다.

"모든 성취의 시작점은 갈망이다."

- 나폴레옹 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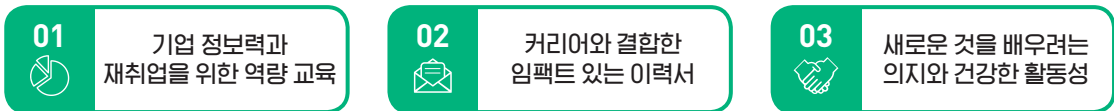
웃는 얼굴이 바로 공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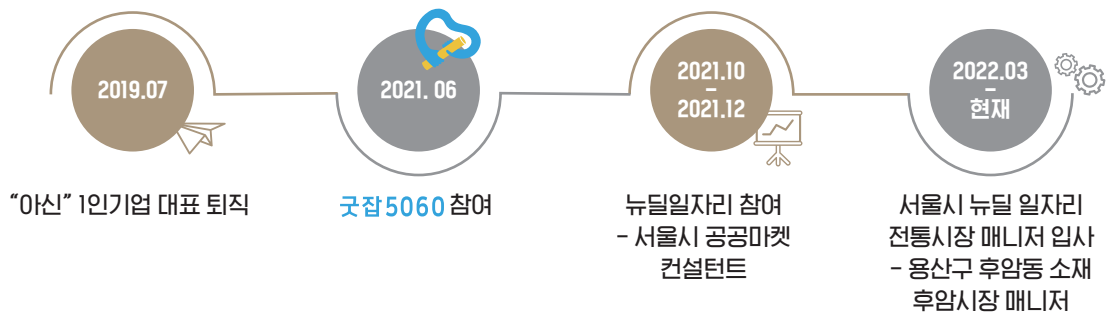
INTERVIEW 27 신승주 » 굿잡5060 44기

서울시 뉴딜일자리 | 전통시장 매니저 » 2022년 3월 입사

■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 재취업 경로



저는 현재 만족합니다.

재밌고, 내가 누군가를 돌보는 이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후암시장 살림꾼 신 매니저

후암시장은 1954년에 문을 열어 68년의 전통을 가진, 서울에서 제일 작은 전통시장이며, 네 번째로 오래된 시장이다. 2015년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지금의 정돈된 모습을 갖추었다. 신승주님은 전통시장 매니저로 후암시장 상인회에서 시장 살림살이를 맡고 있다. 전통시장에서의 일은 찌한 사람 냄새가 나서 너무 좋다고 한다.

신승주님은 자신의 전공인 디자인과 인쇄업의 1인기업 대표로 긴 시간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 그때부터 무엇이든 혼자서 어려움 없이 해결하는 처리맨으로, 지금은 공공일자리에서 그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첫걸음은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서울공공마켓에 입점시켜 판로개척을 돕는 마케팅 컨설턴트였다. 새로운 것에 밀려 점점 내리막길을 걷는 인쇄업 경영 커리어가 오히려 소상공인을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었다. 컨설턴트로 부모님 연배 사장님들의 어려운 고민을 해결할 때 '희열'을 느낀다. 정부 지원금을 못 받은 상인을 돕고, 현수막이나 손글씨 팻말을 만들고 고마움의 답으로 받은 핫도그와 옥수수 보람이 된다. 착하고 재밌는 사람인데 일까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신승주님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칭찬이 너무 좋다.

“저는 현재 만족합니다. 재밌고, 내가 누군가를 돌보는 이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재미로 가는 배움의 여정

데일 카네기(Dale Carnegie)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데, 성공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했다.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몰입할 수도, 지속할 수도 없다는 말이다. 인터뷰 내내 신승주

님은 ‘재미’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는데, 그 이유를 물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 상인들이 자주 싸워요. 여기에 동참하면 일이 심각해져서 저는 화제를 돌리기 위해 ‘재미’를 활용하지요. 내가 원래 하던 일과 다른 일이 더 재밌고, 고집을 버리고, 마음을 열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신승주님은 재미의 궁극에 이르기 위해 끊임없는 배움을 강조했다. 모르고 웃는 건 재미가 아니라고. 그 재미의 모티브는 운동이다.

“운동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하면 재미없어요. 야구 배트 휘두르는 기술을 알고, 나만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의 재미는 저만 아는 거죠. 제가 아는 건 알려 드리고, 제가 모르는 건 무조건 배웁니다.”

‘같이’의 가치

신승주님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은 ‘자신에 대한 믿음, 아신(我信)’이다. 그가 만든 1인기업 이름도 아신이였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덩벼들지 않겠다고, 창업하게 되어도 직원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다.

신승주님은 ‘웃는 얼굴이 공공성이다’라고 생각한다. 시장의 어르신들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와 인사가 그분들의 웃음이 되고 변화의 시작이 된다면, 그것이 사회적 기여라고 생각한다. 시와 구청에서 보내는 모든 공문의 실행 주체인 자신의 본업보다 웃는 얼굴의 촘촘한 소통들이 일과시간 8할을 차지한다. 신승주님은 공공일자리나 공공기관에서 사람들과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힘들 땐 화를 내고, 재밌을 땐 같이 웃고 사는 것에 계속 집중할 계획이다.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웃어줄 수 있는 사람,
잃어버린 의지를 되찾도록 밝혀주는 촛불 같은 굿잡5060, 탄탄한 네트워크로
재취업에 성공한 굿잡5060 동문의 이야기를 만나볼니다.



딱! 잘! 제대로 만났다



INTERVIEW 28 **배선희** » 굿잡5060 62기

㈜AC패스파인더 | 투자심사역 » 2022년 7월 입사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01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기 역량을 알려라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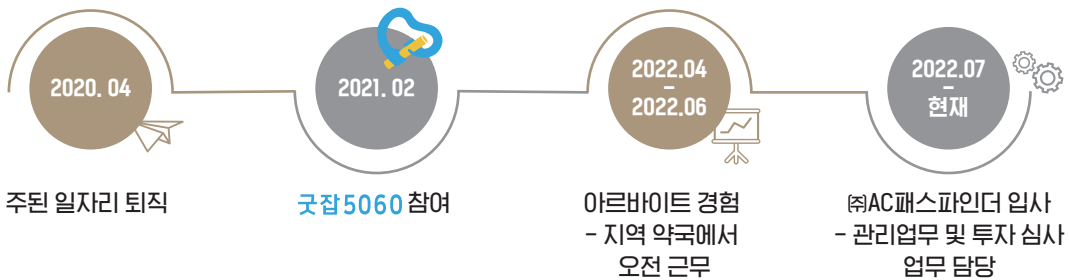
사회 변화를 주시하라

03



다양한 역량을 강화하라

재취업 경로



한 번 온 기회가 다음에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재취업을 원하신다면 기회 크기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끈을 잡고 소속되면 다음 자리,

더 높거나 넓은 자리로 인연이 옮겨갈 수 있어요.



초연결사회(hyper_connected society)에서 취업하기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사물이, 사물과 사물이 촘촘하게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를 살고 있다. 재취업 전문가들은 중장년 재취업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네트워크 활용을 권한다.

“계속해서 관심 분야를 찾고 교육받아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 과정은 네트워크를 통해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해요.”

배선희님은 현재 (주)에이씨패스파인더(AC Pathfinder)에 재직 중이다. 재취업 성공은 20년 전 직장 동료였던 세 사람의 인연에서 시작됐다. 20년 전 함께 근무했던 동료가, 지금은 기업 대표가 된 다른 동료에게 배선희님을 추천했다. 추천 이후 면접을 거쳐 입사까지, 서로 이어져 관계를 지속하면서 연결되기 위해선 실력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제 경력을 이용하여 재취업을 하겠다는 바람은 50대 후반이 되면서 접고 있었는데, 사회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굿잡5060 교육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굿잡5060은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 주도적인 구직활동에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호기심 천국에 젊음의 강이 있다

배선희님은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비결을 묻자, ‘철이 없다’라는 웃음에 ‘호기심이 많다’라는 말을 포개었다. 굿잡5060에 참여할 당시 친구들은 말렸지만, 배선희님은 이제 쉴 나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과 달리 ‘운이 좋으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시점에 여러 이유로 호기심을 접었다면 자기 경험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지금의 직무를 놓쳤을지도 모른다.

“저는 늙지 않는 삶의 원천은 호기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새로운 것에 충격이 적은 편이에요. 현재 직무는 엑셀러레이팅 활동으로 창업투자회사(VC)가 투자하기 어려운 초기 벤처기업(스타트업)에 투자, 지원하기 위해 관리업무 및 투자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제 경력과 경험의 총합이 녹아들 수 있는 직무예요.”

더 유연하고 넓어진 사고

서로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단단한 관계와 관계망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네트워크가 단단한 사람은 인맥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늘 바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배선희님의 네트워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겉에 있는 것’으로 깊어진다.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웃어주고, 주고받는 말에 쓸데없는 가식이 없는 진국인 사람의 단단함은 백 년쯤은 거뜬히 유지될 것 같다.

나의 힘, 공부와 독서와 사회

배선희님은 공부와 독서를 즐긴다. 서울 시민대학에서 한 학기에 한 강의는 꼭 수강하려고 한다. 철학을 공부하고 재즈에 심취하고 소통하는 비폭력 대화법을 강의로 깨닫는다. 걷기를 좋아해서 하루에 20km를 걷는 사람, 배선희님의 삶의 근육은 철학자가 전한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선 중장년에게 조언을 부탁했다.

“한 번 온 기회가 다음에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재취업을 원하신다면 기회는 크기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끈을 잡고 소속되면 다음 자리, 더 높거나 넓은 자리로 인연이 옮겨갈 수 있어요.”





다시 첫 마음으로



INTERVIEW 29 조철규 » 굿잡5060 43기

SKN테크노파크 | 관리소장 » 2022년 6월 입사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01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인정하기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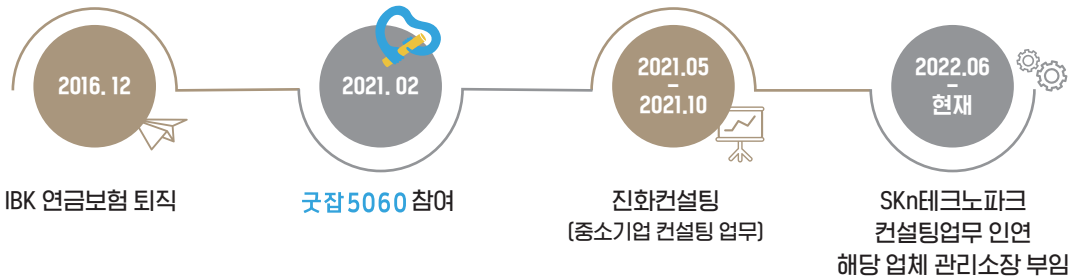
현재 나의 상황을
널리 알리기

03



컴퓨터 및 실무 능력
갖추기

재취업 경로



굿잡5060은 잃어버린 의지를 밝혀주는 촛불 같았어요.
단절된 경력에 집중하기보다 다가올 미래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내려놓고

조철규님은 2016년 12월 평생 몸담았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했다. 머리로 생각하던 퇴직이 현실이 되자 살아갈 시간이 많다는 것이 축복이기보다 막막하고 두려웠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고, 사회에 대한 울분도 생겼다.

조철규님은 산을 찾으면서 그 시간을 극복했다. 산에 오르려면 걸어야 했고, 걷다 보면 체력이 소모되면서 복잡했던 생각도 단 순해졌다. 산행이 마치 면벽좌선(面壁坐禪)과 같았다. 신기하게도 어떤 문제는 산행 후에 사라졌다. 답을 얻은 것인지, 아니면 체념이나 포기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워졌다.

산행에서 가장 몰두한 화두는 ‘과거의 나 내려놓기’였다. 자신을 현재로 데려와 유심히 살피보았다. 나이 60에 가까워졌는데도 새삼 사회 초년생이 된 것 같았다. 판단하고 지시하고 결정하던 베테랑은 사라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낯선 자리에 와 있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전의 자신을 내려놓고 새롭게 배우고 익히는 자세를 지니기로 마음먹었다.

‘굿잡5060’이 밝혀주는 길

조철규님은 재취업 정보를 탐색하는 중에 ‘굿잡5060’을 알게 되었다. 중장년의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그저 신기했고 퇴직이 세상의 끝인 것 같았는데 굿잡5060 합격통지를 받고 감회가 새로웠다. 여타 프로그램들과 달리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지원자를 선발하는 굿잡5060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굿잡5060을 통해 많은 중장년이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것을 알았고, 실무 능력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도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전 직무에서 접해본 적 없는 새로운 업무 처리 방식과 프로그램들을 배우면서 또 한 번 놀랐다. 굿잡5060은 잃어버린 의지를 되찾도록 밝혀주는 촛불 같았다.

조철규님은 굿잡5060을 수료한 후에 중소기업 컨설팅과 금융권에서 잠시 일했고, 한국 등산트레킹 지원센터의 ‘숲길조사원’으로 일했다. 숲길조사원은 전국의 숲길 자원정보를 수집하는 일인데 노면 상태나 교량, 자연경관, 조망 점, 쉼터, 명소, 화장실 등의 시설물과 관광자원을 GPS 좌표 기반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더 높은 의자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온 23년간의 직장생활보다 6개월 동안의 숲길조사원 일이 인생 최고의 직장이었다.

신입사원 조철규

조철규님은 현재 SKN테크노파크 관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정년퇴직 전까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준법감시인으로 일한 덕분에 비슷한 맥락의 업무에서 능력을 발휘했다. 처음엔 주차 관련 컨설팅 업무를 맡았다. 계약직 주차팀장으로 주차 관련 사고를 정리하면서 주차 관련 업무를 시스템화하고 무인화하는 작업을 시행했다. 조철규님의 컨설팅을 통해 주차에서 이익이 나는 구조로 시스템이 변경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차 관련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현재 직장인 SKN테크노파크로부터 관리소장직을 제안 받았다. SKN테크노파크는 정년 60세 제도를 개정하고, 일반적 관리소장의 기술 중심 업무가 아닌 운영과 경영관리 업무를 일임하며 조철규님을 관리소장으로 영입했다. 중년에 다시 신입사원이 되자 오래전 젊은 시절이 떠올라 더욱 기쁘고 설레었다.

덤으로 얻은 사회생활

조철규님은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작은 것에 도전하고 성취감을 느끼기를 권한다. 무엇보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단절된 경력에 집중하기보다는 다가올 미래에 주목해야 한다. 나이가 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지만, 중장년 재취업 성공은 쉽게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철규님은 젊은 날 처음으로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와 같은 첫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고 있다.





사람을 귀하게, 인연을 소중하게



INTERVIEW 30 박아나 » 굿잡5060 10기

위로업커리어협동조합 이사장 » 2021년 6월 창업

재취업 성공 요인 세 가지

01



탄탄한 준비 기간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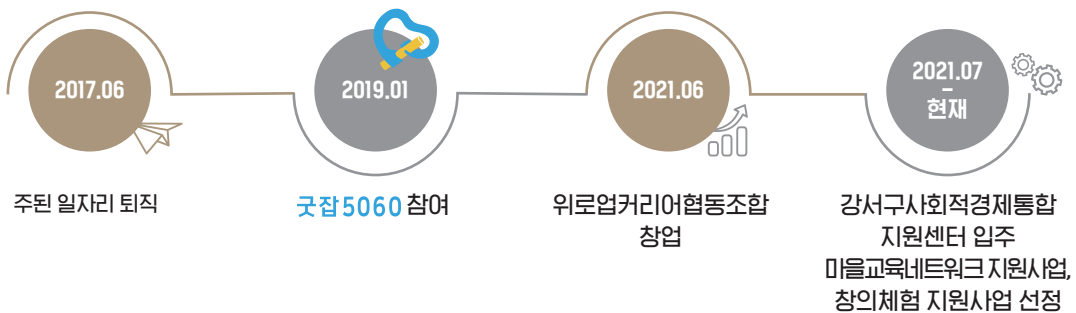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탐색과 시도

03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
확보와 공모사업 진행

재취업 경로



굿잡5060을 통해 확장한 네트워크가 원동력이 되었죠!

오늘도 새로운 일터를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재취업의 행운을 선물하고 싶어요.



다양한 경험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박아나님은 '위로업커리어협동조합'의 대표이다. '위로업커리어'는 '자신의 업(業)을 위로 상승(up)시킨다'는 의미이고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 지도사 등 30여 명의 진로 전문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박아나님은 좋아하는 일이면서 사회 공헌이 가능한 일을 모색하던 중 2016년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커리어 컨설턴트 양성과정에 참여했다. 이 과정은 직업정보망을 이해하고, 자료를 제공하며, 직업정보 수집 및 분석으로 구직자의 경력을 관리해주는 커리어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박아나님은 이 과정에서 '직업상담사'를 접했고, 자신이 염원했던 가치 있는 일의 일면을 직업상담사 직무에서 찾았다. 구직자들 저마다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할 곳을 연결하는 직업상담이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이라 생각했다.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궁극에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찾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박아나님은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을 찾았다.

작은 인연도 소중하게

박아나님은 2019년 1월 '굿잡5060'에 참여해 재취업 프로그램을 접하며 네트워크를 넓혀갔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인연에 정성을 다하는, 박아나님은 굿잡5060에서 만난 동기들과 후속 프로그램도 듣고, 적극적으로 후속 프로젝트 참여를 이어갔다. 또한 커리어 컨설턴트 양성과정 수료생들이 2017년 이후 매년 위로업커리어개발센터(위로업커리어협동조합 전신) 동아리에 합류하며 회원 수가 대폭 증가했다.



회원들 대부분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으로, 이력서 작업 및 면접 정보 등을 공유해 함께 공부하고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취업 희망자 전원 재취업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직업상담사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구직을 준비하고 서로를 독려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박아나님은 교육 현장에서 만난 사람과 인연을 이어가면서 위로업커리어협동조합을 소개한다. 그들을 초대하고, 기업인들을 초빙하여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사람과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인연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네트워크 확장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사람들과 '함께'이기에 가능했다.

위기의식은 나의 힘

박아나님은 현재 '위로업커리어협동조합'의 대표이면서 입시 논술 지도와 국어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영화 관련 연구자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역사체험학습을 진행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기도 했다. 그곳에서 콘텐츠개발과 교재 집필 등을 하며 사회적 경제를 접했다. 직업상담사 자격을 갖춘 후부터는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마을 교육 네트워크 지원사업, 도전 진로탐험대 등의 공모사업을 부지런히 진행하면서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취약계층 청소년 성장 지원 프로그램 '강서 진로 주치의'의 진로 멘토링 강사로도 활동했다. 지금도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에서 진로 멘토링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N잡러 박아나님의 원동력은 위기의식이다. 한 분야 최고 수준에 달하는 학업을 이어가면서도 위기의식을 놓지 않았다. 이 공부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이것을 통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같은 질문을 던졌다. 지금은 이러한 위기의식이 사회 공헌에 대한 열정과 맞물려 타인의 삶을 설계하는 데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박아나님은 6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 왔다. 지난 6년간 직업상담 업무를 경험하면서 체득한 노하우로 오늘도 새로운 일터를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재취업의 행운을 선물하고자 한다. 박아나님이 굿잡5060을 통해 확장한 네트워크가 원동력이 되고 있다.

굿잡5060
함께 그린 사람들



〈굿잡5060〉 운영자 6인의 이야기

- 김동신 책임 현대자동차그룹
- 신지연 선임 서울시50플러스재단
- 노유진 PM 상상우리
- 배소영 매니저 상상우리
- 장동하 매니저 상상우리
- 황성철 매니저 상상우리

Q1

중장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굿잡5060>의 시작을 함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출범부터 함께하신 세 분, 굿잡의 첫 시작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김동신 책임 2018년 7월, 사업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굿잡5060> 출범식을 개최했는데요, 사실 중장년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모델이 없던 시기라 과연 중장년분들이 많이 오실지, 현장의 반응은 어떨지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요. (웃음) 다행히 출범식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앞으로 <굿잡5060>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이 많지만, 중장년 세대의 핵심 니즈를 반영하고 사회 이슈와 연계된 사회공헌 사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굿잡5060>은 단순히 재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중장년 세대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건강한 사회적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굿잡5060>을 시작했던 기억이 나네요.



배소영 매니저 <굿잡5060> 출범식 때 힘차게 돌렸던 바람개비가 생각이 납니다. 중장년 재취업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싶었어요. <굿잡5060>이라는 이름에 담은 의미를 정말 이루어낼 수 있을까? 좋은 일자리(Good Job)에서 일하는 5060이 자랑스러운(Good Job!) 프로젝트,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새로운 형태의 콘셉트와 교육을 준비하며 걱정도 되었지만(제 별명이 걱정인형입니다^^) 희망과 기대가 더 컸어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주도적인 참여형 교육, 중장년에게 부족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높이고, 차별화된 나만의 핵심역량을 찾고 매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핵심역량 강화교육, 그리고 <굿잡5060>이 배출한 핵심인재가 활약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확산! 생각만 해도 근사한 그림이라 정말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신지연 선임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출범식의 바람개비가 돌아갈 때는 제 머릿속도 뱅글뱅글 돌아가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가나 고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웃음) 저에게 <굿잡5060>의 키워드는 '성장'이에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중장년은 물론, 운영자도 기관도 함께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평소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운영도 해 보았고, 이 방향이 아닐 땐 함께 논의하며 빠르게 피봇팅도 해 보고 저에게는 도전과 배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취업을 목표로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무거운 주제를 <굿잡5060>은 조금 더 다르게, 가볍고 재미있게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인사, 메시지 하나까지 운영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갔어요. 참여자의 만족이 다시 모집과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례들을 확인했기에 당사자 입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굿잡5060>의 시작과 마무리는 저에게는 '성장'이네요.

Q2

<굿잡5060> 참여자에서 사업을 이끄는 매니저로,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참여자로서 또 매니저로서 느끼는 <굿잡5060>에 대해 들려주세요.



노유진 PM 저는 출산이 늦어지면서 육아 문제로 48세가 되던 해 조기 퇴직을 했는데요. 퇴직 전에는 중소기업에서 인사업무관리와 인재채용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사실 재취업이 어려울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큰 착각이었죠. 40대 후반에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방황하던 중에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굿잡5060>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꽤 많은 양의 정보 입력이 필요한 신청서를 보면서 왠지 성심성의껏 입력해야 할 것 같았죠.

제가 <굿잡5060>에서 알선한 취업 성공 1호인 건 아니죠? 약간의 부채 의식이 있어 상상우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굿잡5060>의 알선으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전문인력으로 6개월간 근무했는데, 책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사회적기업의 현안을 생생하게 만나게 되었고, 계약 기간 종료 후 상상우리 신철호 대표님의 제안으로 2019년 3월에 <굿잡5060> 운영팀에 합류했습니다. 돌이켜 보니 정말 다채로운 감정이 버무려진 시간이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굿잡5060>의 매력은 무엇보다 동기들끼리 연대감이죠. 땅바닥에 떨어졌던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어요. 1기로 참여해서 2018년 8월에 수료했으니까 벌써 5년 차인데요. 지난달에도 굿잡 1기 동기 모임을 했어요. 우린 대학 동기보다 더 자주 소통하고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동하 매니저 제가 <굿잡5060>에 참여했을 당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통해서 평소 관심이 있는 강좌를 듣기도 하고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석하는 등 퇴직 후 1년여의 소위 갭이어 기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30여 년의 직장생활을 통해 몇 차례 소진의 경험을 했던 저는 반드시 취업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소위 영리만을 추구하는 조직에서는 다시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소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었는데, <굿잡5060>의 포스터에 눈길이 갔고 한번 해 볼까? 하는 단지 호기심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에 참여해서 상상우리의 소셜 미션을 접하는 순간 심쿵 했고 다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운이 좋게 상상우리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보람은 물론 수료하신 동문님의 재취업 성공 소식을 접하게 될 때입니다. 모든 재취업 성공 소식에 큰 보람을 느끼지만, 그중에서도 으뜸은 정말 본인이 일하고 싶었던 사회적기업에 출근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시 때입니다. <굿잡5060> 과정 중에 관심 기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10회차 마지막 시간에 한 개 기업의 SWOT분석을 통해 솔루션 발표를 합니다. 그 기업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짜릿하지요.

황성철 매니저 제가 2018년 굿잡 5기로 참여했을 때만 해도 국내에는 중장년 재취업,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의 취업에 그다지 관심이 크지 않았어요. 2020년 5월 대기업을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로 중장년 재취업 관련 교육업체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관심이 증대되긴 했지만, 재취업 교육의 질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굿잡5060>은 바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함께 취업 트렌드에 맞게 주기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였고, 1:1 면담, 취업 알선 등 프로그램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로 교육의 질적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굿잡5060>을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를 뽑으려면 '진심(眞心)'이 아닐까 생각해요. 진심(眞心)으로 교육생을 생각하는 굿잡 운영진, 동기들 간의 진심(眞心) 가득한 응원과 격려, 재취업에 대한 진심(眞心) 어린 간절함의 결과가 양호한 취업률로 나타난 게 아닐까요. '진심(眞心)은 통한다'는 말처럼요. 아쉬운 점은 <굿잡5060> 교육을 통해 '나도 재취업할 수 있다'는 불운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나 교육 이후 일부 교육생은 다시 과거의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어 사후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굿잡5060> 2.0에서 좀 더 보완해보려 합니다.

Q3

중장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4개의 기관이 힘을 모았습니다. 추구하는 방향은 같지만, 각 기관의 특성으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려움과 시너지를 어떻게 조율해나갔을지 궁금합니다.

김동신 책임 사업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웃음) 우선 기관별로 업무 프로세스가 다르고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다 보니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서로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결국 정답은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저희는 정말 자주 만나서 회의를 했거든요.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었고 지금의 <굿잡5060>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기관별로 최대한 업무에 대한 자유와 권한을 드리고자 노력했어요. 항상 함께하는 파트너가 잘돼야 우리 사업도 잘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했어요.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아이디어들을 과감하게 실행해보고 실패와 경험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것이 결국 <굿잡5060>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노유진 PM님과 신지연 선임님도 저를 많이 배려해주시고 서로 존중하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노유진 PM 함께한 4개 기관이 어디 하나 닮은 곳 없는 조직인데요. 초기에는 <굿잡5060> 프로젝트에 대해 '뭐 잘 되겠어?',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진 않겠어?'라는 시선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우리가 해냈거든요! 각 기관의 강점과 역할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운 좋게도 사업 운영진이 최근 3년 반 동안 한 명도 바뀌지 않았던 점도 큰 힘이 되었죠. 상상우리는 타 기관과 비교해 매우 작은 조직인데요. 무엇보다 상상우리가 프로젝트 운영에 있어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존중해 주신 협업기관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입니다.

신지연 선임 출범식 준비를 위해 처음 실무자들이 얼굴을 마주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웃음) 우리는 어떻게 맞춰 나가야 하지? 중장년 일자리 문제 해결도 필요하고, 각 기관의 장점과 강점도 분명히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엮어 앞으로의 그림을 그려나갈까. 이런 사업의 형태가 처음이다 보니 초반에는 의견 조율에 에너지와 소통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만, 그런 과정이 지금의 <굿잡5060>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각 기관의 특성과 성격을 너무 잘 알기에 배려할 부분이나 각자 어떤 역할을 맡는 게 좋을지를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배운 점이 참 많은 프로젝트였어요. 저의 불멘소리도 늘 다 독여주시고 끌어가 주신 책임님, PM님, 매니저님들 감사합니다. (흑흑)



Q4

〈굿잡5060〉은 교육, 일자리 등 새로운 시도가 많았던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도였기에 그만큼 어려움도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배소영 매니저 〈굿잡5060〉은 정말이지 힘든 교육 과정입니다. 매 회차 과제가 있고, 매주 한 권씩 책을 읽고 발표하고, 노트북 필참에 스마트워킹에 익숙해져야 하죠. 심지어 결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과정을 모두가 해내세요. 과제를 안 하거나 결석을 한다고 패널티를 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일반적인 교육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이는 인품과 역량을 모두 갖춘 멋진 분들이 선발되어 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격려하고 끌어주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자극받아 또 힘을 내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굿잡5060〉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굿잡5060〉 하면 ‘땀’ 종소리를 잊을 수 없으실 텐데요. 중장년이 조심해야 할 습관 중 하나가 말을 너무 길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래시계와 종을 준비해서 1분을 넘기면 ‘땀’ 종을 울려 말을 마치게 하는 그라운드룰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당황하거나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셨고, 정말 종소리가 많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1분 안에 말씀들을 다 마무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시대가 변한 건지, 교육의 효과인 건지 (하하) 긍정적인 변화죠.

노유진 PM 〈굿잡5060〉 1기로 참여했던 당사자로서 솔직히 힘들진 않았어요. 참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과제가 많긴 했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박장대소였어요. 매 회차마다 손바닥에 불이 나게 박수하는 시간이 참 어색했지만, 지나고 보니 무거운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었네요. 최근 3년 동안은 거의 선발워크숍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왔는데요. 제가 참여했던 선발워크숍은 정말 신선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무엇보다 참여한 분들의 면면이 워낙 출중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운영진이 되어 서류전형과 면접에 참여하다 보니 그 기준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구직활동에 의지가 있는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람인가?’, ‘작은 조직에서도 실무자로서 일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한마디로 일에 대한 진정성을 보는 거죠. 〈굿잡5060〉은 해마다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제가 교육 중 취업으로 예비 사회직기업에서 일할 때였어요. 85년생 청년 대표님이 “내일을 회의를 슬랙(Slack)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몹시 당황했거든요. 3년 전부터 협업툴 활용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워크스페이스’를 집중적으로 교육해 실용적인 과정이 될 수 있게 운영해 왔습니다.

신지연 선임 맞아요. 5년의 사업 중, 코로나19로 무려 3년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네요. 모두가 처음 겪는 이 시대엔 〈굿잡5060〉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정말 난감했어요. 코로나19 초기에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여러 시행착오도 거쳤어요. 그렇지만 위기에서 길을 찾는다고, 빠르게 회의를 하며 70명 이상이 참여하는 선발워크숍도 문자와 메일 안내부터 운영 화면, 접속과 면접 운영 매뉴얼까지 만들며 안정화를 찾아갔어요.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장년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 정보를 더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그때부터 〈취업 트렌드 세미나〉도 개최하고, 〈굿잡5060〉의 인턴십 프로그램인 〈경영혁신5weeks〉도 참여자-기업 매칭부터 발대식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운영되었어요. 늘 활기차던 오프라인 선발워크숍을 운영하지 못하던 걸 아쉬워했으면서, 최근 소규모 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운영자들끼리 현 상황이 낯설어서 서로 머쓱해하며 웃었던 생각이 나요. 다시 생각해보니 큰 변화의 시기에 새로운 도전들에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던 참여자분들에게 감사하네요.

Q5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 느끼시는 부분도 다를 것 같은데요. 5년 전의 굿잡과 5년을 맞이한 굿잡,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김동신 책임 중장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관심이 늘어났다는 점이 크게 와닿네요. 사업 초기에는 중장년 세대라고 하면 조기 은퇴, 고령화, 일자리 문제 등 민감한(부정적) 이슈가 많았거든요. <굿잡5060>이 중장년 당사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중장년 세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것 같아요. 또한 <굿잡5060>과 함께 민관에서 다양한 중장년 대상 사업들이 만들어지며 생태계 자체가 커진 것도 큰 의미가 있네요. 중장년 세대가 <굿잡5060>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한다면 그 또한 우리 <굿잡5060>의 성과라고 생각해요.

아직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지난 5년간 중장년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증명했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인 것 같아요. 앞으로 <굿잡5060>이 중장년 세대라면 꼭 참여해야 하는 대표 활동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해요. 꼭 취업만이 아니라 중장년이 함께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면 뿌듯할 것 같습니다.

노유진 PM 저는 서류전형을 위해 신청자 정보를 제일 먼저 보게 되는데요. 5년 전에는 사무직 중심의 퇴직자 비중이 높았고 이공계 출신은 찾아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특히 최근 1~2년 사이 이공계 출신의 퇴직자 유입이 증가했습니다. 초기에는 수요 기업을 발굴하고도 해당 포지션에 추천할 수 있는 적합한 인재가 없어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주로 이공계 출신을 요구하는 직무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에 사회적기업 동구발 대표님이 화장품 제조 연구인력 추천을 요청하셨는데 적합한 자가 없어 매칭을 하지 못했던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굿잡5060>이 취업을 외에도 자랑할 만한 차별점은 알선 취업의 대부분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로 연결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료 후 첫 취업까지 구직 기간도 3개월 내외로 매우 빠른 편이고 평균 임금이나 고용유지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요즘 들어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5년 전에는 취업처를 발굴하기 위해 기업 대표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굿잡5060> 수료생으로 추천을 요청하는 기업들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변화는 시간만 쌓여서 얻어지는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소영 매니저 5년 전 처음 스마트워킹 교육을 했을 때는 대혼돈 상태였어요. 구글드라이브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컴퓨터 3종 세트 활용도 힘들어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채 퇴직하여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요. 요즘은 스마트워킹에 익숙한 분들이 더 많아졌고 재취업을 위한 준비 부분도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굿잡도 그 흐름에 따라 함께 변화해 왔습니다. 커리큘럼도 변화가 있었고 다양한 사례가 쌓이다 보니 교육생들께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든든한 동문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장동하 매니저 현시점에서 생각해보면 <굿잡5060>에 합류한 초기에는 취업 취약계층인 퇴직 또는 경력단절 중장년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한 분 한 분의 재취업 사실이 보람이었고 하나하나 재취업 숫자를 늘려가는 것이 재미였습니다. 어느 시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더는 <굿잡5060>이 소위 취업 취약계층에게 단지 적당한 일자리를 갖게 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

게 됩니다. 현시점의 <굿잡5060>은 재취업에 성공한 한 분 한 분의 사례, 중장년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 혁신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증거를 만들고, 그 증거를 모아서 중장년 고용시장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성철 매니저 5년을 맞이한 굿잡은 운영진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중장년 재취업교육은 <굿잡5060>처럼 해야 한다.’라는 업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 브랜드 있는 전직지원기관에서 방문 모니터링하는 것을 보면요.

최근 부산 지역 <굿잡5060> 수료식 때 에피소드인데요. “이런 차별화된 좋은 굿잡 교육프로그램을 왜 굿잡 5년 차에서야 부산에서 처음 진행하느냐? 부산사람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교육생 의견이 많았어요. (웃음)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조차 역량 있는 중장년의 눈높이에 맞는 재취업교육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도 <굿잡5060>이 재취업 시장의 변화와 속도를 파악하여 지금처럼 제대로 된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산, 광주, 대전 등 주요 도시에 굿잡을 소개할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어요. 이런 활동이 결국 중장년이 보유한 역량과 경험이 재취업으로 연결되도록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

만약 굿잡으로 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굿잡 교육생이자 운영자로서 이제야 “어른으로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백 명의 굿잡 교육생과 1:1 취업 지원 면담을 하면서 나 자신을 반추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어른인 줄 알았는데 어른이 아니었던 나를 깨닫고 지금도 매일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앞으로도 평생교육을 통해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조금 더 어른에 가까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신지연 선임 데이터요! (웃음) ‘참여자 1,000명, 취업자 500명’ 5년 전 발표한 이 목표가 정말 달성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달성을… 했어요! 함께 만든 사업의 의미와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탄탄할 수 있도록, <굿잡5060> 취업의 정의와 데이터 기준도 만들어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어요. 차곡차곡 쌓인 중장년 1,000여 명의 데이터 속에서 중장년의 역량과 경험을 오롯이 느낄 수 있고, 이는 참여자와 운영자가 함께 보낸 시간이 담긴 소중한 귀한 자산이에요.

Q6

다채로운 1,000명의 참여자를 만났습니다. 인생 2막을 위한 도전, 취업을 희망한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면 좋겠다고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노유진 PM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다소 이기적인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운영자로서 일할 의지가 반감되는 경험을 한 적이 더러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100세 시대를 살아가려면 지속 가능한 일을 찾아야 하니까요. 아쉽게도 그 인연이 재취업의 첫 번째 직장에서 이뤄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경력보다 실력이 돋보이는 증거를 차곡차곡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 달짜리 인턴십이 10년의 일자리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자리는 스스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배소영 매니저 비교 금지! 포기 금지! 무엇이든 시작하기!

장동하 매니저 첫 번째는 재취업을 하려는 분명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이유는 자신의 욕망 또는 욕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돈인지? 가치 실현인지? 단순히 남는 시간을 채우려는 것인지? 진심으로 정의해야 삶의 동력이 생깁니다. 어떤 유형이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커뮤니티 활동이나 단기 인턴십 또는 사회적기업 프로보노 활동이든 현장에서 얻어지는 정보와 네트워킹은 재취업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에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의 아니게 구직활동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직활동을 멈추게 되는 경우를 현장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요. 수많은 실패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실패의 원인을 하나하나 채워가야 합니다. 힘든 이야기라는 생각은 듭니다. (웃음)



황성철 매니저 재취업에 성공하려면 '앞으로 어떻게든 잘 되겠지?' 같은 근거 없는 자신감과 막연함에서 벗어나 자신을 객관화하고 유연하게 재사회화(자격증, 일 경험)를 통해 도전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핵심역량을 보유한 분은 일 경험을 통해, 핵심역량 미보유자는 자격증 취득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재취업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국잡5060 함께한 사람들

중장년의 경험과 지혜로 재취업 여정의 이정표가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8년	구형모	오원기	김현희	김주옥	민평순	서수란	김장주	권신
공건식	김성수	유영란	박아나	박찬성	배성자	신명철	김혜진	김남훈
김우련	김정란	이강은	신동춘	서광진	신재호	오승기	박경	김형석
김혜지	박일호	이규동	이민주	서병현	오경석	임현숙	임준규	김희필
김홍규	송충관	이정호	이채영	성창현	이성천	권상기	정영숙	박영숙
김희원	송혜란	정종화	장동하	이명길	이정민	문세정	최영선	박재관
노유진	이재우	조경희	홍은국	이장규	이태호	박찬호	하삼일	박희관
문민수	정성식	채희석	황종필	장우영	정경이	배철	한동윤	유혜경
오범석	최재선	강주수	고승려	최영규	고정숙	변경아	곽준옥	윤종석
이재원	최찬식	박선호	금기호	홍은주	김광규	송승재	권오걸	이승인
정명근	황인호	박성주	김영삼	김성대	김일겸	이광욱	김민경	이지숙
조희선	박태구	박정환	박경호	김우솔	김현승	이길원	서동권	전상호
지용태	손준호	시태봉	박돈식	류성희	유재진	이우경	신연철	강재호
김미화	이재환	오영숙	서근석	서이덕	윤종현	이우선	윤세인	김구영
김민수	이진영	왕미숙	송석근	심재영	이용일	정국현	윤찬호	김도형
도현주	임성호	이미령	이재병	이기호	장미영	최현정	이경록	김수정
박유석	전영식	이홍만	장은실	정순진	정미영	강석범	이명례	문희철
박종국	전오석	최자영	조형관	정욱	최명림	김다우	정영길	박문영
손춘석	정미승		채수삼	진경환	최수범	김성곤	최경미	유종석
신일섭	최승원	2019년	최상옥	최희정	홍기광	김재유	홍완표	이근수
이경재	황성철	김기연	최승제	홍강호	강태준	박민숙	강선영	이영재
이길우	곽경대	김대훈	강승주	황이원	김기영	박원규	강선옥	정현기
이성훈	김대환	박용수	고의창	황일성	김우철	박준우	강천호	홍찬석
이정기	김학무	안만엽	김지환	구승관	신현수	신미숙	권희선	황미영
최선인	김해석	양윤희	노인섭	김은경	양미자	오명윤	박성일	김형기
김명하	박주한	이규란	박영옥	백지선	윤한일	유선주	이상천	나준관
김세윤	이건석	이명세	박진홍	신희숙	이해룡	이덕수	이희숙	박용식
김애란	이만식	이미영	박환일	안인균	이해정	이만근	임수희	박태열
김인홍	정인림	이승제	서명중	오영안	장인기	정윤승	정지원	신정순
노용숙	조복희	이운성	손은옥	정성출	정학동	최종욱	조영호	오명수
박수중	조현태	장량	이창민	지호준	조소익	강신옥	창현국	오상권
이한수	홍원희	정국심	장우정	최혜영	김달용	고정우	홍승남	이난영
전영철	김상현	정난주	조재승	하윤수	김세종	김경훈	황정일	이승제
정도영	김현주	강형창	편선희	고지현	김영민	김기영		최명옥
정상규	심형은	김인자	김용석	김종식	김인근	김성겸	2020년	최철
황혜란	엄선영	김지영	김종연	문동일	류승권	김은미	강창국	홍일승

금대형	권장옥	강성국	민형식	오진이	김한신	강종근	김지유	박치영
김귀현	김난희	김영석	안주경	이상목	서희동	김기범	김희찬	안수진
김영서	김대하	김태경	이기형	이장희	이병열	김민	박홍신	윤왕현
김재원	김은경	박국태	이민우	이정숙	이성준	김연수	오유리	이광호
김혜순	문지원	박민숙	이병수	장경필	이현수	김현주	이광표	이승열
어용석	박범철	안상길	이상철	최일로	이희정	김형곤	이혁재	이승호
이미진	여태정	어택선	정연아	2021년	정광진	노명록	임정호	이재선 B
이옥현	이규성	윤일영	최동규		정이화	서강철	정재권	이재선 A
이준연	이동연	이대호	최영경	강명오	정재욱	오선하	한상연	장우섭
이호현	이선희	이수진	공장환	김민규	조은하	유용욱	한영식	최진현
임은경	이준석	이영미	김영진	김재규	조철규	이규희	강미순	김동규
주상희	조미연	조선영	김창섭	김효경	한상진	이영훈	강철원	김상호
고미미	김무성	구본용	김창환	박지연	권영혁	임미경	권용택	김성호
김성진	김보경	김미경	박순식	박현묵	김명기	고동성	김수미	김은경
김용진	김택중	김선영	배성윤	사경희	김정훈	서길원	김태남	김정희
김은정	나혜운	김성홍	우병륜	선우진	박철현	양지욱	오정근	나영림
유필근	문재환	김용운	이상훈	오병창	서경채	윤석원	이돈창	마승찬
윤성만	박기수	박은정	이영만	윤철순	신승주	이성훈	이득신	박은아
이동우	박래진	서동희	이주은	이명선	안선희	이정숙	장예은	박창국
이원종	송미경	송응준	장은숙	임병희	왕명진	임원택	조성현	최용진
이정옥	유연화	이상돈	전준오	정현준	이강석	임지은	최정은	김승태
장종근	전현용	임재현	권순용	한덕환	이진	전경희	최종성	김영호
정의정	조성희	조상엽	김명진	강승용	임종건	정규열	김석중	김용태
함영석	최기덕	김민영	김영민	곽영석	김원탁	홍성덕	김순호	김형남
강선호	최성재	김정훈	김주성	김의진	김종아	홍성인	김윤경	박용대
강영선	민경석	박영서	문민정	김철현	김찬호	고대권	김진형	오승준
강준식	노상욱	안용호	윤승재	박상권	김해경	김락중	이규민	유효상
김성학	박인혜	이민후	윤창수	설진원	리준원	김성욱	이주영	윤학중
김지연	박주영	이상진	이상진	윤정섭	박용태	김우식	이춘석	이윤철
시장명	손용숙	이종길	이정기	이선화	박종철	이상갑	조서린	이준호
오윤관	오병철	이준규	정인택	이응수	윤재호	이일주	조연진	이지연
유순주	이규	임도희	정학림	전현식	이찬우	정경아	최선	정선임
임송학	임승하	조현호	권혁찬	조찬연	장선화	조성민	홍영기	김병직
정혜선	장승완	김미숙	방만택	허승규	최형락	최인성	권규섭	김서우
주성학	정세현	김영구	서현성	김민자	한창건	허수미	김구정	김지연
구영조	조인대	김준석	오경준	김상훈	홍진기	강주원	박근정	김태경

박수용	송기석	김홍수	김동욱	홍성준	김정엽	이정철	이송민	이동일
심면섭	이승엽	송정숙	김순호	김나영	김정희	장성수	이준엽	이승환
윤덕운	이진국	안재덕	김영숙	문재원	박기영	전호열	임동범	이태희
이성원	최소양	윤인선	김재현	박동규	박용순	정덕순	정경훈	장은선
최윤중	최용환	이동호	문보희	박선행	박운선	정병근	진영순	정은임
한효진	한정민	이정호	양도승	박지순	백창석	정용진	홍상혁	김광호
허광록	김영준	정종갑	이수진	서수향	안정선	최용규	강준호	김범중
김문희	김영환	주희정	전환우	손승욱	유주성	김채선	권기웅	박현자
김정임	김진국	최준	홍동혁	손이향	이미경	박소정	김기선	서우경
김철수	문태성	권영준	홍서경	신준철	이석우	성상철	김송학	시태영
김현경	박미영	박상권	김정훈	오병훈	이은경	신호식	김용탁	신문희
노광준	박일환	박형섭	김준	유리라	임석규	안광인	김진한	오경석
박정재	박치영	배선희	서창원	이안규	장재원	안평재	남윤희	유경숙
송형순	배성수	우에서	선창규	정문규	최종철	윤종삼	박기임	유준호
심정민	백낙현	윤민용	우정욱	최지우	홍정원	이정희	백승일	유지연
이세원	성기승	이미향	이성호	황정현	고영훈	이지환	유형박	유현경
임승열	주희진	엄태훈	이진경	김정렬	김만진	이한주	이경희	유형오
조성빈	김재필	이수철	이현화	김관문	김명균	이호성	이근석	윤이원
천명식	박대환	정지윤	정숙	김주연	라현	장순우	이세영	이봉선
고영숙	박진주	황관준	정인석	박윤재	박성숙	정상민	조성인	이승균
곽기택	변선애	김대현	조정예	박치안	박종운	정의정	채은영	장동훈
김종우	양태훈	김진록	허미경	백승민	오미숙	정현영	최경규	전찬구
문석주	유승정	김한기	현성호	서용원	이희창	채흥기	한석민	최은
방유식	윤종진	심재민	강화연	송재용	정신환	허지안	한재원	
원종규	윤준구	안선행	고대광	엄상모	정연일	강동오	강병구	
정달현	이숙희	오해영	김대현	이상원	조홍익	김수영	강영훈	
정승호	이태수	유길섭	박은영	이선민	김찬구	김은희	김경중	
조민석	이형호	윤종근	박혜준	이현주	김현아	김정애	김판수	
조준상	최성희	이문희	방미영	임승섭	김형규	김진화	김학주	
표해연	최양식	이용수	여인성	임재욱	김혜란	김학연	김화주	
김수철	최윤희	임여규	이경찬	정윤영	박시우	박경숙	남택훈	
김영빈		정영경	이용석	최인호	박원숙	박병희	노상수	
김조일	2022년	차병구	이장우	한국일	박정식	박수영	민관래	
김진형	김기덕	강영주	이재원	한미희	송민옥	안재준	박숙영	
문재형	김명숙	공창용	정희상	강지영	신다원	유재동	백승욱	
범광일	김상욱	권혁원	최은정	김은섭	윤승희	이근수	양은영	

굿잡5060 함께한 기업들

중장년이 사회혁신의 자원이 되도록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119레오
282박스
2nd투모로우
88후드
SV0|노베이션
TSA손해사정
Willson
YS콘텐츠
고요한모빌리티
공감만세
관악실업
그린주의
금성케이엔티
나이스컴일렉트로닉스
녹색드림협동조합
녹색친구들
농업회사법인행복한버섯
더가치나눔협동조합
더그라운드웍스
더페이스프랜즈
더함플러스협동조합
더해피박스
동양시스템즈
동진기전
두근두근
라잇루트
러블리페이퍼
리드릭
마로마브
마미품
마을아카이브
마포산책마을여행
미소정보기술
바운드포
배재문구
백지장

밸리스
법정문서
베타베이직
별따러가자
부산의아름다운길
브이노마드
비에스앤씨
비전웍스
빅이슈코리아
뿌로로파크
사계절공정여행
삼광트러스트
서감도
서민금융진흥원
서종글로벌
선수산업
선해수산
세상에없는세상
소무나
시니어벤처협회
심온사회적협동조합
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아츠컴퍼니뜨락
아트임팩트
에듀툴킷디자인연구소
에디어츠
에버영코리아
에스에스모빌리티
에스엔소프트
엔젤푸드
엠즈푸드
오드포인트
오디오가이
울트
우리콜시스템
위대한상사

유한책임회사 더함
유한책임회사 이든
육공물류
윤슬케어
을지인쇄클러스트
이지무브
인투스
제로마켓
제이케이유
지노도예학교
지혜의발
착한엄마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
친환경식품
칸켄테크노코리아
커밍비
케어닥
케어유
크레파스솔루션
터치포굿
테스트웍스
트래블러스맵
트립티
페어스페이스
피스코리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함께일하는세상
함께일하는재단
해든솔
해피에이징
해피팜협동조합
흙체크
힐링보장구협동조합
히든북

굿잡5060 함께 그린 내일

발행일 2022년 10월

발행처 현대자동차그룹 사회문화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주)상상우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05 2층 상상캔버스

전화 02-775-5060

홈페이지 www.goodjob5060.com

문의 goodjob5060@gmail.com

기획/제작 파지트

디자인 빅웨이브

굿잡5060 사무국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본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발행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HYUNDAI
MOTOR GROUP | 굿잡5060은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합니다.



현대차그룹과 함께하는
굿잡 5060